

프로그램

접수 [09:30-10:00]

개회식 [10:00-10:10]

개회사 문치웅(홍익재단 이사장)

행사소개/내빈소개

사회: 선석열(부경대)

제1발표 [10:10-10:40]

고려시대 목은 이색의 華夷觀과 三韓史 인식

- 김성환(경기도박물관)

제2발표 [10:40-11:10]

조선시대 단군 전승의 전개와 변용

- 오현수(한국학중앙연구원)

제3발표 [11:10-11:40]

근대 일본학계의 고조선 연구 고찰

- 조원진(세종대)

종합토론 [11:40-12:30]

좌장: 조경철(연세대)

2022 통합 Conference 【한국인의 기원과 동아시아 고대문화】
고조선 이해의 쟁점과 과제

목차

【제1발표】 고려시대 목은 이색의 華夷觀과 三韓史 인식	3
▶ 김성환(경기도박물관)	
【제2발표】 조선시대 단군 전승의 전개와 변용	35
▶ 오현수(한국학중앙연구원)	
【제3발표】 근대 일본학계의 고조선 연구 고찰	67
▶ 조원진(세종대)	

2022 통합 Conference 【한국인의 기원과 동아시아 고대문화】
고조선 이해의 쟁점과 과제

【제1발표】 고려시대 목은 이색의
華夷觀과 三韓史 인식
▶ 김성환(경기도박물관)

【제2발표】 조선시대 단군 전승의 전개와 변용
▶ 오현수(한국학중앙연구원)

【제3발표】 근대 일본학계의 고조선 연구 고찰
- 한국·중국학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조원진(세종대)

1 고려시대 목은 이색(1328~1396)의 華夷觀과 三韓史 인식

김성환(경기도박물관)

목 차

1. 머리말
2. 다원적 천하관의 기억과 華夷觀의 변화
3. 三韓史의 출발, 고조선
4. 맺음말

1. 머리말

이색(1328~1396)은 동아시아의 원명, 국내의 고려·조선 교체기를 살았다. 그는 급변하던 시대의 요구를 맨 앞에서 맞닥뜨려 대응하며 실천해야 하는 관료이자 정치인이었고, 백이정·이제현 등을 통해 皇元에서¹⁾ 수용된 성리학을 고려사회에 정착시킨 당대의 儒宗이었다. 흥건적의 침입을 겪은 1361년(공민왕 10)에는 왕명으로 성균관을 중수하여 대사성을 겸하고 김구용·정몽주·이승인·정도전 등의 학관과 經書를 가르치며 성리학 보급에 힘썼다. 그의 학문은 “군더더기인 살을 버리고 골수만을 얻은 것이어서 중국에서도 견줄 만한 사람이 드물다”는 평을 공민왕에게 들었다.²⁾ 그렇지만 그는 청장년기에 앞 시기의 선배들과 달리 원의 불합리한 고려 정책에 맞선 개혁을 추진해야 했고, 40대 이후 몰락해가는 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천자로 떠오른 명과의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천하관의 혼선과 화이관의 중첩을 겪으

1) 《가정집》권3, 기, 〈趙貞肅公祠堂記〉; 《졸고천백》권1, 〈海東後耆老會序〉.

2) 《목은집》, 〈朝鮮牧隱先生李文靖公行狀〉(권근); 《고려사》권115, 열전28, 이색.

며, 급진개혁파들에게는 개혁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비판되기도 했다.

이색은 史官이기도 했다. 20대 후반 고려와 원의 과거에서 급제하여 그 군주를 국왕과 천자로 모시다가 40대 이후 명의 새로운 천자에게 사대하고 신왕조의 건국을 경험해야 했다. 그는 초직에서부터 고려와 원에서 겸했던 사관직을 40여년의 관직 생활 동안 함께했다. 1354년(공민왕 3) 3월 원의 전시에서 급제하여 응봉한림문자승사랑 동지제고에 제수되면서 원의 역사편찬기관인 국사원의 편수관을 겸직했다. 그리고 곧 고려로 귀국해서는 11월에 통직랑 전리정랑 예문응교 지제고에 임명되면서 춘추관편수관을 겸했다. 이후에도 이 직을 겸했고, 1356년 6월 원의 지정 연호 사용이 중지되고 7월 관제가 바뀌어 춘추관이 옛 이름인 史館을 되찾자 그의 직도 사관편수관으로 바뀌었다.³⁾

사관의 명칭이 충사관, 충춘추관으로 바뀌면서 1358년 2월 통의대부 추밀원우부승선 한림직학사 충사관수찬관 지제고 지공부사에 승진하고, 이후 지예부사·지병부사·지군부사로 전임되면서도 충사관수찬관과 충춘추관수찬관은 계속 맡았다.⁴⁾ 36세 때인 1363년 12월 단성보리공신 봉익대부 밀직제학 우문관제학 동지춘추관사 상호군에 임명되었고, 이후 提點書雲觀事, 보문각대제학과 예문관대제학에 제수되면서도 동지춘추관사는 계속된 직책이었다. 1367년(공민왕 16) 12월 판개성부사 예문관대제학 지춘추관사 상호군 겸 성군대사성 제점서운관사에 임명되었고, 1371년 모친상으로 일선에서 물러나 1374년 12월 중대광 한산군에 봉해질 때도 지춘추관사는 지속되었다. 48세인 1375년(우왕 1) 8월에는 보절동덕찬화공신 삼중대광 한산군에 진봉되면서 領藝文春秋館事 겸 성군대사성에 임명되었고,⁵⁾ 실직은 아니었지만 춘추관사는 1389년(창왕 1)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시대의 전환기에 역사편찬의 최전선에 있었다. 하지만 그 결과로는 지춘추관사로 감춘추관사 이인복과 함께 《본조금경록》을 증수한 사실이⁶⁾ 알려진 것이 고작이다. 반면에 《목은시고》에서는 고조선에서 시작하는 三韓史와 國史에 대한

3) 1357년 윤9월 말에도 그는 간관으로 翰林直學士 史館編修官 知制誥를 겸하고 있었다. 《목은시고》 권4, 〈自責〉.

4) 1360년 겨울에 지은 시에서도 史官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목은시고》 권5, 〈直廬長歌〉.

5) 그가 史官의 직책을 지니고 있었음은 1378년 정월과 8월 이제현을 생각하며 지은 시와 단양을 가면서 지은 시 등에서도 확인된다. 《목은시고》 권7, 〈奉懷恩門益齋先生〉 및 〈記辛丑冬丹山途中〉·〈光巖〉.

6) 《고려사》 권43, 공민왕 20년 5월 계유(22일).

이해의 단편이 제법 확인된다. 이 글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그의 삼한사 인식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한다.

고려의 관칭으로 해동·동국과 함께 三韓이 사용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⁷⁾ 이런 점에서 고려시대의 역사는 ‘三韓史’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용례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색의 시편에서 확인되는 것이 유일하다.⁸⁾ 여기서의 삼한사는 고려왕조사를 가리키지만, 시어로 사용된 것이어서 학술적인 성격으로 검토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고려시대에 그 이전의 상고사부터 고려왕조사까지를 포함하는 通史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三國史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것이 고려시대의 역사 개념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⁹⁾ 그리고 그는 朝鮮氏를 삼한 역사의 시작으로 잡고 있다.

이색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 그 전반에 대한 검토와¹⁰⁾ 함께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화이관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¹¹⁾ 단군과 기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사(삼한사) 인식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¹²⁾ 그렇지만 그의 삼한사 인식에 대해서는 보다 정치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단군과 기자를 중심으로 그의 고려 상고사로서 삼한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三韓仁壽君子國’이라

7) 노태돈, 1982,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연구』 38.

8) 《목은시고》 권11, 〈有感〉(一).

9) 그는 또 고려왕조사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國史도 사용하고 있다. 《목은집》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며, 그 용례 또한 다양하다. 《목은시고》에서 삼한사의 범위는 고조선부터 당대까지를 포함하지만, 이 글에서는 일단 고려 건국 이전의 역사를 삼한사, 건국 이후의 고려왕조사를 국사로 구분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국사와 관련해서는 「이색의 국사 인식과 《本朝金鏡錄》의 增修」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10) 김남일, 1994, 「이색(李穡)의 역사인식(歷史意識)」 『청계사학』 11; 馬宗樂, 2006, 「牧隱 李穡의 生涯와 歷史意識」 『진단학보』 102.

11) 이 시기의 성리학 수용자들의 화이관은 형세문화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색의 역사인식도 이를 토대로 고려 말 조선 초의 역사관과 문명론의 변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채웅석, 2003, 「원간섭기 성리학자들의 화이관과 국가관」 『역사와 현실』 49; 도현철, 2000, 「원명교체기 고려 사대부의 소중화 의식」 『역사와 현실』 37; 김성환, 2008, 「정몽주의 화이론적 역사관-自國史를 중심으로-」 『포은학연구』 2; 최봉준, 2013, 「14세기 고려 성리학자의 역사인식과 문명론」,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봉준, 2015, 「여말선초 箕子 중심의 역사계승의식과 조선적 문명론」 『한국사학사학보』 31. 하지만 명의 등장으로 형세문화론에서 점차 명분론적인 것이 혼재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이익주, 2013, 「이색의 현실인식」 『이색의 삶과 생각』, 131-174쪽), 여전히 그 중심은 형세문화론적인 화이관에 있었고 명분론적인 화이관으로의 전환은 조선 건국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12) 도현철, 2005, 「李穡의 性理學的 歷史觀과 公羊春秋論」 『역사학보』 185. 당대사 인식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박종기, 2007, 「이색의 당대사(當代史) 인식과 인간관-묘지명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6.

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 먼저 기자와 소중화론을 중심으로 그의 화이관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삼한사의 출발로 이해된 고조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려 말 고조선과 단군을 중심으로 삼한사의 출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다원적 천하관의 기억과 華夷觀의 변화

고려가 건국되는 10세기 이후부터 원이 등장하는 13세기 중반까지 동아시아에서 종족 중심의 전통적인 화이관은 설 자리가 없었다. 고려로서는 사실 명분론적 화이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다. 북방민족의 요와 금, 한족의 송은 별도의 천하를 이루고 있었고, 서하도 마찬가지였다. 각국은 서로 형식적인 사대관계를 맺으며 다원의 천하를 이루고 있었다. 다원사회를 지향했던 고려사회 역시 다원적 천하관을 지니고 있었다. 고려는 外王內帝하며 황제국에 준하는 체제를 갖춘 해동천자의 국가였다.¹³⁾ 세계제국인 원과의 관계가 실질적인 사대관계로 재편되면서 더 이상 다원의 천하는 존재할 수 없었다. 고려의 황제국에 준하는 체제는 제후국 체제로의 격하를 강요당했고, 다원적 천하관은 일원적인 화이관 중심의 천하관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중원에서도 몽고족의 원이 夷에서 華가 되어 전통적인 한족 중심의 화이관은 대일통의 천하를 이룬 세력이 ‘華’가 된다는 형세문화론적인 화이관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원에서 관학으로 수용된 성리학은 그 사상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원과 천자와 제후, 황제와 부마라는 이중적인 관계를 지속한 고려에서는 원의 관료체계에서 국왕승상으로서의 국왕권 제약과 왕위의 교체마저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독립국으로서의 존속이 최대의 과제가 되었다. 물론 고려의 입장에서 토풍의 유지라는 세조구제를 방패막이로 삼았다. 하지만 그것은 당면한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했고, 급변하던 원 조정의 상황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 못했다. 세조구제는 어디까지나 원이 고려를 비롯한 제후국을 통치하기 위한 것이었지, 고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려로서는 한계가 분명했다. 현실에서 그것을 얼마만큼 자국의 입장에서 재해석하여 원을 설득하는가의 문제

13) 盧明鎬, 1999, 「高麗時代의 多元의 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 秋明燁, 2005, 「高麗時期 ‘海東’ 인식과 海東天下」 『韓國史研究』 129.

였다. 고려가 四海一家를 이룬 원에 同文意識을 가지고¹⁴⁾ 소중화를 자부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이색은 원의 천자를 모신 때가 있었고, 원명 교체기에는 두 명의 천자에 사대하기도 했으며, 그것은 점차 명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갔다. 그런 가운데 그의 천하관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화이관의 주체 역시 형세문화론을 중심으로 夷族(몽고)에서 漢族으로 변해갔다. 1348년 4월 그는 원에 있으면서 천수절을 맞아 고려에서 표문을 올리러 온 사신과 함께 대명전에서 천자인 혜종(순제) 토곤테무르를 알현했다. 그 광경은 천지사방이 요임금의 시대처럼 一家가 된듯하고, 자신은 푸른 하늘에 난새를 탄듯했다고 했다.¹⁵⁾ 1360년 여름에는 가뭄 끝에 내린 단비를 경하하며 세조의 유업을 계승하려는 뜻에서 첫 번째 연호도 지원이라고 한 혜종의 정치가 중통·지원의 聖天子를 따라가기를 희망했다.¹⁶⁾

그런데 중원의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따라 공민왕은 반원정책을 실시했고 강남에서 명의 건국(1369, 공민왕 18)으로 원이 북경에서 밀려나자 명과 사대관계를 맺었으며, 이색은 그 표문의 대부분을 작성했다. 하지만 공민왕의 시해로 이인임 등이 정권을 잡자 원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회복되었고, 고려로서는 한동안 두 명의 천자가 공존하는 사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색의 시에서도 이런 움직임의 실마리를 읽을 수 있다. 그는 원의 천자를 至元天子 또는 대원천자로,¹⁷⁾ 명의 천자를 金陵天子로¹⁸⁾ 불렀다. 1379년(우왕 5) 6월의 시에서는 두 천자를 받들어야 하는 마음을 “천지가 갈라져서 즐겁지 않다”고 했고,¹⁹⁾ 북쪽의 원과 남쪽의 명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전기에 앞서의 요와 뒤에 송이 건국되었던 상황과 비교하기도 했다.²⁰⁾

14) 《목은문고》 권13, 서후, 〈書上札補正雪菴大字卷後〉 “元興百餘年 文理大洽 四方學士 咸精其能 蔚乎一代之盛矣 是以論者謂其文似漢 其詩似唐 其字似晉 至於大字…” .

15) 《목은시고》 권2, 〈天壽節日 臣穉從本國進表陪臣 入觀大明殿〉 . 《목은시고》에 실린 시의 저술 시기에 대해서는 이익주, 앞의 책, 부록 「『牧隱詩藁』 작품연보」 참조.

16) 《목은시고》 권5, 〈賀雨行 與清風同作〉 .

17) 《목은시고》 권5, 〈聞賊平有感〉 ; 권19, 〈金漁友求銘乃祖幽堂 因吟四首〉 .

18) 《목은시고》 권13, 〈奉懷金陵〉 ; 권26, 〈十七日 監進色以呈省事請坐 然其間尙有咨決都堂 然後可以措辭者條具以呈 三色設點心 又蒙宣醞 微醉而歸〉 . 1377년(우왕 3) 일본에 사신으로 가는 정몽주를 위해 지은 시에서는 일본국 군주를 일러 “日出處之天子” 라고 했다. 같은 책 권1, 사, 〈東方辭 送大司成鄭達可奉使日本國〉 .

19) 《목은시고》 권18, 〈六月十五日戲題〉 .

20) 《목은시고》 권18, 〈北庭〉 . 그는 이때 국운을 다한 원을 대신해서 명이 흥기할 것을 인지하고(같은 책 권18, 〈有感〉 “(一) 元興朔雪中 艱苦立朝廷 將相一心力 普天仰皇靈 泰極運中否 相殘刑發腥 南風吹金微 樹木多冬青 君子有浩歎 兩鬢今星星”), 10월에는 이무방이 명에 가는 사신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 常禮라고 하였다(같은 책 권20, 〈江南進獻使李宰相加官 故有宰批 穉與韓簽書以玄陵碑

1382년 4월에는 원(북조)과 명(남방)에 모두 표문을 보내야 하는 심정을 읊었다.²¹⁾ 이런 상태에서 그의 화이관은 여전히 형세문화론의 측면에서 ‘화’의 주체로 원과 명이 중첩되고 있었다.

A-1. 신하가 어떤 이를 섬기면 그를 임금이라 하고, 임금이 어떤 이를 부리면 그를 신하라고 한다. 초나라에서 태어났더라도 진나라에서 쓰일 수 있으니 나라를 가지고 제한을 둘 수 없으며, 수나라에 아첨했더라도 당나라에 충성할 수가 있으니 사람을 가지고 구별할 수 없다. 서로 통할 경우에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새가 구름 위로 나는 것처럼 되겠지만,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거문고를 잘 타도 제나라에서 좋아하지 않은 것처럼 될 것이다. 임금과 신하가 멀어지고 합치되느냐는 이유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 관계가 심해질 경우에는 원수처럼 여기거나 양이나 소처럼 대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형세상으로 서로 고집을 부리는 관계에서 情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면, 아! 얼마나 위태롭겠는가. 그 사이에 奸雄이 한 번 펼쳐 일어난다면 大事를 그르칠 것이니 참으로 위태로운 일이라 하겠다.

(《목은문고》 권10, 설, 〈直說三篇〉(二))

자료 A-1은 군신간의 관계에서 情(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마음을 서로 얻으면 초나라에서 태어났더라도 진나라에서 쓰일 수 있고, 수나라에서 간신이었던더라도 당나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어 사람을 가지고 구별할 수 없다고 했다. 형세론에 따른 군신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1379년 가을에는 명과 원이 동시에 고려에 접근하는 상황의 곤란함을 “五星이 同會하여 천하가 통일되는 때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²²⁾

명과 원 중에서 어느 쪽을 사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인임 등의 권신과 신흥유신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이색 역시 이에 대해 고민을 했다. 1380년 7월 그는 본래 섬기던 천자가 塞外로 쫓겨난 것을 불편해하면서 원 사신이 조서를 가지고 고려에 도착하자 기뻐하면서도 천하가 나뉘어 선뜻 반기지 못하는 심정을 읊었다.²³⁾ 그렇지만 그 고민은 깊지 않았다. 그는 1382년(우왕 8) 봄에 원 순제를 모시고 자정원 장관을 지낸 중추원사 김광수가 곡성부원군 염제신·칠원부원군 윤환·월성군 鄭暉·길창군 권적·정당 한수·영

故 皆復舊職 明當謝恩 有感發詠》).

21) 《목은시고》 권32, 〈有感〉 “(三) 北朝模楷渾厚 南方體■精華 草創仍兼脩飾 文移豈患差訛” .

22) 《목은시고》 권19, 〈有感〉 “二龍爭戰決雌雄 航海梯山次第來 問向拾遺能見否 五星同會是何時” .

23) 《목은시고》 권24, 〈我生〉 ; 권25, 〈北使〉 .

녕군 王彬 등을 초청한 연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들은 모두 원의 벼슬을 제수했으면서도 명의 건국으로 새로운 천자의 출현을 맞은 사람들이었다. 그 풍경을 “大元의 전성기에 태어나 중원(명)의 聖人 출현을 목도한 사람들이 모여 슬픔과 기쁨이 교차한다”고 했다.²⁴⁾ 여기서 슬픔이란 원의 쇠퇴이고, 기쁨이란 명의 건국이었다.²⁵⁾

1378년(우왕 4) 5월의 시에서는 흥무제가 등극한 이래 나라가 살찌 근래에 보기 드문 태평시대를 맞았다고 했는데, 그때는 요순의 시절과 비교되었다.²⁶⁾ 하지만 여전히 원의 천자도 존재하고 있었다. 1379년 정월에 지은 시에서 “천명은 새 천자(新主)를 내놓았는데 인심은 옛 천자(舊君)에 있다”고 하여 고려의 상황을 전하기도 했지만, 명에서는 옛 문명을 숭상하여 밝은 태양이 환히 빛나고 있고 원에는 질박한 것만을 쫓아 누런 먼지로 가득하다”고 했다.²⁷⁾ 그는 원의 천자가 명에 쫓겨 북동쪽으로 밀려난 것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였다.²⁸⁾

A-2. 원나라는 북방에서 일어나

어렵게 조정을 세웠네
將相이 心力을 하나로 모을 땐
운 천하가 천자의 威靈을 우러르더니
泰運이 다하고 否運이 찾아오니
서로 해쳐 모진 형벌 난무하네
남풍이 金微에 불어올 때
수목 증엔 冬靑이 많기도 했지
군자가 크게 탄식하노니
두 귀말이 이젠 희끗희끗하다네
(《목은시고》 권18, 〈有感〉)

1379년 7월에 지은 자료 A-2에서 그는 원의 쇠퇴를 기정사실화하고 명

- 24) 《목은시고》 권31, 〈金光秀院使邀曲城·漆原兩侍中及鄭月城·權吉昌·韓政堂·永寧君·順興君·少韓政堂及穡〉.
- 25) 중국에서의 聖人 출현은 1380년 가을 權仲和가 명에 사신으로 가는 것을 송별하는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읊은 시에서도 확인된다. 《목은시고》 권26, 〈禮泉君子■醜錢庸夫四宰金陵之行 以僕貧不令出錢〉 “...況今中國聖人出 雖乏玄黃當獻芹...”.
- 26) 《목은시고》 권8, 〈偶吟〉; 권12, 〈逢堯歌〉.
- 27) 《목은시고》 권14, 〈述懷〉.
- 28) 《목은시고》 권17, 〈已矣乎歌〉. 1383년 7월에 지은 〈聞東北面有警〉에서도 원의 쇠퇴와 명의 사대를 기정사실로 하며, 명과의 외교관계를 회복할 방법에 골몰하기도 했다. 같은 책 권34, 〈聞東北面有警〉 “際遇元朝近百年 海隅千里大平煙 人心正譎能移世 國運興亡只在天 玉帛南馳安敢後 梯航中斷苦難前 是皆命也無逃處 鏡裏霜毛倍颯然”.

이 새로운 천명을 받았음을 읊었다. 1380년 정월 원에 사신으로 갔던 왕빈이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돌아왔고, 2월에는 명에 사신으로 갔던 이무방과 배언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등주에서 돌아왔다. 사신을 받지 않겠다는 명 황제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또 원에서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자 우왕은 도성 바깥에서 직접 영접했고, 3월에는 밀직부사 문천식을 원에 보내 책명을 내려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4월에는 송경윤 周誼를 요동에 보내 명에게 다시 사신 파견을 허락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지만, 오히려 명에서는 그를 체포해 억류시켜 버렸다. 이색은 이런 상황을 “삼한고국은 강남과 만여리나 떨어져 있는데다 천자의 조정에 갈 방법이 없어 오래도록 사신을 파견하지 못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다.²⁹⁾ 권중화·정몽주 등도 도중에서 돌아와야 했던 사신 파견이 1383년 8월 문하찬성사 金庾의 성절사 파견으로 마침내 이루어졌다. 이때 사신단은 공민왕의 시호 요청과 우왕의 왕위계승을 요청하는 표문, 고려 사정을 알리는 표문을 가지고 갔는데, 이색은 3건의 표문을 마지막으로 考閱하며 구름 걷히고 일월이 다시 빛나 명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될 것을 바랐다.³⁰⁾

그는 우왕 때를 小康의 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³¹⁾ 1379년 10월 말경에 여진에서 보낸 토산물을 우왕이 궁궐 팔각전에서 받는 광경을 國史에 기록된 동여진이 매년 방물을 바친 사실과 비교하고 이를 번국의 조회로 묘사하며 교린의 道를 상기했다.³²⁾ 팔관회 풍경을 전한 것이다.³³⁾ 또 12월에는 영예문춘추관사로서 세모의 驅灘 의식을 설행하는 모습을 시로 지어 史官에게 보낸 적이 있다. 12神을 시켜 궁궐의 악귀를 몰아내는 의식에서는 푸르기도 하고 누렁기도 한 혹은 검은 눈을 가진 서역인, 굽은 허리에 키가 큰

29) 《목은시고》 권23, 〈海上〉.

30) 《목은시고》 권34, 〈卽事〉.

31) 박종기, 2007, 앞의 글, 355쪽; 도현철, 2011, 『목은 이색의 정치사상 연구』. 공민왕을 大同의 요임금 때로 비유했던 이색은(《목은시고》 권15, 〈携酒訪朴執義不遇 庸夫政堂公適朝退在家 欣然就飲 歸途有作〉 “…新春紫陌行無幾 落日玄陵望更遙 滿酌欲澆腸內熱 此生安得再逢堯”) 우왕 때를 小康의 시대로 인식했다. 이에 대한 언급은 주 23)에 인용한 시와 〈天陰喜賦〉에서도 확인되는데(같은 책 권29, 〈天陰喜賦〉 “…幸值小康當此日 特書大有是何年…”), 그 까닭은 우선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로써 왕위를 계승한 데 있었다. 그는 또 충목왕 때 역시 소강의 시대로 중흥의 예악이 성했다고 했다. 《목은문고》 권19, 〈烏川君謚文貞鄭公墓誌銘并序(鄭思道)〉; 권20, 〈臘月初五日 忠穆王忌辰也 設齋龜山寺 宰樞入眞殿庭下 肅拜而退 臣穉因有所感〉.

32) 《목은시고》 권20, 〈女眞千戶差來官進獻土物 上出御花園八角殿受其禮〉.

33) 1359년(공민왕 8) 중동의 팔관회 풍경은 다음과 같다. 《목은시고》 권5, 〈八關〉 “峩峩金碧跨風煙 禮樂修明更侈前 殿上盤龍雲欲墜 庭中振鷺玉相聯 八方壤奠高於嶽 一炷爐香降自天 揔道今年多瑞氣 侍臣頭重錦華鮮”.

남극노인, 강남의 장사꾼, 신라의 처용 등의 모습을 한 가면극이 펼쳐졌다. 그는 신하들이 병풍처럼 에워싸며 侍立하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국왕의 모습을 보고 해외의 상인과 고려의 藩國들이 참여하는 팔관회와 해동천자의 古樂府를³⁴⁾ 연상했다.³⁵⁾ 고려가 해동천자의 나라라는 기억을 끄집어낸 것이다.

이색은 고려 전중기의 다원적 천하관이 원간섭기 이후 일원적인 형세문화론 중심의 화이관으로 변환 시대를 살았다. 중년 이후에는 명의 건국으로 한동안 중첩된 두 개의 ‘華’에 사대하며 점차 이를 명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다. 기울어지는 원과 새로 떠오른 명의 천자에 사대해야 했던 그는 형세문화론의 화이관을 중심으로 다원적 천하관의 기억을 소환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송·요·금과의 관계에서 다원적 천하관의 기억을 소환하여 명과 원, 고려의 관계를 형세론의 입장에서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그것은 점차 명을 중심으로 하는 화이관으로 정리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형세문화론의 측면이 여전히 작용했을 것이다. 그에게 명분론적인 화이관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고려 자국사에 대한 그의 인식은 이런 과정에서 형성되고 다듬어졌다고 생각된다.

그의 형세문화론 화이관의 중심에는 기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³⁶⁾ 기자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에는³⁷⁾ 두 가지 관점이 작용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대의식과 중화와의 관계에서 소중화의식이다. 전자가 천자와 제후라는 계서적인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라면, 후자는 동문의식을 바탕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도 두 가지가 모두 확인되는데, 소중화론과 “기자를 신하로 삼지 않았다”는 箕子不臣論으로 정리될 수 있다. 언뜻 기자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후술할 조선씨를 이은 삼한인수군자국의 역사공동체라는 이해에서 비롯된 기자불신론은 형세문화론의 화이관은 물론, ‘중화’를 본받아 ‘동문’을 이루었다는 소중화의식을 집합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34) 《고려사》 권71, 지25, 약2, 속악, 風入松.

35) 《목은시고》 권21, 〈驅儼行〉 [聞之 敬書上送史官] “…君王端拱八角殿 群臣侍立圍疏屏 侍中稱觴上萬歲 幸哉臣等逢千齡 海東天子古樂府 願繼一童傳汗青 病餘無力阻趨班 破窓盡日風冷冷”.

36) 참고로 이색은 華夷의 공간적인 경계를 압록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목은시고》 권10, 〈自詠〉 (二) “久擬無心一片雲 奈何猶未離鷄群 操存儻可祇承帝 談笑何妨自却軍 人鬼關從螢榻出 華夷地向鴨江分 白頭已信東周意 回望中州日欲曛”.

37) 今西龍, 1922, 「箕子朝鮮傳說考」 『支那學』 2-10·11; 조원진, 2015, 「고려시대의 기자 인식」 『한국사학사학보』 32; 박대재, 2016, 「箕子朝鮮과 小中華」 『한국사학보』 65.

소중화에 대한 언급이 처음 보이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080년(문종 34) 송에 사신으로 갔던 박인량과 김근의 문장을 보고 칭찬을 마지않은 송나라 사람들이 그 시문을 《小華集》으로 엮은 사실에서이다.³⁸⁾ 송 지식인들의 고려에 대한 동문의식의 결과였다. 그들은 고려 사신이 머무는 숙소를 ‘小中華之館’으로 불렀다.³⁹⁾ 이규보는 〈華夷圖〉를 보고 중국의 모퉁이에 치우친 작은 땅덩어리를 가진 삼한에는 예부터 賢才가 이어져 중국에 견줄 만하여 중화인들이 소중화라고 불렀기 때문에 큰 땅만 가진 하찮은 몽고(胡戎)와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⁴⁰⁾ 이승휴도 중국과 다른 천하를 가진 별건곤의 고려를 중국사람들이 소중화라고 했다고 했다.⁴¹⁾

이색의 소중화에 대한 언급은 여러 차례 확인된다. 그 역시 소중화가 송에서부터 유래했음을 밝힌 바 있다.⁴²⁾ 1379년 6월 《동인지문》을 이어 고려 역대의 시문을 모아 정리할 민안인의 계획을 권면하면서 그것이 이제현·최해를 계승한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고려를 소중화라고 부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⁴³⁾ 또 1380년 5월에는 고열을 마치고 올라온 진사시권을 우왕이 내시에게 榜을 써서 이름을 부르게 한 것을 보고 이런 소중화의 풍속이 중국과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⁴⁴⁾ 1383년 7월 조정에서 명에 사신을 파견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중화관의 명성을 다시 떨칠 것을 기대했고,⁴⁵⁾ 1391년경 정몽주에게 준 시에서도 소중화관이라고 불렀을 때처럼 文風을 떨칠 것을 기대했다.⁴⁶⁾ 자국을 東夷로 인식했던 그에게⁴⁷⁾ 소중화는 유학을 통해 원명과 동문의식을 갖출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또 사대관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

38) 《고려사》 권95, 열전8, 박인량. 박인량은 문종의 哀冊文에서 그 업적을 서술하는 가운데 “문물을 융성시켜 송과 견줄만한 소중화를 이루었다”고 했다. 《東人之文四六》 권5, 책문, 〈文王哀冊〉. 金坵 역시 이때 儒道가 성행하여 “후미진 곳에 있던 고려를 사람들이 소중화라고 불렀다”고 했다. 같은 책 권15, 계, 〈上座主金相國謝衣鉢啓[良鏡]〉.

39) 《고려사》 권120, 열전33, 김자수; 《고려사절요》 권35, 공양왕 3년 6월.

40) 《동국이상국전집》 권17, 고을시, 〈題華夷圖長短句〉.

41)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지리기〉.

42) 《목은시고》 권18, 〈懷古〉 “國家遭遇宋文明 禮樂交修最太平…萬古難磨忠義在 小中華館 豈虛名”.

43) 《목은시고》 권17, 〈閔祗候安仁 集諸家詩稿 將續拙翁東文 予喜之甚 作短歌以勸其成〉.

44) 《목은시고》 권23, 〈五月初七日 徐承制考闈進士卷進呈 上出御便殿拆封 命內侍寫榜唱名 檣以困不能往觀盛事 吟成一首〉.

45) 《목은시고》 권34, 〈聞朝論將從海路 入貢金陵〉.

46) 《목은시고》 권35, 〈咸昌吟 寄呈圃隱〉.

47) 《목은시고》 권10, 〈對友自詠〉(三) “搖唇自亂道 閉目仍沈思 或難似超海 或易如折枝 明明服大訓 默默探微辭 至道苟在我 豈恨生東夷”.

기자는 그 중심에 있었다. 1353년(공민왕 2) 5월과 1379년(우왕 5) 7월의 시에서 확인되듯이 이색은 동방의 교화가 기자로부터 시작되어 홍범구주가 여전히 잘 시행되고 있다고 인식했다.⁴⁸⁾ 삼한의 제도가 쇠락하지 않은 것은 조선 殷太師의 교화 덕분이고,⁴⁹⁾ 기자의 遺業을 이은 덕분에 고려의 운수는 무궁할 것이라고 했다.⁵⁰⁾ 그런 고려는 箕封 또는 箕國·箕子國·箕域으로도 불렸고,⁵¹⁾ 기자는 사대충성의 상징이었다.⁵²⁾ 원과 명 등 중국과의 관계에서 기자는 고려를 지탱시켜주는 존재였다. 이런 측면에서 1379년 여름의 시에서는 평생토록 자랑할만한 일이 箕子廟를 중건한 일이었다고 했다.⁵³⁾

그런데 그의 기자인식은 기자불신론으로 대표된다. 20대 초반부터 확인된다. 1350년(충정왕 2) 봄에 원으로 유학가면서 榆林關에서 당 태종의 고구려 침략 사실을 회고한 가운데 “삼한은 기자가 신하 노릇을 하지 않은 곳으로 정벌하지 않아도 될법했는데” 오히려 무력을 동원해서 당태종이 낭패를 당했다고 했다.⁵⁴⁾ 후술할 1369년(공민왕 18)의 〈送使符寶使還詩序〉에서도 확인된다. 사실 기자불신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사대를 하는 가운데 고려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논리 중에 하나였다. 그것은 조선씨에서 비롯하는 고려의 자존의식이었다.

A-3. 우리 동방은 虞나 夏 때부터 있었으나 역사가 전해지지 않아 상고할 수가 없다. 周가 殷太師인 箕子를 봉해 중국과 통한 것은 대개 알 수 있는

48) 《목은시고》 권2, 〈終場〉; 권18, 〈十六日 順正王太后韓氏忌旦也 設齋于王輪寺 奉都評議使公緘 助以加供 吟成一首〉; 권33, 〈欲出〉; 《목은문고》 권7, 서, 〈贈金判事詩後序〉.

49) 《목은시고》 권28, 〈卽事〉.

50) 그는 해주를 고죽국으로 비정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것이 《삼국유사》에서의 기록(《삼국유사》 권1, 기이1, 고조선 “唐裴矩傳云 高麗本孤竹國[今海州] 周以封箕子爲朝鮮”)에 근거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1377년 12월 예전에 해주 모란산에 갔던 기억을 더듬어 읊은 시에서 확인된다. 모란산 서쪽에 여러 산과 큰 평야가 펼쳐져 있었는데, “세상에서 그곳이 수양산 고죽국 터라고 하지만 그 유래를 분변할 수 없다”고 했다. 《목은시고》 권6, 〈牧丹山〉(二) “長松陰下石爲臺 西望群山大野開 指點首陽孤竹處 有誰能辨所由來”. 그는 19세였던 1346년(충목왕 2) 모란산에서 독서한 바 있다. 같은 책 권17, 〈讀書處歌〉. 윤소종의 어머니인 최씨의 묘지명에서도 그 출신을 孤竹郡으로 서술했다. 《목은문고》 권19, 〈尹母崔夫人墓誌〉.

51) 《목은시고》 권2, 〈奉送奇集賢歸觀〉; 권19, 〈述懷〉; 권26, 〈海東〉; 권28, 〈代權四宰作〉(一).

52) 《목은시고》 권20, 〈迎賓館樓上 進獻使李評理以詩留別 宰樞次韻拜送〉 “箕封千里太平年 事大忠心誓永肩 莫憚馳驅山海遠 邇來將命屬儒先”.

53) 《목은시고》 권17, 〈自詠〉.

54) 《목은시고》 권2, 〈貞觀吟 榆林關作〉 “…三韓箕子不臣地 置之度外疑亦得 胡爲至動金玉武 銜枚自將臨東土 貔貅夜擁鶴野月 旌旗曉濕鷄林雨 謂是囊中一物耳 那知玄花落白羽…”.

일이다. 비록 기자를 봉하기는 했지만, 또 신하로 삼지 않았으니(周 武王이 기자로부터) 홍범구주를 받은 것을 중하게 여겨 道가 그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太師의 사당이 평양부에 있는데, 국가의 제사가 더욱 근심하여 태사의 교화가 우리 동방 사람들에게 깊게 미쳤기 때문이다. 어찌 식견이 얕은 雙翼나 王融으로부터 우리의 文風이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목은문고》 권8, 서, 〈賀竹溪安氏三子登科詩序〉).

A-4. 나는 말한다. 동방 교화의 근원은 대개 기자가 봉해진 때부터로 教條가 알기 쉽고 간단하고 번거로운 형식이나 지엽적인 일로 복잡하지 않아 후세에 이를 이어받아 지금까지도 순박한 풍속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었다(《목은문고》 권9, 서, 〈贈金敬叔秘書詩序〉).

자료 A-3은 1378년(우왕 4) 4월 지은 것으로, 안축의 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 것을 축하하는 시첩의 서문 중 일부이다. 여기에서는 조선씨 이래 고려까지의 문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 동방이 虞夏 때부터 있었으나 역사가 전해지지 않아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씨의 고조선 때를 뜻한다. 중국과의 통교는 기자가 조선에 봉해지면서부터였는데, 주 무왕이 기자에게 홍범구주를 받은 것을 중하게 여겨 중국에서 신하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료 A-4에서는 기자의 가르침은 번거롭거나 복잡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간단하고 알기 쉬어 현재의 순박한 풍속의 연원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조선씨에 대한 이해가 문화적인 측면으로 확대된 결과였다.⁵⁵⁾ 즉 그의 기자불신론은 그 주체가 조선에 있지 않고 주나라에서 기자를 존중의 차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자불신론은 사실상 기자에 대한 최고의 기록인 《사기》 〈송미자세가〉에서부터 확인되는 것인데,⁵⁶⁾ 이색이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삼한인수군자국’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씨 때부터 인수군자국이었던 고조선에 주 무왕에게 홍범구주를 가르쳐 준 기자가 봉해져 주나라에서 고조선을 신하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려는 그런 기자의 문풍을 이어받아 역시 중국으로부터 소중화로 불릴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살던 당대에 요순의 聲教가 넉넉해져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

55) 김성환, 2001, 「高麗後期の 檀君認識」 『단군학연구』 4, 65쪽.

56) 《사기》 권38, 세가8, 宋微子. 기자불신론은 중국의 명을 받지 않고自立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도전은 不臣論에서 기자를 제외하고 신왕조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의 단군부터 고려까지 역대국가 모두를 포함시켰다. 《삼봉집》 권7, 〈조선경국전〉 상, 국호. 명과의 사대관계에서 오직 기자만 주 무왕의 명을 받아 조선후로 책봉되었다고 했다. 이색과 차이가 있다. 국호 조선과 문명론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봉준, 2018, 「‘조선’ 국호로 본 여말선초의 역사인식과 이상국가론」 『역사와 현실』 108 참조.

있던 것도⁵⁷⁾ 이런 까닭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다.

3. 환웅신화와 환웅의 역사성

B-1. 태학에선 외람되이 가르침을 맡았고
省幕에선 외람되게 직무를 분장했네
명령은 天王으로부터 내려졌거니와
은혜는 국왕의 알아줌을 인연했다네
土官은 모두 雜職으로 임명했으나
조정의 반열은 이전과 달라졌다네
후일에 三韓史는
우뚱하여 무리에서 벗어나리라
(《목은시고》 권11, 〈有感〉 (一))

자료 B-1은 1378년 9월의 시이다. 여기서 확인되듯이 이색은 자국의 역사를 三韓史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려의 관칭 가운데 해동·동방·동국이 지리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데 비해 삼한은 역사적 관념을 담고 있다. 그에게서도 고려는 삼한 또는 三韓國으로 불렸고,⁵⁸⁾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三韓故國으로도⁵⁹⁾ 지칭되었다. 그에게 고려왕조의 역사가 國史로 지칭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삼한사는 그 이전인 삼한(삼국)과 상고의 역사를 아우를 수 있다. 고려 이전인 삼국의 역사를 다룬 三國史와도⁶⁰⁾ 다른 의미였다고 생각된다.

그는 또 처조부였던 권한공이⁶¹⁾ 원에서 태자 좌찬선에 임명되었던 일을

57) 《목은시고》 권16, 〈詣紫門 謝宣賜酒果〉. 1382년 11월 동짓날에는 청성군 韓脩가 팔죽과 꿀을 보내왔는데, 아들 副樞 李鍾德과 府尹 李鍾學도 연이어 보내오자 이를 仁壽國을 칭할만한 鄉風俗禮로 읊기도 했다. 같은 책 권33, 〈初八日 冬至也 韓清城送豆粥并蜜 副樞繼持至 府尹又送來〉.

58) 《목은시고》 권11, 〈聞海寇犯江郊〉 중 (二). 1065년(문종 19) 거란이 문종의 태자인 王勳(순종)과 숙종의 태자인 王俛(예종)를 三韓國公으로 봉한 사실은 참고할 수 있다. 《고려사》 권8, 문종 11년 3월 을유(9일); 권11, 숙종 5년 10월 임자(19일).

59) 《목은시고》 권23, 〈海上〉 중 (一) 및 권34, 〈卽事〉.

60) 고려 전기에 편찬된 《구삼국사》의 원래 서명은 《삼국사》로 이규보가 오세문의 삼백운시를 차운한 시에서 언급된 《삼국사》와 같은 사서일 것으로 파악된다. 《동국이상국전집》 권3, 高을시, 〈동명왕편〉 및 〈次韻吳東閣世文呈誥院諸學士三百韻詩〉. 《삼국사》는 《前三國史》 또는 《해동삼국사》로도 불렸다. 《삼국유사》 권5, 피은8, 信忠掛冠 및 《대각국사문집》. 또 인종 때 편찬된 김부식의 《삼국사기》 또한 《삼국사》로 불렸다. 《고려사》 권17, 인종 23년 12월 임술(22일); 권76, 지30, 백관1, 상서성; 권98, 열전11, 김부식.

中國史에 명성을 떨친 것으로 칭송한 바 있다.⁶²⁾ 고려가 중국과 다른 풍토를 가진 나라로서 역사도 별개이면서도 유교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동문의식을 동시에 읊은 것으로, 中國史는 삼한사에 대비되는 의미였다. 1127년(인종 5) 금이 송의 汴京을 침입했는데 고전을 면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보고를 듣고 정지상·김안 등이 금을 칠 것을 주장한 일이 있었다. 이때 그들은 “군사를 보내 송과 호응하여 큰 공을 이루어 주상의 功業을 중국사에 실어 만세에 전하도록 할 것”을 청한 바 있다.⁶³⁾ 여기서의 중국사 역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에게 삼한사는 중국사와 비교되는 것이자, 고려 상고사부터 고려왕조사까지를 포함한 통사의 개념이었다고 추측된다.

이 책은 기자의 고조선 계승을 이야기했다.⁶⁴⁾ 하지만 그에게서는 고조선 이후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물론 《목은시고》와 《목은문고》가 사서인 《삼국유사》 및 《제왕운기》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의 서술을 기대하는 것조차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그 단편조차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조선씨(고조선)와 기자로 그 계통을 단일화하려는 이색의 일정한 목적에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조선씨→기자→삼국→고려로 계승된 삼한사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바탕에는 ‘삼한인수군자국’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따라서 삼국 이전에 기자 이외에 조선씨를 계승한 나라는 염두에 둘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⁶⁵⁾

B-2. 우리 동방은 당요 무진년에 나라가 세워져 치란을 거듭하고 삼국으로 나뉘었다가 태조께서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비로소 통일하여 40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官制의 연혁은 더욱이 여러 차례 변천해 왔지만, 이 관직제도를 책으로 정리하려고 붓을 잡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목은문고》 권9, 서, 〈주관육익서〉)

자료 B-2는 金祉가 고려의 典章을 널리 구해 모아서 《주례》의 육전체

61) 장동익, 2011, 「權漢功의 生涯와 行蹟」 『대구사학』 104; 이진한, 2019, 「高麗末·朝鮮初 權漢功에 대한 世評의 變化」 『민족문화연구』 85.

62) 《목은시고》 권12, 〈醴泉君明忌 設齋水精寺〉.

63) 《고려사》 권96, 열전9, 김인존; 《고려사절요》 권9, 인종 5년 5월.

64) 《삼국유사》에서는 고조선[왕검조선]에서 기자를 아우르고 고조선이 북부여를 거쳐 고구려→고려로 계승되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제왕운기》에서는 고조선(전조선)이 북부여와 후조선(기자)로 이원화되어 계승되었는데, 전조선과 후조선 사이에는 164년의 공백이 있었음을 전했다. 《삼국유사》 권1, 〈고조선〉;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65) 이런 측면에서 신라 건국 이전 조선의 遺民이 산골에 나뉘어 6촌을 이루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은 참고할 수 있다.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시조 혁거세거서간.

계에 따라 편찬한 《주관육익》의 서문 중 일부이다. 고려 후기 사대부의 개혁방향과 관련을 가진 법전 성격을 지향했던 이 책의 서문에서 고조선부터 삼국을 거쳐 고려까지의 역사가 대략적으로나마 언급되고 있음에서 이채롭다. 《주관육익》이 육전 체제를 따랐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못하다. 그런데 그 편찬에 참고가 되었을 원의 《경세대전》 목록에는 帝號·帝系 등 황실 및 역사 관련 부분이 있고, 《주관육익》의 영향을 받았을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에는 국호·世系 등을 실은 총론 부분이 있다.⁶⁶⁾ 이를 감안할 때, 《주관육익》에서도 고려 역대의 국호와 왕실세계 등이 총론 형태로 실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朝鮮氏에서 시작하는 삼한의 출발로서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주관육익》에 실려 있었음을 의미한다. 삼한과 삼국의 계승 관계와 당 선종이 도착했다는 錢浦와 관련한 전승,⁶⁷⁾ 조선·숙신·변한의 영역으로 대표되는 고려의 건국 지향 등이 여기에 실려 있었음은 참고할 수 있다.⁶⁸⁾ 이색이 이 책의⁶⁹⁾ 서문에서 고조선부터 고려 건국 4백여년이 지난 당대까지의 역사를 개략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였다고 생각된다.

그 편찬시기에 대해서는 1371년(공민왕 20)부터 우왕대로 추정하는 견해와⁷⁰⁾ 1384년(우왕 10)~1388년 사이로 좁혀보는 견해가⁷¹⁾ 있다. 이 사이에는 그 찬술이 성리학을 수용한 사대부들이 고려사회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급진개혁과에 속한 사대부의 개혁적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존재한다. 편찬 시기조차 밝혀져 있지 못한 사정에서 비롯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김지의 저술과 관련해서 이색이 지은 다른 서문 등을 통해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

이색은 《주관육익》의 서문은 물론 김지가 역대 고금의 시문을 정리한 《選粹集》의 서문, 그리고 당시 縉紳들이 김지에게 증정한 시를 모은 시집의 서문인 〈贈金敬叔秘書詩序〉를 지은 바 있다. 이들은 모두 《목은문고》

66) 김인호, 2001, 「김지(金祉)의 『주관육익(周官六翼)』 편찬과 그 성격」 『역사와 현실』 40, 128~162쪽.

6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 개성부 상, 산천.

6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6, 경기.

69) 花村美樹, 1926, 「周官六翼の撰者と其の著者」 『京城帝大法學會論文集』 12-3·4合; 허흥식, 1981, 「金祉의 選粹集·周官六翼과 그 價値」 『奎章閣』 4.

70) 도현철, 1997, 「고려 末期의 禮 認識과 政治體制論-李穡과 鄭道傳 계열 士大夫의 思想 比較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97(도현철, 1999, 『高麗末 士大夫의 政治思想研究』 재수록).

71) 김인호, 앞의 글, 142~147쪽.

에서 확인되지만,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주관육익》의 서문은 이미 편찬을 마친 후 판각에 앞서 김지의 부탁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⁷²⁾ 이색은 《선수집》도 그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선수집》은 《주관육익》보다 후에 편찬되었다.⁷³⁾ 두 책은 이색에게 그의 대표적인 저술로 평가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김지의 학문과 관련한 두 편의 시에서 그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1378년 4월에 지은 〈寄贈金敬叔少監〉과 1380년 4월경에 지은 〈憶金秘書社〉가⁷⁴⁾ 그것이다.

〈기증김경숙소감〉에서 이색은 먼저 30여년의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평생 수많은 책과 씨름하며 전거를 찾는 책벌레 같은 김지의 일생을 칭찬했다. 그리고 시의 앞부분에서는 《주관육익》을, 뒷부분에서는 김태현(《해동문감》)과 최해(《동인지문》)를 《선수집》과 비교했다.⁷⁵⁾ 〈억김비서지〉에서도 조정의 법제를 다룬 《주관육익》은 금과옥조와 같고, 대각의 문장을 담은 《선수집》은 봉황과 기린에 비유될 정도로 뛰어나다고 했다. 그리고 두 곳 冒頭에서 자신이 두 책의 서문을 썼음을 밝혔다. 이로 미루어 이색이 《주관육익》과 《선수집》의 서문을 쓴 시기는 1380년 4월 이전이었음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증김경숙비서시서〉에서 밝혀져 있듯이⁷⁶⁾ 두 책은 그 이전에 목판으로 간행 준비를 마쳐졌다. 《주관육익》서문에서 이색의 조선씨에서 비롯하는 삼한사 인식은 51세 때인 1378년경의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주관육익》의 총론 부분에서 조선씨에서 고려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다면 김지 또한 그와 같은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기는 〈기증김경숙소감〉이 지어진 1378년 4월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고조선에서 출발하는 이색의 삼한사 인식은 이미 청년시절 때부터 확인된다. 27세 때인 1354년(공민왕 3) 2월 원의 과거에 급제하여 응봉한림문자승사랑을 제수하고 초여름에 고려로 돌아오는 길에 다음의 시를 지었다.⁷⁷⁾

B-3. 내 지금 길게 읊으며 요동 벌을 지나니

72) 《목은문고》 권9, 서, 〈周官六翼序〉.

73) 《목은문고》 권9, 서, 〈選粹集序〉.

74) 《목은시고》 권10, 〈寄贈金敬叔少監〉; 권22, 〈憶金秘書社〉.

75) 또 젊었을 때 원나라에서 경험했던 文風을 회고하는 시를 지어 김지에게 주기도 했다. 《목은시고》 권10, 〈又賦八句 贈祕書〉.

76) 《목은문고》 권9, 서, 〈贈金敬叔秘書詩序〉. 〈寄贈金敬叔少監〉은 〈贈金敬叔秘書詩序〉에도 실려 있는데, 그렇다면 〈贈金敬叔秘書詩序〉의 저술 시기는 1378년 4월경일 것으로 짐작된다.

77) 권근이 지은 행장에 의하면, 이색은 이때 천하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을 알았다고 한다. 《목은집》, 〈朝鮮牧隱先生李文靖公行狀〉.

구불구불 산길 몇 리나 뒤흔고
 갑자기 몇몇 집에선 닭과 개 소리 들려오고
 길에서 누구나고 묻는 이들 다 늙은 병사일세
 압록강 동쪽 언덕부턴 바로 우리 땅으로
 푸른 산 흰 물결이 서로 아양을 떠네
 東韓은 仁壽의 君子國으로
 당요 무진년에 시조가 건국하였네
 夏商의 시대엔 신하를 칭하지 않다가
 기자가 봉작된 이후 師道가 새로워졌네
 홍범구주가 정연하게 천하를 비추니
 당시에 친히 배운 이 누구였던가
 婆娑府 사람들은 말소리도 유별하여
 지척간의 風氣조차 胡越과 같으니
 아! 세상의 변천은 나날이 끝으로 치달아
 벼들꽃 바람 따라 어지러이 눈 날리듯하네
 (《목은시고》 권3, 〈婆娑府〉)

여기에서 이색의 고려 역사에 대한 몇 가지 단편적인 이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는 먼저 東韓을 仁壽의 君子國으로 전제했다. 여기서 동한은 동방의 삼한, 즉 고려를 의미했다. 동방에 군자국이 있다는 것은 《산해경》 등에서 중국 상고시대부터 전래된 전승으로 이후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그의 인수군자국의 이해는 “九夷에 군자가 살고 있고”, “어진 자는 오래 산다”는 《논어》 자한편과 옹야편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동이는 어질고, 仁者는 장수하며,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에 있다”는 《설문해자》와⁷⁸⁾ 여기에 “공자도 九夷에 살고 싶어 했다”는 《후한서》의⁷⁹⁾ 서술은 결정적이다.

다음은 고려의 출발인 고조선의 건국을 당요 무진년으로, 그 역년은 하나라와 상나라 때까지 지속되었지만 중국에는 신하를 칭하지 않았다고 이해했다. 그런데 기자가 동래하여 이를 계승하고 홍범구주를 이루어 중국과 통교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기자불신론의 유래를 주 무왕과 기자의 관계보다 그 이전인 조선씨 때부터로 소급했다. 그런 고려는 압록강을 경계로 세계제국인 원과 풍속과 언어가 다른 나라였다. 고려는 그 시조가 당요 무진년에 고조선을 건국한 인수의 군자국으로 기자의 교화도 그런 바

78) 《설문해자》, 羌, “夷俗仁 仁者壽 有君子不死之國”; 《오주연문장전산고》, 天地篇, 地理類, 邦國, 〈東土九夷六部辨證說〉 “許慎說文 惟東夷從大 大人也 夷俗仁 仁者壽 有君子不死之國 孔子曰 道不行 欲之九夷 乘桴浮于海 有以也”.

79) 《후한서》 권85, 열전75, 동이.

탕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천하였다는 것이 그가 이해한 삼한사의 출발이었다.⁸⁰⁾

《후한서》 등에서의 ‘東夷仁壽君子不死之國’은 이후 기자의 동래와 관련지어 보다 강화되었고, ‘인수군자국’은 기자의 교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해되었다. 그런데 이색은 이 같은 송과 원에서의 해석을 수용하지 않고, 《후한서》 등에서의 기록을 고조선까지 확대해서 이해했다. 당요 무진년에 시조가 건국한 동한은 원래 ‘인수군자국’으로 하나라와 상나라를 지내고 기자의 동래와 교화로 도리가 더욱 새로워졌다는 것이다. 동한의 교화는 기자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수의 군자국이었던 동이 지역에 당요 무진년에 고조선이 건국되면서 이루어졌고, 하나라와 상나라 때까지 지속하다가 기자의 동래와 교화로 더욱 진전이 있었으며, 그 풍속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라와 고려 전기에 확인되는 군자국 인식의⁸¹⁾ 범위를 확대한 것이자 고려 전중기 다원적 천하관의 기억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B-4. 군자가 사는데 무슨 누추함이 있으랴

증원에서 구이를 기대했다네

무진년에 나라 세운 지는 오래고

기자는 教法을 남겼네

벌벌의 대부분은 벼슬에 있고

문장은 시 읊기를 중하게 여기네

점친 햇수를 응당 넘으리니

聖祖께서 남긴 계책 있기 때문이라네

(《목은시고》 권17, 〈君子〉)

B-5. (二) 동방은 仁壽를 풍속으로 하는

군자가 사는 곳이라네

그 중간에 箕子國이 되어

홍범구주의 글이 정연하다네

80) 고려를 三韓古國이라고 했던 이곡도 고려의 토풍이 중국과 달라 秦漢 이래 신하로 삼지 않았고, 그런 토풍은 원과 사대관계를 맺기 이전의 고려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가정집》 권9, 〈送揭理問序〉 “高麗古三韓地 風氣言語不同華夏 而衣冠典禮自爲一法 秦漢以降未能臣之也…” ; 〈送鄭副令入朝序〉 “禹貢九州之外 聲教所暨 東漸于海 而三韓之名未著也 自周封商太師之後 稍通中國 其在隋唐 征之不克 及我王氏立國 歷宋遼金 或通或絕 彼亦無如之何 蓋將有待焉者…” 원의 보편문화와 고려의 토풍의 관계에서 나온 언급으로, 이색의 箕子不臣論에 배경이 되었다고 짐작된다.

81) 권덕영, 2011, 「신라 ‘君子國’ 이미지의 형성」 『한국사연구』 153.

처음에 주 무왕에게 전해져
 道가 성대히 행해져 여유가 있었네
 이를 품고 와 우리 백성에게 펼치니
 禮讓이 어찌 그리 의젓했던가
 우리 海邦은 절로 안정되었건만
 周秦은 폐허가 되어버렸네

(三) 요임금 무진년에
 동방에 비로소 임금이 있었으니
 그땐 하늘과 서로 통하여
 신비롭고 괴이한 일들이 三墳을 이뤘는데
 장수를 누려 천여년에 이르렀고
 오래도록 동해의 땅에 지속했다네
 질박하여 禮는 간략하게 행했고
 거칠어서 말은 꾸미지를 았았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난 지금은
 세상 변천이 뜬구름 같단 말인가.
 (《목은시고》 권23, 〈雜興〉 중 (二)·(三))

자료 B-4는 52세 때인 1379년(우왕 5) 6월 지은 시인 〈군자〉 이고,⁸²⁾ B-5는 1년 후인 1380년 5월 경 지은 〈잡흥〉이다. 여기에서도 인수군자국을 중심으로 한 고조선에서 비롯한 역사가 기자, 고려 태조를 거쳐 당시까지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읊었다. 그 내용을 자료 B-3과 비교할 때, 그가 50대에 이해하고 있던 삼한사 인식은 20대 후반의 그것과 변화가 거의 없었음이 확인된다. 그의 다른 시에서도 ‘天東仁壽君子國’, ‘동방군자국’, ‘동방인수군자국’, ‘삼한군자인수국’ 등이⁸³⁾ 확인되는데⁸⁴⁾ 고조선에서 비롯하는 역사인식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같은 배경에서 지었을 것임은 물론이다.⁸⁵⁾

82) 이색은 道를 끊임없이 준행하고 중단하지 않는 사람을 군자라고 했다. 《목은시고》 권6, 〈自詠〉 “[自詠三首 泝流而源 自悲其志也 千載之下 必有知音者矣 君子遵道而行 不能半途而廢 嗚呼 高山可不仰乎 景行可不行乎 聊以誌諸座右]”.

83) 《목은시고》 권5, 〈獨吟〉; 권12, 〈曲城侍中來訪西宅 穉承招 以病不赴 惘然有作〉; 권18, 〈賞蓮坐久 兒子輩取米城中設食 午後雨映東西山而不至坐上 甚可樂也 僮僕猶懼其或至也 邀入寺中 飲啖夜歸 代蓮花語作〉; 권21, 〈有感呈圓齋〉.

84) 개경 柳洞의 남대문 거리에서 음료수와 참외·과일을 차려 놓고 음악을 연주하며 행인들을 접대하는 풍속을 仁壽不死의 전통이 지금까지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나, 고려를 仁壽域이라 한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목은시고》 권18, 〈柳洞南大街 施漿水菓 侑以音樂 家童走報 歌以紀之〉; 권23, 〈捕魚行〉.

85) 한편 《목은시고》에서는 군자를 詩材로 한 시가 20여편 넘게 실려 있는데, 이들 또한

자료 B-2~5에서 이색은 삼한사의 시조가 당요 무진년에 건국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만, 그 나라의 이름이나 시조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시라는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건국을 했다면, 그 국명과 시조의 이름 정도가 언급되는 것은 당연했다. 그것도 고려의 앞선 왕조로서 첫머리에 위치하는 위상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의미상으로 고조선과 단군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그것과 직접 언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가 我邦을 지칭하는 용어로 고려 또는 삼한을 대신하여 조선을 사용한 사례가 드물게 확인된다. 예빈성 관리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朝鮮李禮賓’이라 하거나, “나라 동쪽의 산수가 조선의 으뜸”이라고⁸⁶⁾ 했다. 그렇지만 이 사례에서 고조선의 역사성을 확인하기는 희박하다.

B-6. 내가 살펴보건대 朝鮮氏가 나라를 세운 것은 실로 당요 무진년이다. 비록 대대로 중국과 통교했지만 중국에서 일찍이 신하로 대한 일이 없었다. 이에 무왕이 은나라 太師를 봉했으나 신하로 삼지 않았다. 그 후에 신라·백제·고구려가 슬발처럼 대치하여 자웅을 다투면서 秦·漢 이래로 혹 통교하고 혹 끊어지기도 하였다. 우리 시조께서 크고 원대한 材略으로 당나라 말에 일어나 마침내 삼국을 통일하고 병합하여 이 땅의 왕이 되었는데, 五代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500년에 이르렀다.
(《목은문고》 권9, 서, 〈送使符寶使還詩序〉).

이런 가운데 1369년(공민왕 18)에 지은 자료 B-6은 주목된다. 使符寶使는 1369년 4월 고려에 온 명나라 사신 符寶郎 使斯를 가리킨다. 그는 위구르인으로 공민왕이 즉위하기 전에 원에서부터 교류를 하다가 1358년 홍건적을 피해 고려에 귀화하여 고창백에 봉해진 설손(?~1360)의 동생이자 역시 명과의 관계에서 활동했던 설장수(1341~1399)의 숙부였다. 이때 그는 정월에 건국한 명 황제의 친서를 가지고 와서 그 사실을 정식으로 고려에 알리고, 황제의 명에 따라 공민왕을 위한 연회를 열었다.⁸⁷⁾

고려의 관료들은 돌아가는 설사를 위해 시를 지어 전송했는데,⁸⁸⁾ B-6은

‘동한인수군자국’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지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색은 역사를 통해 군자적 처세관을 교훈으로 얻어 이를 학문적 목표로 수렴하려고 했다고 한다. 마중락, 앞의 글.

86) 《목은시고》 권4, 〈次交州金按部賀鐵原府使鄭公入拜殿中詩韻〉; 권12, 〈述懷〉.

87) 《고려사》 권41, 공민왕 18년 4월 임진(28일) 및 5월 을미(2일).

88) 이인복·이승인·하을지의 시가 남아 있다. 《동문선》 권5, 오언고시, 〈送使符寶〉 및 《도은집》 권1, 시, 〈送使符寶還朝〉; 《동문선》 권10, 오언율시, 〈送使符寶還大明〉; 권

그 시첩의 서문이다. 여기에서 이색은 당요 무진년에 건국한 시조를 朝鮮氏로 밝혔다. 그는 고조선→기자→삼국→고려로 이어지는 역사계승인식을 드러냈는데, 이것은 20대 후반의 인식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오히려 기자 불신설의 기원을 통고는 했지만 중국에서 신하로 대하지 않았던 조선씨 시대부터였다는 사실을 다시 드러내고, 건국부터 당시까지 고려의 역년을 《주관육익》의 서문(자료 B-2)보다 백년 정도 소급하고 있다.⁸⁹⁾

이 같은 역사계승의식은 설사를 통해 명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듬해인 1370년 5월 설사는 다시 고려에 사신으로 왔다. 공민왕을 고려왕으로 책봉하는 조서를 전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때 그의 관직은 尙寶司丞이었다. 그 조서에서는 고려가 대대로 조선을 지켜 중국의 東藩이 되었음을 강조했다.⁹⁰⁾ 여기에서 명이 고려의 역사가 조선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이색을 비롯한 당시 고려 관료들이 고조선에서 비롯하는 역사계승인식을 드러낸 것이 일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또 삼사좌사 강사관을 명에 보내 책명과 새서를 내려준 것에 사례하는 표문에서 명나라가 처음 군사를 일으켰을 때 돕지 못한 것을 우왕이 제후들을 塗山에 모이게 하여 조공을 받을 때의 고사를 인용하며 사죄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⁹¹⁾ 이때 고려는 조선씨가 우왕의 도산조회에 아들인 부루를 보내 조회했다는 전승을⁹²⁾ 상기했을 것이다.⁹³⁾

그렇지만 이색은 고조선의 건국시조로서 단군을 특정하지 못했다. 물론 그에게서도 단군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평양의

21, 칠언절구, 〈送僕符寶還朝〉.

89) 공민왕의 반원 개혁 이후 고려는 왕업 4백년을 넘어 5백년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별고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90) 《고려사》 권24, 공민왕 19년 5월 갑인(26일) “咨爾高麗國王王顯 世守朝鮮 紹前王之令緒 恪遵華夏 爲東土之名藩 當四方之既平 嘗專使而往報 卽陳表貢 備悉忠誠 良由素習於文風 斯克謹修於臣職 允宜嘉尙 是用褒崇 今遣使齎印 仍封爾爲高麗王 凡儀制服用 許從本俗…”.

91) 《고려사》 권42, 공민왕 19년 7월 갑진(18일).

92) 《회헌실기》 권1, 시 〈侍從忠宣王如元感噏〉.

93) 이후 고려는 명과의 관계에서 고조선을 계승했음을 천명했다. 1374년(공민왕 23) 2월 상호군 周諶를 보내 황제가 訓戒를 보내준 것을 감사하는 표문에서 “고려는 朝鮮이 개국한 이래 반드시 중국에 귀부하여 대대로 봉작을 받고 항상 제후의 도리를 충실히 지켜 하늘을 두려워하듯 事大를 했다” (《고려사》 권44, 공민왕 23년 2월 갑자(28일))고 한데 대해 6월 명 고황제가 직접 쓴 조서에서 “(중국의) 동쪽 모퉁이에서 제후로 책봉되어 朝鮮을 시조로 하는 후손들이 五季 이후부터 이미 중국을 섬겨왔다”는 고려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는데서 확인된다(같은 책, 공민왕 23년 6월 임자(18일)). 여기에서 고려는 단군에서 비롯하는 역사계승의식을 드러냈고, 명은 기자를 중심으로 사대관계에서 고려와의 관계를 설정하려고 했을 것이다.

群雄 중 하나로서였다.

B-7. 물에 뜬 方舟의 모습은 헛된 것

驛馬가 먼지 날리며 일순간 당도했다네
두 가지 湯을 마련하기는 아주 쉽지만
일곱 자 시구 읊조리기는 어렵다네
성 머리 늙은 나무는 아직 해를 가려 주고
산 위 높은 누각은 멀리 바람 끌어 오네
듣자 하니 옛날 여기엔 朝天石이 있었고
檀君의 영결함은 群雄의 으뜸이었다고 하네
(《목은시고》 권3, 〈西京〉)

자료 B-7은 28세 때인 1355년(공민왕 4) 3월 사은사인 밀직사 윤지표의 사행에 서장관으로 뽑혀 원으로 가던 중에 서경을 시재로 읊은 것이다. 그는 서경의 군웅 중에 단군이 으뜸이었다고 했다. 자료 B-7은 단군전승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고조선 시조로서 단군이 직접 거론된 이후 다시 단군이 확인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이다. 약 70여년만이다. 1325년(충숙왕 12) 제작된 〈조연수묘지명〉에서 선인왕검이 확인되지만, 단군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이후 처음이다. 두 사서 편찬 이후 고조선과 관련해서 단군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자료 B-7은 이런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다른 하나는 현전하는 자료에서 평양의 신격으로 단군이 직접 언급된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라는 점이다. 〈서경〉에서 언급된 서경의 군웅이란 서경에서 모셔지고 있던 여러 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서경에서의 신으로는 평양신(서경신)·기자·목떡·橋淵·道知巖·동명왕·고려 태조 등이 확인된다. 이들은 대부분 국가제사에 포함되어 있었거나, 지방관 제사로 모셔지던 신격이었다. 이색이 언급한 서경의 군웅은 이 같은 신격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중에서 단군이 으뜸이었다는 것은 그 역사적 연혁이나 전통에서 단연 앞서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평양의 유래와 관련한 평양선인, 선왕왕검 등의 이해는 이런 측면에서 깊이 참고할 수 있다. 평양신은 고려 후기에 그 성격이 平壤君으로 변화하던 신격으로 단군을 지칭한다.⁹⁴⁾ 그 단편은 묘청의 팔

94) 김성환, 1998, 「高麗時代 平壤의 檀君傳承」 『문화사학』 10(김성환, 2002, 『高麗時代 檀君傳承과 認識』 재수록).

성당에 모셔진 구려평양선인,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평양의 유래로 설명한 선인왕검 등에서 보이며, 그 전승의 개략은 “평양의 출발인 선인왕검은 삼한에 앞서 있었는데 그 壽는 천여년을 넘었다”는 것이다.⁹⁵⁾ 즉 그의 단군에 대한 언급은 평양신(서경신) 또는 평양군으로 불리며 지역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던 신격에 단군이라는 구체적인 정체성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평양에 머물며, 실제로 고조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서술에서는 “시조가 당요 무진년에 건국했다”거나 그 실체를 ‘조선씨’로 얼버무려 한계를 가진 것이기도 했다. 그의 단군에 대한 이해는 지역적으로 평양에 머물고 있었다.

고조선의 건국시조로서 단군을 내세우지 못한 이색의 인식론은 고조선과 기자를 ‘삼한인수군자국’의 틀에서 포용하여 고조선은 물론 기자불신설까지로 확대된 모습과 비교해서 언뜻 이해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 B-5의 두 번째 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그는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한 三墳의 신화를 신비로우면서도 괴이한 것으로[秘怪]한 것으로 서술했다. ‘삼분’이란 본래 중국 상고의 삼황인 복희·신농·황제를 가리키는 것인데,⁹⁶⁾ 여기에서는 환인·환웅·단군으로 이어지는 단군신화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단군신화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이해는 “신비로우면서도 괴이한” 그 중간 어디쯤에 있었을 것이다.⁹⁷⁾ 이것은 내용에서 고조선의 신화와 역사를 이야기하면서도, 제목이 역사성을 띄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읊는다는 <잡흥>이라는 점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조선의 건국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도 그 실체에 대해서는 ‘조선씨’라거나, 아예 언급하지 못하고 당요 무진년에 건국한 사실만 수차례에 걸쳐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색이 알고 있었던 단군신화는 《제왕운기》에서 <본기>를 인용해서 전하던 5대 비부계의 신화가 아니라 계보에서는 《삼국유사》에서 <고기>를 통해 전하거나, 이승휴가 《제왕운기》의 原詩에서 이해하고 있던 3대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건국의 시조를 ‘조선씨’로 언급했는데, 그것은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비합리적인 신화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

95) <조연수묘지명> (1325년, <http://db.history.go.kr>)

96) 이색의 시에서 三墳五典을 읊은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확인된다. 《목은시고》 권 4, <扶桑吟>; 권7, <詠史有感>; 권19, <薦閔安仁改班>.

97) 그가 고려 태조를 삼한에 異人이 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건국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神異를 인정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은시고》 권16, <有感> “(二) 隋唐渺渺幾經春 五季三韓出異人 只賴貽謀能保國 運籌今日有良臣”.

이었다. 그가 이해하고 있던 고조선 건국신화는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하기도 어려운 것이었다. 그는 고조선이 당요 무진년에 건국되었음을 수차례에 걸쳐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이 《삼국유사》 찬자가 밝히고 있는 당요 원년인지,⁹⁸⁾ 당요 25년 무진년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⁹⁹⁾ 그렇지만 《제왕운기》에서 그 시기를 “요임금과 함께 무진년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거나,¹⁰⁰⁾ 이후 자료들에서 이를 따르고 있어¹⁰¹⁾ 그 역시 당요 즉위 무진년, 즉 요임금과 같은 시기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고 이해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또 고조선의 역년을 천여년으로 이해했는데, “삼한 이전부터 있었던 평양군자의 壽가 천년을 넘었다”는 〈조연수묘지명〉, 《제왕운기》에서의 理 1028년과 享國 1038년(1048년으로 보정)과 비교할 수 있다. 이 또한 권근(1352~1409)이 이해한 바와 같다. 그는 고조선의 도읍을 평양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삼국유사》 〈고기〉의 기록을 따르기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기록을 신뢰한 결과였을 것이다.

서경신(평양신)인 선인왕검이 단군을 지칭한 예는 최소한 현전하는 기록에서 그에게서 처음 확인된다. 또 평양에 도읍했던 군웅 중에서 단군이 처음이었다고 이해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단군을 평양에 국한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秘怪한 신화 때문이었다. 그가 삼한사의 시조로서 단군을 드러내지 못하고 조선씨라고 밝힌 데에는 이런 고민이 담겨 있었다. 그가 1358년 가을 摩利山塹城醮의 행향사로 醮祭를 설행하면서 그곳에서의 단군전승에 대해 언급하지 못한 것 역시 이런 까닭에서였다고 추측된다.¹⁰²⁾

이색의 고조선에 대한 인식은 《삼국유사》·《제왕운기》와 다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조선[왕검조선]에 기사를 아우른 고조선론도 아니고, 단군과 기사 사이 164년의 공백이 있는 전·후조선론도 아니었다. 조선씨의 조선이 기사로 이어진 것이었다.¹⁰³⁾ 자료 B-2에서의 언급은 이를 의

98) 《삼국유사》 권1, 기이1, 〈고조선〉 [왕검조선]. 《삼국유사》의 찬자는 〈고기〉에 따라 고조선 건국시기에 대해 당요 즉위 50년 경인년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분주에서 “당요 원년이 무진년임을 근거로 50년은 경인년이 아닌 정사년”이라고 하여 당요 즉위 50년 경인년설을 비판하고 있다.

99) 《동국통감》, 외기, 〈단군조선〉.

100)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전조선기〉.

101) 고조선 건국시기와 관련하여 권근의 〈始古開關東夷主〉에서는 당요 원년 무진년으로, 《세종실록지리지》와 《고려사》에서는 당요 무진년으로(《세종실록》 권154, 지리지, 평안도, 평양부 및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북계, 서경유수관 평양부)으로 서술하고 있다.

102) 김성환, 2021, 「고려 후기 마리산참성초摩利山塹城醮의 설행-공민왕 7년(1358) 가을 이색李穡의 사례를 중심으로」 『마니산 제사의 변천과 단군전승-塹城醮에서 摩尼山山川祭로-』 참조.

미한다. 《삼국유사》·《제왕운기》 수준의 건국신화는 秘怪한 것으로 여겨져 천여년의 역년을 가진 고조선의 건국신화는 다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했다. 하지만 명의 사신인 설사의 귀국과 함께 고려의 역대 시조로 언급된 당요 무진년의 조선씨는 명 조정에 공식적으로 보고되었을 것이고, 그 후속조치가 명과의 관계에서 언급되는 조선에 대한 언급이었을 것이다. 이때 조선의 주체에 대한 고려와 명의 접근이 달랐음은 물론이다.¹⁰⁴⁾

여기서 한 가지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다. 원간섭기 초기에 주목되었던 삼한사의 출발로서 단군의 고조선 건국에 대한 인식이 이후 확인되지 못하다가 이색에게서 다시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출현은 원에 급속하게 함몰되어가는 고려의 자존의식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재발견하는 과정에서의 결과였다. 특히 역사마저도 제국사 중 일부로 편입시키기 위해 고려왕조사 정리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원에 대응하기 위해 충선왕을 비롯한 고려의 역사가들은 힘겨운 역사논쟁을 전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천자와 제후, 황제와 부마라는 이중 체제로 원과 고려의 관계가 정리되면서 두 나라에서는 단군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징이었던 기자가 자연스럽게 대두되었고, 그것은 동문의식을 배경으로 하는 소중화의식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공민왕의 개혁정치가 실시되면서 그 지향은 태조의 유훈을 계승한 원 간섭기 이전으로의 회복으로 설정되면서 삼한 상고사의 연원으로 단군은 재주목되었으며,¹⁰⁵⁾ 기사 역시 不臣論과 소중화의 이중적인 의미로 수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1325년 〈조연수묘지명〉에 실린 평양에서의 모습을 제외하면, 충렬왕 이후 공민왕 초년 이전까지 전혀 확인되지 않다가 1354년 처음 확인되는 것이다. 그 배경 또한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고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공민왕의 개혁정치와 관련해서 추측한다고

103) 이런 측면에서 전조선에서 출발하는 별건곤과 기사에서 비롯된 소중화가 동시에 확인되는 이승휴의 이해는 참고된다. 《제왕운기》 권하, 동국군왕개국연대, 〈지리기〉. 원간섭기 초기에는 고려 전중기 이래의 다원적 천하관과 소중화론이 형세문화론의 화이관과 병립될 여지가 있었다. 이승휴의 소중화는 그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소중화론은 이후 형세문화론의 화이관을 중심으로 원과의 동문의식과 관련해서 이해되었다. 이색의 단군 인식이 이승휴의 그것을 계승했다는 견해도 있다. 도현철, 2005, 앞의 글, 46~48쪽.

104) 이와 같은 이색의 고조선과 단군에 대한 인식은 권근에게 계승되어 神人 단군의 단군조선 건국이라는 《응제시》 유형의 전승을 출현하게 했다고 추측된다.

105) 원간섭기 초기의 단군인식이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가 이색에게서 확인되는 것을 원명 교체기 명과의 외교관계가 성립되면서 나타난 변화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 최봉준, 2018, 앞의 글, 22~23쪽. 하지만 이색에게서 삼한사의 출발로서 조선씨는 20대 후반인 1350년대부터 확인된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색에 의해 삼한사의 출발로서 조선씨가 요임금 무진년에 건국한 사실은 재 주목되었다는 사실이다. 일연과 이승휴 등에게 神異 사실로 수용되었던 단군신화는 성리학을 수용했던 이색에게 더 이상 신이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괴력난신으로 치부할 수도 없었다. 그에게 단군신화는 그 중간쯤의 秘怪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단군신화에서 역사적 사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재구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당요 무진년에 조선씨가 건국하여 虞夏를 거쳐 역년은 천년에 이르렀고, 기자가 이를 이었다”는 정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씨 때부터 삼한은 인수군자국이어서 중국에 不臣했기 때문에 소중화를 이룬 기자였지만 이를 계승했다고 이해했다. 그에게 조선씨와 기자는 차이가 있었지만 원·명과 다른 삼한의 역사적 유래는 물론 자존의식의 상징이자 소중화의 아이콘이었다.

한편 그는 고려 말 혼돈의 정국에서 1389년 조민수와 함께 창왕을 옹립하고 이성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판문하부사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고려의 監國과 창왕의 入朝를 요청한 바 있다.¹⁰⁶⁾ 이때 서너 차례 고향제를 알현했는데, 삼한 상고사로서의 조선씨에 대한 언급이 이때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고향제는 그를 원을 섬긴 舊臣으로 여기고, 중국어 실력조차 나하추와 비교한 바 있다. 이것은 조선씨에서 출발하는 고려 상고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1396년(조선 태조 5) 표전문제로 명에 갔던 권근에게 지어준 명 태조고황제 어제시 중에서는 “지난날 왕씨의 基業이 단군이 가고 나서 얼마나 고쳐졌나”라는 언급이 있다.¹⁰⁷⁾ 명 황제의 이런 언급은 앞서 고려에 사신으로 왔던 설사나, 고향제를 직접 알현했던 이색을 통해 단군과 관련한 삼한사가 명에 전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 황제의 이해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이에는 고려·조선과 명의 관계를 기자를 통해 事大로 규정하려는 명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4. 맺음말

고려와 원의 관료로서 원·명과 고려·조선의 교체를 경험해야 했던 이색은

106) 《고려사》권115, 열전28, 이색.

107) 《양촌집》, 명 태조고황제 어제시, 賜朝鮮國秀才權近, 〈高麗古京〉“遷遺井邑市荒涼 莽蒼盈眸過客傷 園苑有花蜂釀蜜 殿臺無主兔爲鄉 行商枉道從新郭 坐賈移居慕舊坊 此是昔時王氏業 檀君逝久幾更張”.

평생 사관의 직을 겸하며 역사편찬의 최전선에 있었다. 이 글에서는 그의 고려왕조사에 대한 인식을 고려 건국 이전의 三韓史와 당대의 國史로 구분하고, 전자 중에서도 상고사인 고조선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고자 했다. 그는 조선씨→기자→삼국→고려로 이어지는 역사계승인식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은 20대 후반인 1350년대에 처음 확인되며 1380년대까지 지속되어 변화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의 삼한 상고사의 대략은 “당요 무진년에 조선씨가 조선을 건국하여 천여년을 지속한 후 기자가 이를 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3대 부계로 구성된 단군신화를 알고 있었지만, 신이와 괴력난설의 중간 지점인 秘怪로 이해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단군을 평양의 군웅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면서도 조선의 건국시조로 파악하는데 주저하였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의 고조선 건국신화와 다른 것으로, 그것은 “檀木 아래로 내려온 神人 단군을 國人이 추대하여 왕이 되었다”는 《응제시》 유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이해라고 파악된다. 고려 말부터 성리학을 수용한 신흥유신들 사이에서 단군전승의 합리적인 인식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기자에 대해서는 소중화와 不臣論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려를 箕國·箕子國으로도 불렀듯이 그는 기자를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대충성의 상징으로 이해했다. 그것은 고려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논리 중에 하나이자 조선씨에서 비롯하는 고려의 자존의식이었다. 불신론은 기자가 조선에 봉해지면서 중국과의 통교가 시작되었지만, 주 무왕이 기자에게 홍범구주를 받은 것을 중하게 여겨 중국에서 신하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고려의 질박한 토풍은 번거롭거나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고 알기 쉬운 기자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했다.

이색의 이 같은 인식은 조선씨에 대한 이해가 문화적인 측면으로 확대된 결과였는데, 그 중심에는 ‘삼한인수군자국’에 대한 관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즉 삼한은 조선씨 시대부터 인수군자국이었기 때문에 기자의 동래와 불신론, 소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들은 충돌이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며 상호 보완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색은 고려 전중기의 다원적 천하관이 원과의 관계 속에서 형세문화론의 화이관으로 변화한 시대를 살았다. 하지만 그는 고려 국왕이 해동천자였던 기억을 가지며 40대 후반부터는 두 명의 천자인 지정천자와 금릉천자를 사대해야 했다. 그런 가운데도 그 시대를 小康으로 인식했다. 조선씨를 역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으로도 이해한 이색에게는 화이론의 중심

이 원에서 명으로 전화되는 과정이 확인되지만, 아직 명분론적인 전통적인 화이관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에게 조선은 인수군자국이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보편문화의 사대관계에서 기자로 대표되는 소중화론과 독자적인 영역과 문화를 지칭하는 不臣論이 공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또 원명 교체기에 두 명의 천자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다원적 천하관의 기억 속에서 형세문화론의 화이관을 가지게 했다.

【參考文獻】

자료

《고려사》, 《고려사절요》
《사기》, 《후한서》, 《동국통감》, 《동문선》, 《삼국사기》,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왕운기》, 《가정집》, 《도은집》, 《東人之文四六》,
《동국이상국전집》, 《목은시고》, 《목은문고》, 《삼봉집》, 《오주연문장전산고》,
《즐고천백》, 《회헌실기》

단행본

김성환, 2021, 『마니산 제사의 변천과 단군전승-塹城醮에서 摩尼山山川祭로-』, 민속
원
도현철, 1999, 『高麗末 士大夫의 政治思想研究』, 일조각
도현철, 2011, 『목은 이색의 정치사상 연구』, 해안
이익주, 2013, 『이색의 삶과 생각』, 일조각
최봉준, 2013, 『14세기 고려 성리학자의 역사인식과 문명론』,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논문

권덕영, 2011, 「신라 ‘君子國’ 이미지의 형성」 『한국사연구』 153, 한국사연구회
今西龍, 1922, 「箕子朝鮮傳說考」 『支那學』 2-10-11, 弘文堂
김남일, 1994, 「이색(李穡)의 역사의식(歷史意識)」 『청계사학』 11, 청계사학회
김성환, 1998, 「高麗時代 平壤의 檀君傳承」 『문화사학』 10, 한국문화사학회
김성환, 2001, 「高麗後期の 檀君認識」 『단군학연구』 4, 단군학회
김인호, 2001, 「김지(金祉)의 『주관육익(周官六翼)』 편찬과 그 성격」 『역사와 현
실』 40, 한국역사연구회
盧明鎬, 1999,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 한국사연
구회
노대돈, 1982,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연구』 38, 한국사연구회
도현철, 1997, 「고려 末期의 禮 認識과 政治體制論-李穡과 鄭道傳 계열 士大夫의 思想
比較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97, 연세대 국학연구소
도현철, 2000, 「원명교체기 고려 사대부의 소중화 의식」 『역사와 현실』 37, 한국역사
연구회
도현철, 2005, 「李穡의 性理學的 歷史觀과 公羊春秋論」 『역사학보』 185, 역사학회

- 馬宗樂, 2006, 「牧隱 李穡의 生涯와 歷史意識」 『진단학보』 102, 진단학회
- 박대재, 2016, 「箕子朝鮮과 小中華」 『한국사학보』 65, 고려사학회
- 박종기, 2007, 「이색의 당대사(當代史) 인식과 인간관-묘지명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6, 한국역사연구회
- 이진한, 2019, 「高麗末·朝鮮初 權漢功에 대한 世評의 變化」 『민족문화연구』 8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장동익, 2011, 「權漢功의 生涯와 行蹟」 『대구사학』 104, 대구사학회
- 조원진, 2015, 「고려시대의 기자 인식」 『한국사학사학보』 32, 한국사학사학회
- 채웅석, 2003, 「원간섭기 성리학자들의 화이관과 국가관」 『역사와 현실』 49, 한국역사연구회
- 최봉준, 2015, 「여말선초 箕子 중심의 역사계승의식과 조선적 문명론」 『한국사학사학보』 31, 한국사학사학회
- 최봉준, 2018, 「‘조선’ 국호로 본 여말선초의 역사인식과 이상국가론」 『역사와 현실』 108, 한국역사연구회
- 秋明燁, 2005, 「高麗時期 ‘海東’ 인식과 海東天下」 『韓國史研究』 129, 한국사연구회
- 허홍식, 1981, 「金社의 選粹集·周官六翼과 그 價値」 『奎章閣』 4, 서울대도서관규장각
- 花村美樹, 1926, 「周官六翼の撰者と其の著者」 『京城帝大法學會論文集』 12-3·4合

<http://db.history.go.kr>

【국문초록】

이색의 삼한사 인식은 조선씨→기자→삼국→고려로 이어지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20대 후반인 1350년대에 처음 확인되며 1380년대까지 지속되어 변화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의 삼한 상고사의 대략은 “당요 무진년에 조선씨가 조선을 건국하여 천여년을 지속한 후 기자가 이를 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3대 부계로 구성된 단군신화를 알고 있었지만, 신이와 괴력난설의 중간 지점인 秘怪로 이해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단군을 평양의 군웅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면서도 조선의 건국시조로 파악하는데 주저하였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의 고조선 건국신화와 다른 것으로, 그것은 ”檀木 아래로 내려온 神人 단군을 国人이 추대하여 왕이 되었다“는 《응제시》 유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이해라고 파악된다. 고려 말부터 성리학을 수용한 신흥유신들 사이에서 단군전승의 합리적인 인식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기자에 대해서는 소중화와 不臣論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기자를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대충성의 상징으로 이해했다. 그것은 고려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논리 중에 하나이자 조선씨에서 비롯하는 고려의 자존의식이었다. 불신론은 기자가 조선에 봉해지면서 중국과의 통교가 시작되었지만, 주 무왕이 기자에게 홍범구주를 받은 것을 중하게 여겨 중국에서 신하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인식은 조선씨에 대한 이해가 문화적인 측면으로 확대된 결과였는데, 그 중심에는 ‘삼한 인수군자국’에 대한 관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색은 고려 전중기의 다원적 천하관이 원과의 관계 속에서 형세문화론의 화이관으로 변화한 시대를 살았다. 화이론의 중심이 원에서 명으로 전화되는 시대에서는 두명의 천자가 공존하여 천하관이 중첩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때 그는 조선씨를 역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으로도 이해했다. 그에게 조선은 인수군자국이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보편문화의 사대관계에서 기자로 대표되는 소중화론과 독자적인 영역과 문화를 지칭하는 不臣論이 공존할 수 있었다.

주제어: 형세문화론적 화이관, 다원적 천하관의 기억, 삼한인수군자국, 삼한사, 조선씨, 기자불신론

2 조선시대 단군 전승의 전개와 변용

오현수(한국학중앙연구원)

목 차

1. 머리말
2. 16세기 이전 단군전승 자료
3. 17세기 단군전승 자료
4. 18세기 단군전승 자료
5. 19세기 단군전승 자료
6. 맺음말

1. 서론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들은 단군 전승을 부정하며 고조선사의 역사 왜곡을 하였다. 『삼국유사』에 기재된 단군전승을 고려시대에 일연이 창작한 것이라고 하면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우리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신화학, 고고학, 문헌학 방면에서의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자 하여 많은 성과를 낸 바 있다.

그런데 일본인 학자들이 제시하는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단군조선을 최초로 언급한 『삼국유사』는 불교계의 승려가 날조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이율곡, 이익, 안정복, 한치윤, 윤정기 등이 단군전승을 불신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단군전승 부정론에 대한 그동안의 비판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전 근대 시기 지식인들의 단군관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본인 학자들의 주장처럼 과연 과거 지식인들이 단군전승을 불신하고 비판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인 학자들이 몇 개의 개별적인 사례를 가지고 지식인들 전체로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닌지, 또는 상기의 성리학자들의 몇몇 언급에 대해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닌지 검증해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단군을 언급한 고려~한말까지의 단군 관련 문헌 총 277권을 전수 조사하여 단군 관련 기술들을 추출하여 집대성하였다. 이렇게 1차로 이들 문헌으로부터 언급된 단군 관련 기술들을 모아보았는데, 이들로부터 구체적인 단군전승을 언급한 기록들만을 2차로 추출하여 보니, 총 61권이었다. 이를 통해 과거 지식인들의 단군전승관을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그렇게 하여 시대순으로 문헌을 나열하여 보면, 16세기 이전 자료가 『삼국유사』, 『제왕운기』, 『용비어천가』, 『고려사』, 김식습의 시, 『응제시주』,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필원잡기』, 『동국사략』, 『표제음주 동국사략』, 『동몽선습』, 『해동야언』, 『대동운분군옥』, 『금계일기』 으로 총 16권이었다. 그리고 17세기 자료로는 『쇄미록』, 『동사찬요』, 『지봉유설』, 『동사보유』, 『청학집』, 『회찬여사』, 『해동이적』, 『반계잡고』, 『해동잡록』, 『동국통감제강』, 『순오지』, 『동사절요』, 『기언』 으로 총 13권이었다. 또한 18세기 자료로는 『동국역대총목』, 『찬수동국사』, 『동사회강』, 『성호사설』, 『고사신서』, 『연려실기술』, 『동사촬요』, 『기년아람』, 『동사강목』, 『조야집요』, 『해동약부』, 『춘관통고』, 『동문광고』, 『오계일지집』, 『풍암집화』, 『천장관전서』 로 총 16권이었다. 19세기 이후 자료로는 『만기요람』, 『대동유사』, 『대동장고』, 『해동역사』, 『기년동사약』, 『총사』, 『동전고』, 『오주연문장전산고』, 『동사』, 『임하필기』, 『회헌선생실기』, 『동사절요』, 『대동역사』, 『증보문헌비고』, 『매천야록』, 『주연집』 으로 총 16권이었다.

이들 문헌들을 집성하여 시기별로, 문헌의 출간 연대순으로 단군 전승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자료의 분류 및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작업에 한정하였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분석 작업은 새로운 장에서 시도하고자 한다.

2. 16세기 이전 단군전승 자료

17세기 이전 자료로는 『삼국유사』, 『제왕운기』, 「용비어천가」, 『고려사』, 김식습의 시, 『응제시주』,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필원잡기』, 『동국사략』, 『표제음주 동국사략』, 『동몽선습』, 『해동야언』, 『대동운분군옥』, 『금계일기』가 있다.

『삼국유사』에는 「왕력」과 「기이」편에 단군조선과 관련한 서술이 있다. 전자에서는 동명왕은 檀君의 아들이라고 서술하였는데, ‘檀君’이라는 표현에서 遺事形으로 분류하기로 한다(동명 단군후손). 「기이」편에는 『魏書』를 인용하여 檀君王儉이 요임금 시기에 조선을 세우고, 아사달에 도움을 정하였다(조선 개국)고 기술하였으므로 魏書形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古記』를 인용하여 가장 일반적인 단군 전승을 서술하고 있어서 이것을 古記形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고기형의 하위 유형으로는 환웅하강, 웅녀신화-단군탄생,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의 전승이 있다. 그리고 일연은 주석을 달아서 桓因은 帝釋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또한 遺事形으로 분류하였다. 이하의 문헌은 이러한 방식으로 단군 전승을 대분류한 후, 이것을 내용에 따라 다시 소분류하였다. 단, 魏書形과 古記形의 ‘조선 개국’의 차이는 전자가 도읍지를 아사달로 기술한 반면, 후자는 평양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왕운기』에는 단군은 釋帝의 손자라고 하였는데, 이를 韻紀形(제석후손)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요임금 시기에 나라를 세워 은나라 무정 8년에 아사달산에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삼국유사』의 古記形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어서 『本紀』를 인용한 부분은 『고기』와 다른 단군 전승을 서술하고 있다. 고기형과 본기형의 단군 전승은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비슷하나, 『본기』에서는 환인을 上帝라고 하였다(환인상제설). 그리고 환웅천왕을 檀雄天王이라고 하였으며(환웅하강 신화의 변형), 단웅천왕이 孫女에게 약을 먹여 사람의 몸이 되게 하여 檀樹神과 혼인하게 하여 단군을 낳았다고 하였다(단웅손녀-단군탄생). 마지막으로 단군조선의 후예로 시라, 고례, 남북옥저, 동북 부여, 예와 맥을 들고 있다(단군의 후계).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단군 전승을 本紀形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다음 「용비어천가」에서는 『삼국유사』의 『위서』와 『고기』는 물론, 『제왕운기』의 『본기』와 또 전혀 다른 단군 전승을 기술하고 있다. 9장에서 神人이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왔는데, 나라 사람들이 임금으로 추대하였다고 한다(단군하강설). 이가 前朝鮮을 일으킨 檀君이라는 것이다(조선

개국). 그리고 16장에서는 神誌 仙人은 圖讖家로 檀君朝鮮 때의 사람이라고 서술하고 있다(神誌仙人). 이러한 새로운 내용의 단군 전승을 天歌形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고려사』에서는 「강화현」 조에서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彗星壇과 단군이 세 아들로 하여금 축성하게 하였다는 三郎城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彗星壇·三郎城). 그리고 「평양부」 조에서는 「용비어천가」 8장의 서술을 전재하고 있다(천가형의 단군하강과 고기형의 조선 개국). 『삼국사절요』에서도 「단군조선」 조에서 「용비어천가」 8장의 서술을 전재하고 있다(천가형의 단군하강과 고기형의 조선 개국). 그리고 고기형의 도읍지 이동과 아사달 산신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15세기 중후반 경에 생존하였던 김시습은 그의 시에서 “壽春은 貊國이다. 길개통은 彭吳에서 시작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어서 이를 그의 호를 따라 東峰形으로 분류하였다.

『응제시주』에서는 <新京地理>에서 천가형의 神誌仙人, <始古開闢東夷主>에서 천가형의 단군 하강, 고기형의 웅녀신화-단군탄생,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을 서술하고 있다. 다만, 지상에 하강한 환웅을 檀雄天王이라고 서술하여 이를 본기형의 변형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이 외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이야기들이 들어 있다. 먼저 <題鴨綠江>에서 부여왕 해부루는 단군의 아들이라고 서술하였다(解夫婁-檀君子)고, <시고 개벽동이주>에서 비서갑 하백의 딸과 아들을 낳으니, 이가 부루라고 하였으며(河伯女夫婁-母子設), 단군의 아들 부루가 동부여의 왕이라 하였고(檀君子-東夫餘王), 우왕이 塗山에서 제후들과 회맹할 때 단군은 부루를 파견했다고 기술하였는데, 이를 應製形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동국통감』에서는 기본적으로 천가형과 고기형을 기본 줄거리로 하고 있지만(단군하강설·조선개국·도읍지이동·아사달산신), 여기에 새로운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 「進東國通鑑箋」와 「단군조선」 조에서 각각 단군조선 시기에 백성들은 순박하였고 풍속은 질박하였다는 것(순박한 풍속)과 단군의 수명으로 기술된 1,048년은 단씨의 대대로 전하여 지나온 햇수라고 서술하였다(단씨역년설). 이를 通鑑形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필원잡기』에서는 권1에서 고기형의 조선개국과 아사달 산신, 통감형의 단씨역년설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동국사략』에는 「단군조선」 조에서 천가형의 단군하강, 고기형의 조선 개국과 도읍지 이동 및 아사달 산신, 그리고 통감형의 단씨역년설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해동야언』에서는 「전

조선」 조에서 『필원잡기』 을 인용하여 고기형의 조선 개국을 전하고 있다. 『금계일기』 에서는 「전조선」 조에서 조선의 개국을 짧막하게 기술하였다 (위서형 혹은 고기형).

『표제음주 동국사략』 에서는 「전조선」 조에서 사략형의 단군 성명, 고기형의 조선 개국과 도읍지 이동, 시주형의 하백녀-부루 모자, 사략형의 부루 도산 파견, 여사형의 참성단과 삼랑성, 통감형의 단씨역년설 등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고기형의 환웅하강 신화와 단군 탄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자는 환웅을 神人이라고 표현하였는데(환웅하강 신화의 변형), 이는 천가형에서 “神인이 하강했다”는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듯 하고, 단군탄생 과정이 축약된 채 기술되어 있다(단군탄생의 축약1형). 『동몽선습』 에서는 「총론」 에서 천가형의 단군하강설과 조선 개국의 이야기를 기술하였다.

『대동운분군옥』 에서는 여러 편목에서 단군 전승 관련 서술이 있다. 위서형 혹은 고기형의 조선 개국이 서술되어 있다. 고기형의 환웅하강 신화의 변형, 웅녀신화-단군탄생, 단군탄생의 축약형, 조선 개국의 축약형,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 동국형의 순박한 풍속, 천가형의 단군하강과 신지선인설, 여사형의 참성단과 삼랑성, 고기형의 환웅하강 신화, 대동형의 해부루-단군 부자 부정설과 九變局 神誌 찬술설, 사략형의 부루 도산 파견설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유사형의 도읍지 이동과 아사달 산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것은 九月山이 곧 아사달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표 1] 16세기 이전 문헌

번호	서명	편명	유형(大)	유형(小)形
① 1281	삼국유사 (일연)	왕력	遺事形	동명 단군후손
		기이	魏書形	조선 개국
			古記形	환웅하강
				웅녀신화-단군탄생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		
② 1287	제왕운기 (이승휴)	전조선기	遺事形	환인제석
			古記形	제석후손
			本紀形	조선 개국
				아사달 산신
				환인 상제
				환웅하강 신화의 변형(檀雄天王)
				단웅손녀-단군탄생
단군의 후계				

③ 1445	용비어천가 (정인지 등)	第9章	天歌形	단군하강설
			古記形	조선 개국
④ 1451	고려사 (정인지 등)	江華縣	麗史形	참성단 삼랑성
		平壤府	天歌形	단군하강설 조선 개국
⑤ 15C 중후반	(김시습) 1435~1493		東峰形	壽春은 貊國
⑥ 1462	웅제시주 (권람)	題鴨 緣江	應製形	解夫妻-檀君子
		始古開關東夷 主	天歌形	단군하강 신화
			本紀形의 변형	환웅하강-檀雄天王
			古記形	웅녀신화-단군탄생
				조선 개국
		應製形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	
				河伯女夫妻 모자설
		檀君子-東夫餘王		
		부루 塗山 파견설		
	新京 地理	天歌形	神誌仙人設	
⑦ 1476	三國史節要 (서거정)	檀君 朝鮮	天歌形	단군하강설
			古記形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			
⑧ 1485	東國通鑑 (서거정 외)	進東國通鑑箋	通鑑形	순막한 풍속
			天歌形	단군하강설
		檀君 朝鮮	古記形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		
		通鑑形	단씨역년설	
⑨ 1487	筆苑雜記 (서거정)	卷1	古記形	조선 개국
				아사달 산신
⑩ 16C 초	동국사략 (박상)	檀君 朝鮮	天歌形	단군하강설
			古記形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
		通鑑形	단씨역년설	

⑪ 16C 초	표계음주 동국사략 (유희령)	前朝鮮	사략형	단군의 성명
			古記形	환웅하강 신화의 변형
				단군탄생의 축약1형
				조선 개국
			詩註形	河伯女夫妻 모자설
			사략형	부루 塗山 파견설
			麗史形	삼성단
通鑑形	삼랑성			
⑫ 1543	동몽선습 (박세무)	總論	天歌形	단씨역년설
⑬ 16C 중후반	海東野言 (허봉)	太祖기	古記形	단군하강설
				조선 개국
⑭ 1589	대동운부군 옥 (권문해)	歷數相同	魏書形 (古記形)	조선 개국
		神雄	古記形	단군탄생-웅녀신화
			魏書形 (古記形)	조선 개국
		鴻荒鴻荒	魏書形 (古記形)	조선 개국
		檀箕	通鑑形	순박한 풍속
		檀君	天歌形	단군하강설
		槩城壇	麗史形	삼성단
		神檀	古記形	환웅하강 신화
		九月山	古記形	아사달 산신
		妙香山	天歌形	단군하강설
		熊虎嘯	古記形	환웅하강 신화
				단군탄생의 축약형
		三郎	麗史形	삼랑성
		唐莊京	古記形	도읍지 이동
		扶婁	대동형	解夫妻-檀君 부자설 부정
		神市	古記形	환웅하강 신화의 변형
		扶婁 朝禹	사략형	夫妻 塗山 파견설
		神誌	天歌形	神誌仙人設
		武丁 乙未	古記形	아사달 산신
		檀樹	天歌形	단군하강설
		檀君啓祚	魏書形 (古記形)	조선 개국
		艾蒜	古記形	웅녀신화-단군탄생의 축약형
		九變局	대동형	九變局 神誌 찬술설
白岳	遺事形	도읍지 이동(九月山)		
弓忽	遺事形	아사달 산신(九月山)		
阿斯達	遺事形	아사달 산신(九月山)		
熊虎同穴	古記形	웅녀신화-단군탄생		

3. 17세기 단군전승 자료

17세기 문헌으로는 『쇄미록』, 『동사찬요』, 『지봉유설』, 『동사보유』, 『청학집』, 『휘찬여사』, 『해동이적』, 『반계잡고』, 『해동잡록』, 『동국통감제강』, 『순오지』, 『동사절요』, 『기언』이 있다. 『쇄미록』의 「조전기」에는 천가형의 단군하강설이 기술되어 있다. 『동사찬요』의 「조전기」에는 천가형의 단군하강설, 고기형의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의 전승이 기술되어 있다. 이로 보아 천가형은 고기형 조선개국·도읍지 이동·아사달 산신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환웅하강을 단군[神人] 하강으로 바꾼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봉유설』의 「논어」에는 천가형의 조선 개국 전승이 서술되어 있다. 『동사보유』의 「단군조선」 조에는 천가형의 단군하강과 고기형의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 환웅하강, 웅녀신화-단군탄생, 조선 개국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청학집』에는 기존의 문헌에는 없는 전혀 새로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기존 고기형의 내용과 같은 것은 桓雄天王이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였다는 것과 단군이 阿斯山에 들어가서 신선이 된 것이다. 반면에 『記壽四間錄』을 인용하였는데, 단군을 비롯하여 옛 仙法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다. 桓因 真人, 明由, 廣成子로 올라가는 선법의 宗系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환인은 동방 仙派의 宗主이라고 하였다. 또한 단군은 九夷가 추대하여 天王이 되었고, 쭉으로 만든 정자와 버드나무로 만든 궁궐에서 머리를 땅고 소에 걸터앉아서 다스렸다고 한다. 이후 자손이 번성하여 21개의 나라가 檀氏였다고 한다. 후손으로 文朴氏가 있어서 阿斯山에 거하였는데, 단군의 도를 깨달았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단씨의 치세 동안 南夷의 환란이 있었다(南夷患亂)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러한 단군 전승을 청학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청학형의 단군 전승은 기존의 단군 전승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써, 불가 계통의 단군 전승이나 이를 축약하고 단군하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유가 계통의 단군 전승과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휘찬여사』의 「강화현」에는 여사형의 참성단과 삼랑성 전승이 있고, 「평양부」에는 천가형의 단군하강과 휘찬형의 조선 개국 전승이 있다. 휘찬형의 조선 개국에 있어서는 단군이 건국한 조선을 ‘前朝鮮’이라고 명명함으로써 기존의 조선 개국 이야기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해동이적』의

「단군」 조에는 사략형의 단군 성명, 청학형의 단군신선, 고기형의 환웅하강/단군탄생-웅녀신화/조선개국/도읍지이동/아사달산신에 관한 전승이 기술되어 있고, 「神誌」 조에는 천가형의 神誌仙人이 있다. 그리고 「신지」 조에 새로운 내용으로 신지가 <震朝九變圖局>을 편찬하였는데(震朝九變圖局神誌 편찬설), 道銑이 앞날을 내다보는 법은 신지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새로운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편의상 이것을 海東形으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반계잡고』의 「東史怪說辨」에는 고기형의 환웅 하강 전승에서 영향을 받아 기본적인 동일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환웅하강), 단지 환인을 天神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東史古記形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해동잡록』의 「단군조선」 조에는 사략형의 단군 성명, 고기형의 환웅하강-조선개국-도읍지이동-아사달 산신, 시주형의 하백녀부루 모자설, 응제형의 부루도산 파견, 여사형의 참성단과 삼랑성, 실기형의 후손 부여 건국 전승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내용이 조금 더해졌다. 단군이 사망 이후 後嗣는 기자가 책봉을 받아 오자 도움을 白嶽山[문화]으로 옮겼다(후손 이동설의 변형)는 것, 단군은 나중에 신이 되었고 단군 사당으로 아사달산에 임시로 건물을 세우고 御木을 봉안해두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추가가 되었으며(아사달 산신설의 변형), 기본적인 웅녀 신화에서 환웅을 神人으로 기술하고 있는데(단군탄생-웅녀신화의 변형), 이는 천가형에서 단군을 神人으로 보고 있다는 기술과 차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세가지 이야기를 雜錄形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동국통감제강』의 「은태사」 조에는 고기형의 조선 개국과 도읍지 이동 및 아사달 산신, 천가형의 단군하강, 그리고 통감형의 단씨역년설을 서술하고 있다. 『순오지』의 상권에는 위서형의 조선 개국, 시주형의 하백녀부루 모자설, 그리고 사략형의 부루도산 파견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고기형이 변형된 단군 전승을 수록하고 있다. 태박산에 하강한 존재를 天神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고기형의 변형인 순오형이라고 할 수 있다. 순오형에는 환웅하강 신화, 단군탄생-웅녀신화,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이라는 고기형의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웅을 천신이라고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고기형과 다르다.

『동사절요』의 「단군」 조에는 사략형의 단군 성명과 부루도산 파견설, 시주형의 하백녀부루-모자설과 檀君子-東夫餘王, 고기형의 아사달 산신, 여사형의 첨성단에 관한 전승이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천가형의 단군하강

설,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에 관한 전승이 있다. 이중 조선 개국과 도읍지 이동은 고기형에서 영향을 받은 듯하다. 그러므로 천가형은 고기형의 단군 전승에서 지상으로 하강한 존재를 환웅에서 神人[단군]으로 바꾼 형태로 되어 있다.

『기언』의 「단군세가」에서 시주형의 하백녀부루 모자설과 응제형의 부루 도산 파견을, 「關西誌」에서 실기형의 해부루 북부여 건국과 사략형의 해부루 도산 파견, 시주형의 하백녀부루 모자설을 수록하고 있다. 이 외에 새로운 내용들이 더해졌다. 「記言東事序」에서는 神市와 단군의 시대에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생겼다고 하거나(군신관계의 형성), 신시와 단군의 시대에는 질박하고 순후하였다고 하거나(순박한 풍속), 신시 때에 비로소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를 가르쳤다고 하거나(정치의 형성), 조선 개국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조선 개국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다. 그리고 「단군세가」와 「관서지」에서 九夷가 살던 시절에 桓因氏가 있었고, 환인이 신시를 낳았다고 하거나(환인과 신시), 신시가 처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가르쳤다고 하거나(신시의 교화), 단군의 탄생, 조선 개국의 내용, 도읍지 이동, 단군의 사망, 아사달 산신에 대한 전승이 들어있다. 이중에서 단군의 탄생,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고기형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나, 이 외 나머지는 『기언』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언형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표 2] 17세기 문헌

번호 (간행연도)	서명 (찬술가)	편명	유형(大)	유형(小)形
① 1601	鎖尾錄 (오희문)	朝鮮記	天歌形	檀君下降設
② 1614	東史纂要 (오운)	檀君朝鮮	天歌形	檀君下降設
			古記形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通鑑形	아사달 산신			
③ 1614	지봉유설 (이수광)	論語	天歌形	단씨역년설
④ 1620	東史補遺 (조정)	檀君朝鮮	天歌形	조선 개국
			古記形	檀君下降設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
환웅하강 신화				
				웅녀신화-단군탄생

⑤ 1648	청학집 (조여적)		청학형	四聞錄	
				단군의 네아들	
				南夷患亂	
⑥ 1640	彙纂麗史 (홍여하)	江華縣	麗史形	壘星壇	
				三郎城	
		平壤府	天歌形	檀君下降設	
⑦ 1666	해동이적 (홍만중)	檀君	사략형	조선 개국	
				청학형	단군의 성명
					단군신선설
			환웅하강 신화		
			古記形	웅녀신화-단군탄생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麗史形	아사달 산신		
			壘星壇		
三郎城					
神誌	天歌形	神誌仙人設			
	海東形	震朝九變圖局 神誌편찬설			
⑧ 17세기	礪溪雜藁 (유형원)	東史怪說辨	東史 古記形	환웅하강 신화	
⑨ 1670	海東雜錄 (권별)	檀君朝鮮	사략형	단군의 성명	
				古記形	환웅하강 신화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通鑑形	아사달 산신	
				檀氏 역년설	
				후손 이동설의 변형	
			雜錄形	웅녀신화-단군탄생의 변형	
				아사달 산신의 변형	
				河伯女夫妻 母子設	
詩註形	應製形	夫妻 塗山 과견설			
麗史形	壘星壇				
	三郎城				
室記形	후손 부여 건국설				
⑩ 1672	東國通鑑提綱 (홍여하)	殷太師	古記形	조선 개국	
			天歌形	檀君下降設	
			古記形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	
通鑑形	단씨역년설				
⑪ 1678	순오지 (홍만중)	上	魏書形	조선 개국	
				순오형 (古記形의 변형)	환웅하강 신화
					웅녀신화-단군탄생
			조선 개국		
			詩註形	도읍지 이동	
				사략형	아사달 산신
河伯女夫妻 母子設					
				扶婁 塗山과견	

㉔ 17C 추정	東史節要 이유장	檀君	사략형	단군의 성명
			天歌形	檀君下降設
			(古記形의 변형)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詩註形	河伯女夫妻-母子說
				檀君子-東夫餘王
			사략형	扶婁 塗山과건설
㉕ 1689	기언 (허목)	記言東事序	기언형	군신관계의 형성
				순박한 풍속
				정치의 형성
		檀君世家	기언형	조선의 개국
				환인과 신시
				신시의 교화
				조선의 개국
				도읍지 이동
				단군의 사망
				아사달 산신
		詩註形	河伯女夫妻	
		應製形	夫妻 塗山 과건설	
		關西誌	기언형	神市の 교화
				단군의 탄생
				조선의 개국
				조선의 개국
				도읍지 이동
아사달 입산				
단군의 사망				
室記形	해부루 북부여 건국			
사략형	해夫妻 塗山 과건			
詩註形	河伯女夫妻 母子說			

4. 18세기 단군전승 자료

18세기 문헌으로는 『동국력대총목』, 『찬수동국사』, 『동사회강』, 『성호사설』, 『고사신서』, 『연려실기술』, 『동사촬요』, 『기년아람』, 『동사강목』, 『조야집요』, 『해동악부』, 『춘관통고』, 『동문광고』, 『오계일지집』, 『풍암집화』, 『천장관전서』가 있다.

『동국역대총목』의 「단군조선」 조에는 고기형의 조선 개국과 도읍지 이동 및 아사달 산신, 사략형의 단군 성명과 부루 도산 파견, 총목형의 無君長時期와 천신하강 및 그리고 단군의 교화와 팽오재상 및 彭吳의 비, 천가형의 단군하강 전승이 있다. 『찬수동국사』의 「단군조선」 조에서는 천가형의 단군하강, 고기형의 조선 개국과 도읍지 이동 및 아사달 산신, 통감형의 단씨역년설을 전한다. 『동사회강』의 「범례상」에서는 통감형의 단씨

역년설, 「단군이하」에서는 천가형의 단군하강, 「신라시조」에서는 천가형의 단군하강과 고기형의 조선 개국[初朝鮮] 및 도읍지 이동 전승을 전한다. 『성호사설』의 「삼성사」 조에는 동사고기형의 환웅 하강과 웅녀신화-단군탄생, 그리고 시주형의 하백너부루 모자설과 檀君子-東夫餘王의 내용을 전한다. 『고사신서』의 「조선」 조에는 고기형의 조선 개국과 도읍지 이동의 내용을 전한다.

『연려실기술』의 「남도평양」 조에는 사략형의 단군 성명 전승이 기술되어 있고, 단군이 세운 조선을 前朝鮮으로 칭하고 있다(고기형의 변형). 「단군조선」 조에는 고기형의 환웅하강, 단군탄생-웅녀신화의 변형,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의 전승과 천가형의 단군하강, 총목형의 단군 교화, 여사형의 참성단과 삼랑성, 그리고 사략형의 부루 도산 파견, 시주형의 단군 부루 부자설과 檀君子-동부여왕 전승을 전한다. 이 외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남도평양」 조에서 단군조선을 前朝鮮이라고 칭하였고, 「단군조선」 조에서 부루가 箕子를 피해 부여 땅에 北扶餘를 세운 전승(후손 부여 건국설)을 전하는데, 이를 室記形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동사촬요』의 「조선」 조에는 천가형의 단군하강, 고기형의 조선 개국과 도읍지 이동 및 아사달 산신, 동사형의 단군의 성명, 총목형의 단군 교화와 팽오 재상설, 사략형의 부루 도산 파견 전승을 전한다. 『기년아람』 「단군조선」 조에는 사략형의 단군의 성명과 부루 도산 파견, 고기형의 환웅하강과, 웅녀신화-단군탄생 및 조선 개국과 도읍지 이동 및 아사달 산신, 시주형의 하백너부루 모자설과 檀君子-東夫餘王, 총목형의 奠山川과 단군의 교화의 내용을 전한다. 이 외에 할아버지는 환인인데 세속에서는 天神이라고 하고, 아버지는 환웅인데 세속에서는 神市라고 부른다는 내용을 전한다(단군의 가계). 이를 기년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동사강목』의 「조선기자원년마한」 조에는 천가형의 단군하강, 운기형의 조선 개국, 총목형의 조선 교화, 사략형의 부루 도산 파견, 통감형의 단씨역년설, 고기형의 도읍지 이동의 전승을 싣고 있다. 그 다음 「檀君元年戊辰當唐堯二十五年」 조에는 위서형의 조선 개국, 「왕검」 조에는 풍암형의 단군 명칭 유래, 「敎民編髮蓋首」 조에는 총목형의 단군 교화, 「단군조선」 조에는 총목형의 檀君檀氏說과 해모수 단군후손, 「檀君薨」 조에는 고기형의 조선 개국과 아사달 산신, 「檀君元年戊辰當唐堯二十五年」 조에는 총목형의 단군 강역과 북부여-단군후손 및 부여-단군후손, 그리고 여사형의 참성단과 전등산, 「太伯山考」 조에는 총목형의 단군 명칭 유래, 「白岳

考」 조에는 고기형의 도읍지 이동과 천가형의 신지선인에 대한 전승을 전한다. 그리고 「朝鮮箕子元年馬韓」 조에는 단군의 후손이 북쪽으로 옮겨 부여국이라 하고, 解로 성을 삼았다고 한다(해모수 단군후손). 처음에 그 왕 해모수가 스스로 천제의 아들이라 일컬었고, 또 단군이라 불렀으며, 아들 부루를 낳았다(단군 후손 전승)고 하는 전승을 실었는데, 이를 강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야집요』의 「東國沿革總叙」 조에는 사략형의 단군 성명, 시주형의 하백녀부루 모자, 사략형의 부루 도산 파견을 전한다. 이 외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고기형의 환웅하강이 天神 桓因의 하강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나머지 웅녀신화-단군탄생, 조선 개국, 아사달 산신의 내용은 같다. 이러한 고기형의 변형을 조야형으로 부르려고 한다. 『해동악부』의 「환웅사」 조에는 시주형의 하백녀부루-모자설과 사략형의 부루 도산 파견 전승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단군 전승이 기본적으로 고기형을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일부 바뀐 부분들이 있다. 고기형에서의 환인을 桓國의 임금으로 기술하였고(환웅하강 신화), 환웅 하강, 웅녀신화-단군탄생, 조선 개국, 아사달 산신 등은 동일하다. 이러한 단군 전승을 樂府形(古記變形)으로 부르려고 한다. 이 외에 檀王 儉이 王儉城을 축성했다(왕검성 축성)고 전하였는데, 이는 악부형이라고 하겠다.

『춘관통고』의 「삼성사」 조에는 고기형의 조선 개국과 아사달 산신의 내용을 전한다. 「단군묘」 조에는 사략형의 단군 성명, 고기형의 조선 개국과 아사달 산신의 전승을 전한다. 그런데 「삼성사」 조에서 단군 전승의 변형으로 오랜 옛날 초창기의 사람들은 桓을 檀으로 고쳐 불렀다는 것(桓과 檀)과 천제하강의 전승을 전하는데, 이것을 春官形으로 부를 수 있다. 『동문광고』의 「단군조선」 조에는 응제형의 부루 도산 파견과 부루 解氏說을 전한다. 「동이고」 조에는 고기형의 도읍지 이동과 아사달 산신의 전승을 전한다. 이 외에 환웅하강, 웅녀신화-단군탄생,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의 전승을 전하는데, 신단수 아래로 하강한 존재를 ‘어떤 사람’으로 하여 특칭하지 않았고, 웅녀가 아닌 암컷 곰과 교배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이를 고기형의 변형인 동문형으로 보고자 한다.

『오계일지집』의 「檀君來歷實記」에는 위서형의 조선 개국 전승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고기형 변형이 된 형태의 전승이 있다. 기존의 고기형인 환웅하강, 단군탄생-웅녀신화,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의 전승 외에, 제석 환인의 거주지는 도리천궁이라는 전승(환인의 거주지)을 기술하

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계일지집』만의 독특한 전승도 전한다. 「檀君世系詳探記」에서 단군이 둘째 아들 扶婁虞를 醫巫君에 봉하였다는 내용(扶婁虞-醫巫君)과 단군의 후계로 豹, 桓虎 등 26명의 이름(단군의 후계)을 전한다. 그리고 「단군내력실기」에서 구월산 八臺 산봉우리에 비서갑의 여인이 와서 壇帝가 그녀를 아내로 삼아서 扶蘇·扶婁虞·扶餘를 낳았다는 것(비서갑 하백녀 전승), 아사달에 도읍하고 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위서형 조선 개국), 태자 부루를 왕으로 세웠고(부루 후계설), 단군은 아사달산에 들어가 도를 닦아서 金獐에 와서 신선으로 화하여 떠났다(아사달 산신)는 전승을 전하는데, 이러한 형태를 梧溪形이라고 할 수 있다.

『풍암집화』에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전승 유형을 전한다. 九夷가 있던 초기에 환인씨가 있어서 神市를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그에게 귀의하였다(神市桓因創始)고 함으로써 신시의 주체를 환웅이 아닌 환인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太白山 神檀樹 아래로 내려온 것은 단군이 아니고, 신단수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檀君이라고 칭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檀木 아래에서 단군이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환인씨가 신단수에 내려와 檀樹 아래에 머물렀기에 단군의 명칭이 생긴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전승 내용을 楓巖形이라고 이름붙이고자 한다.

『천장관전서』의 「단군조선」 조에는 고기형의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을 전한다. 시주형의 하백녀부루 모자설과 檀君子-北夫餘王을 전한다. 「북부여국」 조에서는 응제형의 해부루-북부여 건국을, 「정족산성」 조에서는 여사형의 삼랑성을 전한다. 이 외에 「단군조선」 조에는 고기형이 변형된 전승을 전한다. 기본 내용이 고기형과 같으나, 桓因을 天神으로 보고 환웅을 내려 보내거나(환웅하강 신화의 변형), 꿈이 영험한 약을 먹고 女神이 된다는 형식(단군탄생-웅녀신화의 변형)으로 되어 있다. 이 외에 새로운 전승 유형으로 동부여의 왕 帶素를 단군의 증손으로 보았다[대소 단군 증손]. 이러한 전승 유형을 천장형이라 부를 수 있다.

[표 3] 18세기 문헌

번호	서명	편명	유형(大)	유형(小)
① 1705	東國歷代總目 (洪萬宗)	檀君朝鮮	古記形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사략형	아사달 산신
				단군의 성명
			總目形	彭吳의 비
			天歌形	無君長時期
			總目形	단군하강
				친신하강
사략형	단군의 교화			
② 1708	纂修東國史 (李弘基)	檀君朝鮮	天歌形	평오제상설
				扶婁 塗山 과견
			古紀形	檀君下降
				조선 개국
③ 1708	東史會綱	凡例上	通鑑形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
		檀君以下	天歌形	단씨역년
				檀君下降
新羅始祖	天歌形	단군하강		
		古記形	조선 개국(初朝鮮)	
④ 1760	星湖僊說	三聖祠	東史古記形	도읍지 이동
				환웅 하강
			詩註形	웅녀신화-단군탄생
				河伯女夫妻 母子設
⑤ 1771	攷事新書	朝鮮	古記形	檀君子-東夫餘王
				조선 개국
⑥ 1776 이전	燃藜室記述 (李肯翊)	南道平壤	燃藜形 (古記形の 변형)	조선 개국
				단군의 성명
		檀君朝鮮	天歌形	檀君下降設
				古記形
			總目形	단군의 교화
				麗史形
			詩註形	三郎城
				檀君夫妻 父子
			사략형	檀君子-東夫餘王
				扶婁 塗山 과건설
			室記形	북부여 건국
			古記形	환웅하강 신화
		단군탄생-웅녀신화의 변형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

⑦ 철종대	東史撮要 (미상)	朝鮮	天歌形	단군하강 신화
			古記形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	
			東史形	단군의 성명
			總目形	단군의 교화
總目形	彭吳 재상설			
⑧ 1778	紀年兒覽 (李萬運)	檀君朝鮮	사략형	夫婁 塗山 과건설
			사략형	단군의 성명
			紀年形	단군의 가계
			古記形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
			詩註形	河伯女夫妻 母子設
			總目形	奠山川
			總目形	단군의 교화
			사략형	扶婁 塗山 과건설
詩註形	檀君子-東夫餘王			
古記形	환웅하강 신화			
	웅녀신화-단군탄생			
⑨ 1778	東史綱目 (安鼎福)	朝鮮箕子元 年 馬韓	天歌形	檀君下降設
			운기형	조선 개국
			總目形	조선의 교화
			사략형	扶婁塗山 과건설
			通鑑形	단씨역년설
			古記形	도읍지 이동
			總目形	조선의 교화
		綱目形	단군의 후손	
		檀君元年	魏書形	조선 개국
		王儉	楓巖形	단군 명칭의 유래
		敎民編髮盖 首	總目形	단군의 교화
		夫婁當有二 人	總目形	檀君檀氏說
				해모수 단군후손
		檀君薨	古記形	조선 개국
				아사달 산신
		檀君塚	古記形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
		檀君疆域考	總目形	단군의 강역
				북부여-단군후손설
				부여-단군후손설
塹星壇				
		傳燈山		
太伯山考	總目形	단군 명칭의 유래		
白岳考	古記形	도읍지 이동		
		天歌形	神誌仙人設	

⑩ 1784 년 경	조야집요 (미상)	東國沿革總 叙	사략형	단군의 성명	
			조야형 -고기형의 변형	桓因하강 신화	
				웅녀신화-단군탄생	
				조선 개국	
			詩註形	河伯女夫妻 母子設	
사략형	扶婁 塗山 과건설				
⑪ 1787 년 경	海東樂府 (李福休)	환웅사	樂府形 (古記變形)	환웅하강 신화	
				웅녀신화-단군탄생	
				조선 개국	
			樂府形	아사달 산신	
			詩註形	왕검성 축성	
사략형	河伯女夫妻-母子設 扶婁塗山 과건설				
⑫ 1788 년 경	春官通考 (유의양)	三聖祠	古記形	조선 개국	
			春官形	아사달 산신	
		檀君墓	사략형	桓과 檀	
			古記形	천제하강 신화	
⑬ 1754 년 이후	同文廣考 (미상)	檀君朝鮮	同文形 古記形의 변형2	단군의 성명	
				조선 개국	
				아사달 산신	
		東夷考	應製形	환웅하강 신화	
				웅녀신화-단군탄생	
				조선 개국	
⑭ 18C 편찬 추정	梧溪日誌集 (李宜白)	檀君世系詳 探記	梧溪形	도읍지 이동	
		檀君來歷實 記	梧溪形	아사달 산신	
				魏書形	아사달 산신
				古記形의 변형3	환웅하강 신화
			웅녀신화-단군탄생		
			檀君史記十 疑	楓巖形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			
⑮ 18세 기 증반경	楓巖輯話 (유광익)	檀君史記十 疑	楓巖形	아사달 산신	
				단군 명칭의 유래	
				神市桓因創始	
				단군탄생	
				조선 개국	

⑩ 1795	천장관전서 (이덕무)	檀君朝鮮	古記形	조선의 개국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
			천장형	대소 단군 증손
			古記形의 변형	환웅하강 신화
				단군탄생-웅녀신화
		詩註形	河伯女夫妻 母子設	
		詩註形의 변형	檀君子-北夫餘王	
北扶餘國	應製形	解夫妻-北扶餘 건국		
鼎足山城	麗史形	三郎城		

5. 19세기 이후 단군전승 자료

19세기 이후 자료로는 『만기요람』, 『대동유사』, 『대동장고』, 『해동역사』, 『기년동사약』, 『총사』, 『동전고』, 『오주연문장전산고』, 『동사』, 『임하필기』, 『회헌선생실기』, 『동사절요』, 『대동역사』, 『증보문헌비고』, 『매천야록』, 『주연집』 으로 총 16권이다.

『만기요람』의 「정족산성」 조에는 여사형의 삼랑성 전승을 담고 있다. 『대동유사』의 「단군조선」 조에는 천가형의 단군하강과 도읍지 이동, 고기형의 단군탄생-웅녀신화와 아사달 산신, 초목형의 단군 교화와 팽오제상설, 실기형의 후손 부여 건국, 사략형의 부루 도산 파견 전승을 담고 있다. 『대동장고』의 「조선국」 조에는 고기형의 단군 이름과 조선 개국 및 도읍지 이동 전승이 있고, 시주형의 하백녀 부루 모자설, 총목형의 단군 교화, 사략형의 부루 도산 파견의 전승이 있다. 그리고 천가형의 변형격으로 고기형의 환웅 하강 전승에서 환웅을 神雄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과 곰이 썩과 마늘을 먹었던 고기형과는 달리 약을 먹고 여인이 되었다고 하였고(신웅하강), 고기형의 축약으로 단군이 神이 되었다(아사달 산신)고만 전한다. 이외에 새로운 전승이 추가되었는데, 檀君의 땅이 구체적으로 평안도와 그 이서와 요하 이동의 땅, 함경도 및 그 이북의 땅, 황해도, 강원도, 경기 한강 이북의 땅, 충청이라고 하였다(단군의 영역). 그리고 단군의 아버지는 桓雄이고 神市이고, 할아버지는 桓因이고 天神이라고 하였다(단군의 先系). 한편 「부여」 조에는 실기형의 후손 부여 건국설과 부여 단군 후손설을 전한다. 이를 掌攷形으로 부르고자 한다.

『해동역사』의 「단군조선」 조에는 고기형의 단군탄생-웅녀신화와 아사달 산신과, 고기형의 변형으로 조선 개국, 환웅하강을 전하는데, 기존의 고

기형과 다른 점은 각각 단군을 檀君氏로 표기하거나, 환인을 天神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외에 새로운 전승이 있는데, 박달나무 아래에서 낳았으므로 檀君이라고 한 것(단군의 유래)과 단군의 이름은 儉인데, 나면서부터 신명하여 九夷가 임금으로 옹립하였다(구이추대설)는 전승이 있는데, 이를 해동형이라고 하겠다.

『기년동사약』의 「단군조선기 무진」 조에는 천가형의 조선 개국과 단군 하강, 총목형의 단군 강역과 실기형의 후손 부여 건국, 여사형의 참성단과 삼랑성, 천가형의 조선 개국, 총목형의 단군 교화에 관한 전승이 있다. 그리고 「단군조선기 기묘」 조에는 총목형의 팽오재상과 팽오의 비, 동봉형의 壽春貊國說에 관한 전승이 있다. 「단군조선기 병자」 조에는 사략형의 부루도산 파견과 동사형의 단군 후계에 관한 전승이 있다. 「단군조선기 을미」 조에는 사략형의 부루도산 파견과 동사형의 단군 후계에 관한 전승이 있다.

『총사』의 「東史辨疑 檀君」 조에는 단군의 교화와 팽오재상설이, 「동사변의 단군국호」 조에는 고기형의 조선 개국 전승이 있다. 이 외에, 여러 편목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전승 내용이 추가되었다. 먼저 「동사변의 단군」 조에서 동방의 처음에 군장이 없어서 나라 사람들이 단군을 임금으로 추대하였다(단군 추대1)는 전승이 있는데, 이것은 천가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듯하다. 천가형에서 단군이 하강하던 모습이 생략된 형태이다. 다음 동쪽 지역에 사람과 사물이 이미 많이 번성하여 나라 안에 흩어져 살았다. 소박하고 수수하였으며, 짐승처럼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박달나무 아래의 신을 보고 모두 임금으로 받들었다고 하였다(단군추대2). 그리고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온 까닭으로 檀이라 하였고, 君長으로 삼아서 君이라 했으며, 단군은 개인이 아닌 임금에 대한 칭호였다고 한다(단군의 의미). 그리고 단군 후세의 자손이 나라를 세워 왕을 칭하였으니, 부여와 예맥(부여예맥 단군후손설)이라고 하였다. 또한 「東史辨疑 檀君降生」 조에는 天神 桓因이 庶子 熊에게 태백산에 내려가게 하여 神으로써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神熊이 기이함이 있어서 아들을 박달나무 아래에서 낳으니, 단군이라 한다고 하였고(神熊 하강), 신성한 사람은 예정된 날짜에 응하여 태어나므로 神人이라고 이르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다(神人 하강의 의미)라고 하였다. 또한 「동사변의 단군강생」 조에는 단군의 아버지는 神市天王이고, 어머니는 태백산의 곰이다(단군의 부모)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사변의 단군국호」 조에는 단군은 동방에서 먼저 나와 한 지역을 통일하였다, 하늘이 만들

어졌으나, 어둑어둑하였고, 사람의 문화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고을을 다스리고 살 곳을 바로잡았다고 하였고(조선 개국), 조선의 칭호는 후세의 명칭으로 檀이 나라 이름이고 후세에 임금을 계승한 자들이 모두 단군이라 불렀다(檀國과 檀君)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전승 형태를 총사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동전고』의 「단군조선」 조에는 사략형의 단군 성명, 천가형의 단군 하강, 고기형의 아사달 산신, 총목형의 단군 교화, 여사형의 참성단과 삼랑성, 사략형의 부루 도산 파견, 실기형의 후손 부여 건국 전승을 담고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의 「東土九夷六部辨證說」 조에는 고기형이 변형된 형태의 전승이 있다. 天神 桓因이 있어 웅(神市)에게 명하여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가게 했다는 것(환웅 하강), 곰이 신령한 약을 먹고 여신으로 변하고 웅과 더불어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것(단군탄생-웅녀신화), 단군이 조선을 세웠다는 것(조선 개국)이다. 그리고 「治道辨證說」 조에 총목형의 팽오 재상과 팽오의 비에 관한 전승이 있고, 김시습이 말한 壽春貊國說을 담고 있다. 「東國婦女首飾辨證說」 조와 「笠制辨證說」 조에는 단군의 교화에 관한 전승이 있다. 「檀箕爲國號辨證說」 조에는 단군이 아닌 단군의 후손이 唐藏京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것(도읍지 이동)과 檀은 나라이름이라고 하였다(檀國說).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전승을 오주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동사』의 「단군조선」 조에는 천가형의 단군하강, 위서형의 조선 개국과 고기형의 도읍지 이동의 전승을 담고 있다.

『임하필기』의 권11의 「단군조근」 조에는 사략형의 부루 도산 파견 전승, 「전대시조묘」 조에는 기년형의 단군 가계에 대한 전승, 권36의 「단군조선」 조에는 고기형의 조선개국·도읍지이동·아사달산신 전승, 총목형의 단군 교화와 팽오재상 전승, 사략형의 부루 도산 파견과 단군의 성명에 대한 전승이 있다. 이 외에 새로운 전승 유형이 보인다. 먼저 권11의 「단군조선」 조와 권36의 「단군조선」 조에는 천신 桓因의 아들 桓雄이 太白山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와 이름을 儉(堯임금 戊辰년)이라 한 것이라 했는데, 이는 환웅하강과 단군하강의 전승이 섞인 것을 알 수 있다(환웅단군 하강). 이를 임하형으로 부르려고 한다.

『회현선생실기』의 권1에서는 사략형의 부루 도산 파견의 전승을 전한다. 이는 고려 말의 안향이 1298년 세자 시절의 충선왕을 따라 원나라를 다녀오면서 쓴 시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를 통해 보면 고려 말에 이미 부루의 도산회의 파견 설화가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3간본에 추

가되었다는 점, 3간본은 1884년 경에 안극권이 편찬했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고려 말에 부루 도산 파견설이 이미 있었는지는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동사절요』의 「범례」에는 고기형의 조선 개국 전승이 있다. 「신시씨」에는 기언형의 환웅 교화 전승이 있다. 「단군」에는 사략형의 단군 성명, 천가형의 단군하강, 고기형의 도읍지 이동, 총목형의 팽오재상과 단군 교화, 여사형의 삼랑성 관련 전승이 있다. 「부루」에는 응제형의 해부루-단군지, 시주형의 하백녀 부루 모자설, 응제형의 부루 도산 파견, 실기형의 후손 부여 건국설의 전승이 있다. 「팽오」에는 총목형의 팽오 재상 전승이 있다. 이 외에 새로운 전승이 보인다. 『東史記言』을 인용하여 「환인씨」에서는 초창기에 桓因氏가 있었는데, 天神이라 불렀다고 하였다(桓因氏天神). 그리고 「신시씨」에서는 기본적으로 고기형의 환웅하강 전승과 일치하나, 단 桓雄을 神市氏로 보는 동시의 桓因의 世子로 보고 있다(환웅하강 전승의 변형). 이들을 동사기언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동사기언형 외에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의 전승도 있다. 「범례」에서 단군 이전에 桓因과 神市가 있었다고 하였다(桓因神市). 그리고 「환인씨」에서 桓因氏가 있었는데, 神人이라고 하였고(환인신인설), 환인씨의 시대는 지극히 잘 다스려지던 때였다는 것(환인태평설), 桓因氏가 神市氏를 낳고 神市氏가 檀君氏를 낳았다는 것(단군의 선계), 桓因은 태극과 같고 神市는 음양과 같으며 檀君은 天地人과 같다는 전승(태극음양천지인)이 있다. 이들 전승을 東史節要形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동역사』의 「단군조선」 원년조에 총목형의 무군장시기와 단군의 교화 전승이 전하고, 59년조에는 여사형의 참성단과 삼랑성 전승이 전하며, 127년조에는 고기형의 도읍지 이동 전승이 있다. 129년조에는 응제형의 부루 도산 파견과 실기형의 후손 부여 건국이, 기원전 1212년조에는 통감형의 단씨역년설이 전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전승이 있다. 단군 원년조에 환인이 아들 웅이 태백산의 檀木樹 아래에 궁실을 지었다는 것(환웅궁실), 환웅이 왕검을 낳았다는 것(단군 탄생) 왕검이 자라서 평양에 도읍하여 조선을 세웠다는 것(조선 개국), 국내의 산천을 존송했다는 것(산천 존송), 조선이 대해·요하·조령·흑룡강에 이른다(조선의 강역) 등의 전승을 말하였다. 그리고 왕후는 비서갑의 여식으로 했다고 하여(단군의 왕후) 단군의 아내를 왕후로 올려 불렀다. 또한 단군이 군신남녀 간의 도리 음식과 거처의 제도를 갖추게 하였고, 백성들의 살 수 있는 곳을 정하여 그들의 생

활을 안정시켜 주었다는 것(단군의 교화)을 전하였다. 한편 기원전 1212년 조에 동부여의 왕 해부루, 금와왕, 그리고 대소왕은 모두 단군의 후예라고 하였다(단군의 후예). 이러한 유형의 전승을 대동역사형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증보문헌비고』의 「章服」에서는 총목형의 단군 교화를, 「交聘考」에서는 응제형의 부루 도산 파견설과 고기형의 조선 개국을, 「職官考」에서는 총목형의 팽오재상설을 전한다. 『매천야록』의 「단군조선」 조에는 총목형의 단군 교화를 전한다. 이 외에 단군교에서 주장하는 여러 전승을 수록하고 있다. 윤택영와 이재극이 일본의 사주를 받아 일본의 天照大神과 檀君은 형제라는 이야기(단군-天照大神 형제)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그리고 단군교 교인들이 백두산 석실에서 단군 사적을 발견했다고 하는데(백두산 단군사적), 백두산을 단군과 관련하여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군교에서 단군이 신선이 되어 올라간 날을 음력 3월 15일로 지정했다(단군 승천일)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전승을 매천형으로 부르고자 한다.

『주연집』의 「崇靈殿致祭文」에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단군 전승이 수록되어 있다. 神이 太白山에 내려와서 박달나무에서 신령을 한곳에 모았고, 요임금 시기에 나라를 창립하였다(신 하강설)고 하는데, 이것은 천가형의 영향을 받아 변형된 것이다. 그리고 궁실과 의복이 있었고, 문물이 찬란하였으며, 윤리가 창시되어 교화가 두터웠다고 하였는데(단군의 교화), 이것은 총목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두 가지 전승을 주연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19세기 이후 문헌

번호	서명	편명	유형(大)	유형(小)
① 1808	萬機要覽 (徐榮輔)	鼎足山城	麗史形	三郎城
② 1829	大東遺事 (미상)	檀君朝鮮	天歌形	단군하강 신화 도읍지 이동
			古記形	웅녀신화-단군탄생 아사달 산신
			總目形	단군의 교화 팽오재상설
			室記形	후손 부여 건국설
			史略형	扶婁 塗山 파견설

③ 19C 초엽	大東掌攷 (洪敬模)	朝鮮國	掌攷形	단군의 영역	
			古記形	단군의 이름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掌攷形	단군의 先系	
			詩註形	하백녀부루 모자설	
			總目形	단군의 교화	
		사략형	扶婁 塗山 과건설		
天歌形의 변형	신웅의 하강				
古記形의 축약	아사달 산신				
	扶餘		室記形	후손 부여 건국설	
			扶餘 檀君 후손설		
④ 19C 초엽	해동역사 (한치윤)	檀君朝鮮	古記형의 변형	조선 개국	
			海東形	환웅하강 신화	
				단군의 유래	
古記形	九夷 추대설				
⑤ 1851	기년동사약 (이원익)	檀君朝鮮紀 戊辰	天歌形	단군탄생-웅녀신화	
			總目形	아사달 산신	
				조선 개국	
			室記形	단군하강 신화	
			麗史形	조선 개국	
				단군의 강역	
		室記形	후손 부여 건국설		
		檀君朝鮮紀 己卯	麗史形	甞星壇	
			天歌形	三郎城	
				조선의 개국	
		檀君朝鮮紀 丙子	總目形	단군의 교화	
			總目形	팽오제상설	
		檀君朝鮮紀 乙未	檀君朝鮮紀 己卯	總目形	彭吳의 비
				팽오제상설	
			檀君朝鮮紀 丙子	東峰形	壽春은 狛國
사략형	扶婁 塗山 과건설				
檀君朝鮮紀 乙未	동사형	단군의 후계			
	고기형	아사달 산신			
⑥ 1850 이후	총사 (홍경모)	東史辨疑 檀君	총사형	檀君下降設	
				단군 추대1	
			총목형	단군 추대2	
				檀君의 의미	
		東史辨疑 檀君降生	총사형	부여예맥 단군후손	
				단군의 교화	
		東史辨疑 檀君系派	총사형	팽오제상설	
				神熊 하강	
		東史辨疑 檀君國號	총사형	神人 하강의 의미	
				단군의 부모	
古記形	조선 개국				
	총사형		조선 개국		
			檀國과 檀君		

⑦ 1862 년경	동전고 (미상)	檀君朝鮮	사략형	단군의 성명
			天歌形	단군 하강 신화
			古記形	아사달 산신
			總目形	단군의 교화
			麗史形	彗星壇
				三郎城
			사략형	扶婁 塗山 과건설
室記形	후손 부여 건국설			
⑧ 19C 후반	오주연 문장전산고 (이규경)	東土九夷六部辨證說	古記形의 변형	환웅 하강 신화
				단군탄생-옹녀신화
				조선 개국
		治道辨證說	總目形	彭吳 재상설
				彭吳의 비
		東國婦女首飾辨證說	總目形	단군의 교화
		笠制辨證說	總目形	단군의 교화
檀箕爲國號辨證說	오주형	도읍지 이동		
		檀國說		
⑨ 19C 추경	동사 (심대윤)	檀君朝鮮	天歌形	단군하강 신화
			古記形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⑩ 1884	임하필기 (이유원)	檀君朝鮮	임하형	환웅하강 신화+ 단군하강 신화
		檀君朝觀	사략형	夫婁 塗山 과건설
		前代始祖廟	紀年形	단군의 가계
		檀君朝鮮	古記形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
			임하형	환웅하강 신화+ 단군하강 신화
		總目形	단군의 성명	
			단군의 교화	
			팽오재상설	
사략형	夫婁 塗山 과건설			
⑪ 1884 년경	회헌선생실 기 (안국권)	권1	사략형	扶婁塗山 과건설

⑫ 1904 년	동사절요 (안중화)	凡例	동사절요형	桓因神市
			古記形	조선 개국
		桓因氏	東史記言형	桓因氏天神
			동사절요형	환인신인설
				환인태평설
				단군의 선계
		神市氏	東史古記形	환웅하강 신화의 변형
			기언형	환웅의 교화
		檀君	사략형	단군의 성명
			天歌形	檀君下降設
			古記形	도읍지 이동
			總目形	팽오제상
				단군의 교화
		扶屭	麗史形	三郎城
			應製形	解夫妻-檀君子
			詩註形	河伯女夫妻 母子設
應製形	夫妻 塗山 과건설			
彭吳	室記形	후손 부여 건국설		
	總目形	彭吳 제상설		
		無君長時期		
⑬ 1905	大東歷史 (崔景煥·鄭喬)	단군조선 원년	總目形	단군의 교화
				환웅궁실
			大東歷史形	단군 탄생
				조선 개국
				단군의 교화
				산천 존승
				조선의 강역
				단군의 왕후
		단군조선 59년	麗史形	삼성단
		단군조선 127년	고기형	도읍지 이동
		단군조선 129년	웅제형	扶婁 塗山 과건
		기원전 1212년	室記形	후손 부여 건국설
			大東歷史形	단군의 후예
		⑭ 1903 ~190 8	증보문헌비 고 (박용대)	章服1
交聘考1	應製形			夫妻 塗山 과건설
交聘考4	古記形			조선 개국
⑮ 1910	매천야록 (황현)	職官考24	總目形	彭吳제상설
		高宗 32年 乙未	總目形	단군의 교화
		隆熙 3年 己酉	매천형	檀君-天照大神 형제
⑯ 1919	주연집 (고종)	崇靈殿致祭文	주연형	白頭山 단군 사적
				단군 승천일
				단군하강 신화
				단군의 교화

6. 맺음말

본고에서는 고려~한말까지의 단군 관련 문헌 총 277권을 전수 조사하여 단군 관련 기술들을 집대성하였고, 이들로부터 총 61권에서 단군전승을 확인하였다. 시대별로 분류하여 보면, 16세기 이전 자료가 16권, 17세기 자료가 13권, 18세기 자료가 16권, 19세기 이후 자료가 16권이었다. 이들 문헌들을 집성하여 시기별로, 문헌의 출간 연대순으로 단군 전승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遺事形, 魏書形, 古記形, 韻紀形, 本紀形, 天歌形, 麗史形, 東峰形, 應製形, 通鑑形, 靑鶴形, 휘찬형, 海東形, 東史古記形, 雜錄形, 순오형, 기언형, 실기형, 기년형, 강목형, 조야형, 樂府形, 同文形, 梧溪形, 楓巖形, 천장형, 掌笈形, 해동형, 총사형, 오주형, 임하형, 동사기언형, 東史節要形, 대동역사형, 매천형, 주연형 등 총 37개의 단군전승이 확인되었다.

우선 유사형(삼국유사)은 동명왕이 壇君의 아들이라는 전승[동명 단군후손]과 桓因은 帝釋이라고 하는 전승[桓因帝釋]이다.

다음 위서형(삼국유사)은 단군이 아사달에 도움을 정하고 나라를 세운 전승[조선 개국]이다.

다음 고기형(삼국유사)은 일반적인 단군 전승이라고 할 수 있는 환웅하강, 웅녀-단군탄생 신화, 평양을 도읍지로 한 조선 개국, 도읍지 이동, 아사달 산신의 전승이다.

다음 운기형(제왕운기)은 단군은 釋帝의 손자라고 하였는데[제석손자], 이는 기본적으로 고기형의 환웅하강에 기반한 것이다.

다음 본기형(제왕운기)은 환인을 上帝라고 하였고[환인상제설], 환웅천왕을 檀雄天王이라고 하였으며[환웅하강 신화의 변형], 단웅천왕이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의 몸이 되게 하여 檀樹神과 혼인하게 하여 단군을 낳았다고 하였고[단웅손녀-단군탄생], 단군조선의 후예로 시라·고례·남북옥저·동북부여·예맥을 들고 있다[단군의 후계].

다음 천가형(용비어천가)은 神人이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왔는데, 나라 사람들이 임금으로 추대하였고[단군하강설], 이가 前朝鮮을 일으킨 단군이며[조선 개국], 神誌 仙人은 圖讖家로 단군조선 때의 사람이라고 한다[神誌仙人].

다음 여사형(고려사)은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참성단과 단군이 세 아들로 하여금 축성하게 하였다는 삼랑성에 관한 전승이다[彗星壇·三郎城].

다음 동봉형(김시습)은 壽春은 貊國이고, 길개통은 彭吳에서 시작되었다는 전승이다.

다음 응제형(응제시주)은 부여왕 해부루는 단군의 아들이라는 전승[解夫婁-檀君子], 비서갑 하백의 딸과 함께 부루를 낳았다는 전승[河伯女夫婁-母子設], 우왕이 塗山에서 제후들과 회맹할 때 단군은 부루를 파견했다는 전승[부루 도산 파견]. 부루가 동부여의 왕이라는 전승[檀君子-東夫餘王]이다.

다음 통감형(동국통감)은 단군조선 시기에 백성들은 순박하였고 풍속은 질박하였다는 것[순박한 풍속]과 단군의 수명으로 기술된 1,048년은 단씨의 대대로 전하여 지나온 햇수[단씨역년설]라는 것이다.

다음 청학형(청학집)은 단군을 비롯하여 옛 仙法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桓因 真人, 明由, 廣成子로 올라가는 선법의 宗系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단군은 九夷가 추대하여 天王이 되었고, 쭉으로 만든 정자와 버드나무로 만든 궁궐에서 머리를 땅고 소에 걸터앉아서 다스렸다고 한다. 이후 자손이 번성하여 21개의 나라가 檀氏였다고 한다. 후손으로 文朴氏가 있어서 阿斯山에 거하였는데, 단군의 도를 깨달았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단씨의 치세 동안 南夷의 환란이 있었다(南夷患亂)는 전승이다.

다음 휘찬형(휘찬여사)은 단군이 건국한 조선을 前朝鮮이라고 했다[조선 개국].

다음 해동형(해동이적)은 신지가 <震朝九變圖局>을 편찬하였는데[震朝九變圖局 神誌 편찬설], 道銑이 앞날을 내다보는 법은 신지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전승이다.

다음 동사고기형(반계잡고)은 기본적인 환웅 하강신화에서 환인을 天神이라고 보는 전승이다.

다음 잡록형(해동잡록)은 단군 사망 이후 後嗣는 기자가 책봉을 받아 오자 도움을 白嶽山으로 옮겼다는 전승[후손 이동설의 변형], 단군은 나중에 신이 되었고 단군 사당으로 아사달산에 임시로 건물을 세우고 御木을 봉안해두었다는 전승[아사달 산신설의 변형], 기본적인 웅녀 신화에서 환웅을 神人으로 기술한 전승[단군탄생-웅녀신화의 변형]이다.

다음 순오형(순오지)는 태박산에 하강한 존재를 天神이라고 한 전승이다.

다음 기언형(기언)은 神市와 단군의 시대에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생겼다는 전승[군신관계의 형성], 신시와 단군의 시대에는 질박하고 순후하였다는 전승[순박한 풍속], 신시 때에 비로소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를 가르쳤다

는 전승[정치의 형성], 九夷가 살던 시절에 桓因氏가 있었고 환인이 신시를 낳았다는 전승[환인과 신시], 신시가 처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가르쳤다는 전승[신시의 교화]이다.

다음 실기형(연려실기술)은 단군조선을 전조선이라고 칭한 것[조선 개국], 부루가 기자를 피해 부여 땅에 북부여를 세운 전승[후손 부여 건국설]이다.

다음 기년형(기년아람)은 단군의 할아버지인 환인은 天神이고, 아버지인 환웅은 神市이라는 전승[단군의 가계]이다.

다음 강목형(동사강목)은 단군의 후손이 북쪽으로 옮겨 부여국을 세우고 성을 解로 삼았다는 전승[해모수 단군후손], 처음에 해모수가 천제의 아들이고, 단군이라 불렸으며, 아들 부루를 낳았다는 전승[단군 후손 전승]이다.

다음 조야형(조야집요)은 고기형의 환웅하강이 天神 桓因의 하강으로 변경된 전승이다.

다음 악부형(해동악부)은 고기형에서의 환인을 桓國의 임금으로 기술하였고[환웅하강], 桓을 檀으로 고쳐 불렀다는 전승[桓과 檀], 檀王 儉이 王儉城을 축성했다는 전승[왕검성 축성]이다.

다음 동문형(동문광고)은 고기형의 환웅 하강 대신에 신단수 아래로 하강한 존재를 ‘어떤 사람’으로 하여 특칭하지 않았고, 웅녀가 아닌 암컷 곰과 교배한 것으로 기술한 전승이다.

다음 오계형(오계일지집)은 제석 환인의 거주지를 도리천궁이라고 하였고[환인의 거주지], 단군이 둘째 아들 扶婁虞를 醫巫君에 봉하였다는 전승[扶婁虞-醫巫君]과 단군의 후계로 豹와 桓虎 등 26명의 이름을 전했으며[단군의 후계], 구월산 八臺 산봉우리에 비서갑의 여인이 와서 壇帝가 그녀를 아내로 삼아서 扶蘇·扶婁虞·扶餘를 낳았다는 전승[비서갑 하백녀 전승], 태자 부루를 왕으로 세운 전승[부루 후계설], 단군은 아사달산에 들어가 도를 닦아서 金獐에 와서 신선으로 화하여 떠났다는 전승[아사달 산신]이다.

다음 풍암형(풍암집화)은 九夷가 있던 초기에 환인씨가 있어서 신시를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그에게 귀의하였다는 전승[神市桓因創始], 신단수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檀君이라고 칭했다는 전승[단군의 유래]이다.

다음 천장형(천장관전서)는 동부여의 왕 대소가 단군의 증손이라는 전승[대소 단군 증손]이다.

다음 장고형(대동장고)은 고기형의 환웅 하강 전승에서 환웅을 神雄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과 곰이 썩과 마늘을 먹었던 고기형과는 달리 약을 먹고

여인이 되었다고 하였고[신웅하강], 고기형의 축약으로 단군이 神이 되었다는 전승[아사달 산신], 檀君의 영역은 평안도와 그 이서와 요하 이동의 땅, 함경도 및 그 이북의 땅, 황해도, 강원도, 경기 한강 이북의 땅, 충청이라는 전승[단군의 영역], 단군의 아버지는 桓雄이자 神市이고, 할아버지는 桓因이자 天神이라는 전승[단군의 先系]이다.

다음 해동형(해동역사)은 단군을 檀君氏로 표기하거나, 환인을 天神이라고 표기한 전승[天神檀君氏], 박달나무 아래에서 태어났으므로 檀君이라고 한 전승[단군의 유래]과 단군의 이름은 儉인데 나면서부터 신명하여 九夷가 임금으로 옹립하였다[구이추대설]는 전승이다.

다음 총사형(총사)은 동방의 처음에 군장이 없어서 나라 사람들이 박달나무 아래의 신을 보고 임금으로 추대하였다는 전승[단군 추대],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온 까닭으로 檀이라 하였고 君長으로 삼아서 君이라 했으며 단군은 개인이 아닌 임금에 대한 칭호였다고 한다[단군의 의미]. 그리고 단군 후세의 자손이 나라를 세워 왕을 칭하였으니, 부여와 예맥[부여예맥 단군후손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神熊이 박달나무 아래로 내려와 단군을 낳았다는 전승[神熊 하강], 신성한 사람은 예정된 날짜에 응하여 태어나므로 神人이라고 이르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다[神人 하강의 의미]라고 하였다. 또한 단군의 아버지는 神市天王이고, 어머니는 태백산의 꿈이다[단군의 부모]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단군은 사람의 문화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고을을 다스리고 살 곳을 바로잡았다고 하였고[조선 개국], 조선의 칭호는 후세의 명칭으로 檀이 나라 이름이고 후세에 임금을 계승한 자들이 모두 단군이라 불렀다고 하는 전승이다[檀國과 檀君].

다음 오주형(오주연문장전산고)은 天神 桓因이 웅인 神市에게 명하여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가게 했다는 전승[환웅 하강], 꿈이 신령한 약을 먹고 여신으로 변하고 웅과 더불어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전승[단군탄생-웅녀신화], 단군이 조선을 세웠다는 전승[조선 개국], 단군의 후손이 唐藏京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전승[도읍지 이동]과 檀은 나라이름이라고 하였다[檀國說].

다음 임하형(임하필기)은 천신 桓因의 아들 桓雄이 太白山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와 이름을 儉(堯임금 戊辰년)이라 한 전승이다.

다음 동사기언형(동사절요)은 桓因氏가 있었는데 天神이라 불렀다는 전승[桓因氏天神], 桓雄을 神市氏로 보는 동시의 桓因의 世子로 보고 있는 전승[환웅하강 전승의 변형]이다.

다음 동사절요형(동사절요)은 桓因과 神市가 있었다는 전승[桓因神市], 환인씨가 神人이라는 전승[환인신인설], 환인씨의 시대는 지극히 잘 다스려 지던 때였다는 전승[환인태평설], 환인씨가 神市氏를 낳고 신시씨가 단군씨를 낳았다는 전승[단군의 선계], 환인은 태극과 같고 신시는 음양과 같으며 단군은 天地人과 같다는 전승[태극음양천지인]이다.

다음 대동역사형(대동역사)은 환인이 아들 웅이 태백산의 檀木樹 아래 궁실을 지었다는 전승[환웅궁실], 국내의 산천을 존송했다는 전승(산천 존송), 조선이 대해·요하·조령·흑룡강에 이른다는 전승[조선의 강역], 단군의 아내를 왕후로 올려 불렀다는 전승[단군의 왕후], 동부여의 왕 해부루·금와 왕·대소왕는 모두 단군의 후예라는 전승[단군의 후예]이다.

다음 매천형(매천야록)은 윤택영와 이재극이 일본의 사주를 받아 일본의 天照大神과 檀君은 형제라는 전승[단군-天照大神 형제], 단군교 교인들이 백두산 석실에서 단군 사적을 발견했다는 것[백두산 단군사적], 단군교에서 단군이 신선이 되어 올라간 날을 음력 3월 15일로 지정했던 것[단군 승천일]이다.

다음 주연형(주연집)은 神이 태백산에 내려와서 박달나무에서 신령을 한 곳에 모았고, 요임금 시기에 나라를 창립했다는 전승[신 하강설], 그리고 궁실과 의복이 있었고 문물이 찬란하였으며 윤리가 창시되어 교화가 두터웠다고 한 전승[단군의 교화]이다.

3 근대 일본학계의 고조선 연구 고찰

- 한국·중국학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원진(세종대)

목 차

1. 서론
2. 근대 일본학계의 고조선 연구
3. 근대 한국·중국학계의 고조선 연구
4. 결론

1. 머리말

근대시기가 되면서 일본관학자들은 단군과 고조선을 부정하고 한국의 역사는 한나라의 식민지인 한사군으로부터 시작했으며 한반도 남부는 일본에게 지배를 받았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합리적 해석이란 논리로 단군(조선)의 실재성을 부인하였고, 과학적 인과론의 논리틀로 한사군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을 과장하고 역사중심에 위치시켰다.¹⁾ 일본학자 중에 고조선 왜곡에 앞장선 학자는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가 있다. 그동안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이들의 단군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었다.²⁾ 하지만 이들은 단군만 아니라 기자조선도 부인한 논고를 발표한 공

1) 조법중, 2011, 「식민주의적 고조선사 인식의 비판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61, 48쪽.

2) 이근우, 2021, 「이마니시 류의 단군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74.

이근우, 2022, 「白鳥庫吉의 일본신화와 단군신화 이해에 대하여」 『한국고대사탐구』 40.

윤승준, 2022,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단군신화 연구 비판」 『한국고대사탐구』 40.

통점이 있다.³⁾ 즉 시라토리는 일본학자 중에서 체계적으로 단군 논문을 발표한 학자이자 기자조선을 부정하는 최초의 논문을 쓴 학자이기도 하다. 이 미니시는 이러한 시라토리의 논지를 이어 단군·기자와 관련된 가장 방대한 연구를 발표한 학자이다. 이들이 기자조선을 부정한 것은 한국학계와 비슷하지만 그들은 『魏略』의 사료적 가치와 이 시기에 해당하는 고조선의 존재도 부정했음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학자들은 기자조선을 부인했지만 기자조선 시대를 다른 시대로 대체하여 인식했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중국학계에서도 일제의 만주침략에 대항하여 동북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북지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고조선에 대한 연구도 단편적이지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를 중심으로 근대 일본 학자들의 고조선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같은 시기 한국, 중국학자의 연구와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이를 통해 근대 일본의 고조선 인식과 왜곡 양상이 한층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2. 근대 일본학계의 고조선 연구

2.1. 시라토리의 연구와 만선사⁴⁾

근대시기 일본관학자들⁵⁾은 한국에 대한 침략을 위해 조선의 기원에 관심을 갖고 그 독자성과 유구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최초의 개국시조인 단군의 역사성을 부정하며 조선의 역사를 서술하게 된다. 근대 초기 고조선에 대해 언급한 주요 일본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⁶⁾는 조선 개국의 기원에 대해 요임금시대

전진국, 2022, 「단군신화의 불교적 윤색과 ‘단군’ 명칭에 관한 학술사적 검토-白鳥庫吉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40.

선석열, 2022, 「일인 관학자들의 단군신화의 불가조작설과 그 비판」 『한일관계사연구』 76.

3) 조원진, 2022,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고조선 기원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40.

4) 본절은 다음 논문을 수정 축약한 것이다. 조원진, 2022,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고조선 기원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40.

5) 본고에서는 ‘일본관학자’라는 용어를 시라토리로 대표되는 메이지정부의 국가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한 학자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한정지어 사용하였다.

에 단군이 평양에 도읍하여 조선을 세우고 1048년이 지나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고 한 이야기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상말기에 북부 평안도 지역에 이미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기자가 중국인 5천명을 이끌고 조선으로 피난하여 평양에 도읍하며 조선은 비로소 흥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 영토는 지금의 황해도 이북 및 만주 남부라고 보았다. 패수는 압록강이며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잃고 바다 건너 마한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후 위만조선은 위만이 준왕을 축출한지 대략 87년이 되는때에 한나라에게 망했다고 한다.

요시다 도고(吉田東伍)⁷⁾는 조선의 古史는 전혀 없으며 중국 사서에 기자조선에 대해 흥망의 두 기사뿐이며 그 간의 연혁은 탕진하여 알 수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단군에 대해서는 夫餘種의 남하가 전하던 것이 후세에 이르러 신으로 만든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단군을 부정하고 기자를 조선 역사의 시작으로 본 것이다. 나카 미치요(那珂通世)⁸⁾는 조선에 대한 중국 문헌의 기록은 箕子 보다 이전의 것이 없으며 기자조선의 성쇠는 『魏略』을 통해 처음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단군전설은 중국 사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고 모두 조선인이 만든 것으로 불교 전래 이후 僧徒의 날조로 생긴 것으로 『東國通鑑』 외기의 기록은 승도의 망언을 역사상의 사실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학자중에서 고조선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구는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에 의해 시작되었다. 시라토리는 먼저 「檀君考」(1894)⁹⁾를 통해 단군전설은 불교전래 이후 만들어진 승려의 허구라 보았다. 시라토리는 단군전설은 불교문화와 관련하여 승려가 만든 것이며 태백산은 지금의 묘향산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단군전설이 만들어진 시기는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 372년에서 북제 위수의 『魏書』가 편찬된 551년 사이이며 더욱 구체적으로 단군을 요순과 동시대 인물로 설정한 것은 고구려의 국력이 절정에 이르렀던 장수왕대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시라토리는 이전 학자들이 기자조선을 인정한 것과는 달리 기자조선의 존재도 부정하였다.

시라토리는 「기자는 조선의 시조가 아니다(箕子は朝鮮の始祖に非ず)」

6) 林泰輔, 1892, 『朝鮮史』 卷1, 吉川半七(편무진·김현옥·이태훈 역, 2013, 『조선사』(번역·해제), 인문사, 61~65쪽).

7) 吉田東伍, 1893, 『日韓古史斷』, 富士山房, 93~95쪽.

8) 那珂通世, 1894, 「朝鮮古史考—朝鮮樂浪玄菟帶方考」 『史學雜誌』 5-4, 37~58쪽.

9) 白鳥庫吉, 1894,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1970, 『白鳥庫吉 全集』 3(朝鮮史研究), 岩波書店, 1~14쪽); 조경철 번역, 2009, 「단군고(檀君考)」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9~32쪽

(1910)¹⁰⁾에서 기자가 조선의 시조라는 것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먼저 朝鮮의 이름을 『書經』 『詩經』, 『左傳』에서 볼 수 없으며 秦漢 무렵이 되어 『尚書大傳』과 漢나라 司馬遷의 저서인 『史記』에서만 볼 수 있는 사실에 주목한다. 箕子 이후 40대 동안은 그 자손 중에 한 명도 어떠한 자료에서도 볼 수 없고, 『魏志』가 인용한 『魏略』에 조선의 왕이 40대 자손이라 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箕氏가 殷 말기 周 초엽에 東來한 이후 40대에 이르기까지 그 자손을 볼 수 없으며, 수백 년이 지나 겨우 喆·準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점이라 지적한다.

또한 箕子の 居城을 王險城이라 칭했는데 王險의 이름은 『易經』의 彖傳에서 나온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 또 箕子 40대 후손인 喆 역시 『易經』의 “天地喆”의 卦에서 나온 말이며 喆의 아들 準의 이름은 동 繫辭傳에 “易與天地準.”에서 나왔다고 보았다. 따라서 箕子和 관련된 인명과 지명은 모두 『易經』에서 나왔으며, 『易經』은 孔子 이후에 만들어진 점을 감안하면 기자동래설은 더욱 의심스럽다고 한다.

따라서 시라토리는 기자가 조선의 시조라는 사실을 부정하며 이러한 전설이 생긴 배경을 검토하였다. 그는 춘추전국시대 동안 諸侯가 독립하여 토지를 개척하고, 그 중에도 특히 燕나라는 滿洲 朝鮮 방면으로 발전하고 더욱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한반도로 이주하면서 한반도는 마치 支那人의 殖民地와 같은 양상을 띠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本國으로부터 독립하여 도움을 王險城에 짓고, 支那思想의 특색으로서 그 조상을 기리기 위해 『易經』 속에서 箕라는 문자를 골라 덕망이 높은 殷나라 말기의 賢人 箕子를 스스로 조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단군과 기자가 모두 조선의 시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한국사가 만선사라는 이름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1890년대 청일전쟁 무렵에는 단군·광개토태왕릉비 등 조선 고대사 연구에 집중하였다면 1900년대 후반에 이르면 중국 본토 및 동북지방이 자국의 영향권에 들어오면서 연구의 관심이 옮겨졌기 때문이다.¹¹⁾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남만주에서의 러시아의 이권을 계승하여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한다. 일제는 만주 지역의 주요 산업을 지배하고 철도부속지를 통한 영역 지배까지 실현했다.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이러한

10) 白鳥庫吉, 1910, 「箕子は朝鮮の始祖に非ず」 『東京日日新聞』 1910.8.31(1970, 『白鳥庫吉全集』 3(朝鮮史研究), 岩波書店).

11) 박지영, 2018, 「근대 일본의 조선사 연구와 만주역사조사부」 『일본사상』 35, 178~179쪽.

지배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 조사는 물론 정책 입안까지 간여했다.¹²⁾ 1904년 4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조사기관으로 만철조사부가 설립되고 1908년 1월에는 도쿄지사 내에 만선역사지리조사부가 설치되었다. 만선역사지리조사부의 책임자는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교수인 시라토리 구라키치였다. 설립 초기에는 시라토리의 주재 아래 야나이 와타리(箭内互), 마쓰이 히토시(松井等),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얼마후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와 쓰다 소우키치(津田左右吉)가 가담하여 총 6명이 되었다. 뒷날 야나이와 이케우치는 도쿄제국대학 교수, 쓰다는 와세다대학 교수, 마쓰이는 고쿠가쿠인대학(國學院大) 교수, 이나바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편수관이 되었다. 이들이 만들어낸 역사가 바로 ‘만선사’로 그들의 연구성과는 『만주역사지리』와 『조선역사지리』, 그리고 도쿄제국대학으로 사업이 이관된 후 1915년부터 1941년까지 간행된 『만선지리역사연구보고』 16책에 수록되어 있다.¹³⁾

시라토리는 『滿洲歷史地理』에서 야나이 와타리(箭内互)와 공저로 제1편 「한대의 조선(漢代の朝鮮)」을 집필하였다. 여기에서 시라토리는 고조선을 만주사에 포함시키면서도 한사군부터 역사지리를 다루었다. 고조선에 대해서는 한무제 이전의 기록은 복생의 『尙書大傳』에 나오는 기자가 조선으로 달아났다는 기록과 『史記』 조선열전에 이르러서야 알 수 있다고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¹⁴⁾ 따라서 시라토리가 「한대의 조선(漢代の朝鮮)」에서 다루는 범위는 사실상 진번, 임둔, 낙랑, 현도의 한사군이다. 이어서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가 집필한 2편 「한대의 만주(漢代の滿洲)」는 동쪽으로 압록강 유역에서 서쪽으로 장성까지 요동·요서군 등 만주의 전한 영토를 다루었다. 여기에서 한국사는 한국민족의 주체적 발전의 역사가 되지 않고 만주를 포함한 대륙사의 일부로 흡수되었다. 한국은 단순한 지역개념이 되고, 한국의 역사는 한국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한반도로 쳐들어온 대륙세력의 파동의 역사로 간주된 것이다.¹⁵⁾

시라토리는 아시아의 역사를 漢民族으로 대표되는 남방과 北狄이라 통칭되는 북방 세력의 쟁패로 보았고 만주민족은 통구스 종족이 흑룡강 방면에

12) 박준형, 2022,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공간 재편과 만철조사부』, 사회평론아카데미, 26쪽.

13) 박준형, 2022,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공간 재편과 만철조사부』, 사회평론아카데미, 118, 136~137쪽.

14) 白鳥庫吉·箭内互, 1913, 「漢代の朝鮮」 『滿洲歷史地理』, 南滿洲鐵道, 1쪽.

15) 旗田巍(이기동 역), 1983, 『日本人의 韓國觀』, 一潮閣, 42~43쪽.

서 남하하여 광범위하게 분포했는데 이들이 예·맥·숙신 등이라고 보았다. 맥은 춘추전국시대 열하성 변경에 살았던 통구스의 一種으로 서쪽의 동호와 남쪽의 漢民族의 압력에 밀려 동쪽으로 쫓겨가 예라 칭하자 漢人이 예맥이라 불렀다고 보았다. 부여와 고구려의 언어에는 다량의 통구스어에 소량의 몽골어가 섞여 있어 예맥은 통구스종을 바탕으로 몽골종이 가미된 잡종으로 이해했다.¹⁶⁾ 그의 연구는 단순히 언어학적인 비교에만 근거하여 내린 결론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시라토리는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은 漢族의 독립국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영역이 한반도 북부에서 남만주 일부에 걸쳐있다고 보아 고조선사가 어디에 속하는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었다. 즉 고조선사의 소속을 판단하는 기준을 지리·영토로 할 것인지 종족·민족으로 할 것인지를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한 데서 생기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¹⁷⁾

이처럼 시라토리는 단군과 기자조선을 부정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이후 일본관학자들의 한국사 연구 흐름을 주도하였다. 시라토리의 연구 이후 일본학계는 단군만이 아니라 고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역사와 기원 문제를 가급적 언급하지 않고 한국의 역사를 서술하게 된다.

한편 이 시기 기자조선을 이동설 입장에서 정리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시라토리와 비슷한 시기에 기자를 연구한 시이카와 카메고로(椎川龜五郎)는 『日韓上古史, 襄面』(1910)에서 관련 사료를 정리하여 기자조선국이 1차 입국한 지역은 昌黎停車場方面이며 이후 義州 혹은 廣寧으로 옮기고, 연 진개의 침입으로 최후에 옮긴 곳이 낙랑군 폐수 동쪽 왕험성(지금의 海城)이라고 보았다.¹⁸⁾ 시이카와는 기자조선을 인정하면서 그 위치를 요서지역에서 점차 이동했다고 본 것이다.

2.2. 이마니시의 연구와 『朝鮮史』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일본인 최초로 한국사를 전공한 학자로 특히 신라사와 백제사는 단행본으로 따로 발간할 정도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마니시는 고조선과 관련된 연구도 적지 않게 발표하였다. 그의 연

16) 白鳥庫吉, 1969, 『白鳥庫吉著作集4 : 塞外民族史研究(上)』, 岩波書店, 536~538쪽 ; 1969, 『白鳥庫吉著作集8 : アジア史論(上)』, 岩波書店, 18~19, 69~84쪽.

17) 박찬홍, 2007, 「만선사관에서의 한국고대사 인식 연구」, 『한국사학보』29, 26쪽 ; 2014, 「'만선사'에서의 고대 만주 역사에 대한 인식」, 『한국고대사연구』76, 142~153쪽.

18) 椎川龜五郎, 1910, 『日韓上古史, 襄面』, 偕行社, 39~65쪽.

구의 핵심은 단군의 역사적 실체를 부정하고 기자 동래를 부정하는 것이다.¹⁹⁾

이마니시는 기원전 3세기 한반도에는 북방에 조선, 남방에 진번, 동남에 진국, 동방에 임둔이 있었으며 임둔은 濊種족이며 조선, 진번, 진국은 韓種족의 나라라고 보았다. 조선은 전국시대 열수(대동강) 남쪽으로 후퇴하였고 한과의 경계인 패수는 청천강인데, 청천강~자비령까지는 공지로 위만의 초기 거주지라 보았다. 위만은 남쪽의 조선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대동강 북쪽 평양에 도읍을 정했다고 한다. 따라서 위만 이전의 기자가 와서 왕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조선과 이후 위만조선은 성격이나 강역이 다르다고 보았다. 즉 전자는 한강(옛 대수) 유역을 중심으로 한 韓種族의 나라이고 후자는 열수(대동강)를 중심으로 한 중국민족의 나라라고 본 것이다.²⁰⁾

또한 이마니시는 고조선을 위만조선과 그 이전 기원전 3세기의 조선만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마니시는 조선고대사의 전개과정에서 중국 선진문화의 전파를 중요한 動因으로 생각했는데 그중에서도 중국문물이 전파되는 거점으로서 낙랑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또한 그는 낙랑군의 漢族에 대해 기본적으로 현재 조선민족에 합류한 일부 흐름으로 간주하였다.²¹⁾

한편 이마니시는 「洌水考」²²⁾를 통해 帶水는 한강으로, 溟水는 청천강으로 보았으며 洌水가 대동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짐제비>를 발견하여 열수를 대동강으로 보는 분명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평양은 왕험성이라고 보았다. 열수 유역은 한반도에서 燕·齊와 교통이 가장 편리한 지역으로 가장 빨리 지나 문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전국 연나라의 억압으로 조선의 중심은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보았다. 또한 이마니시는 낙랑군 조선현치는 지금의 강북 평양 근처에 있었으며 대동강면의 토성은 고구려의 위협으로 옮겨간 군치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마니시는 고조선의 남계와 관련하여 진번군은 충청도와 전라북도에 설치되었으며 치소인 靑縣은 금강유역에 있었다고 보았다.²³⁾

19) 今西龍, 1922, 「箕子朝鮮傳說考」 『支那學』 2卷 10·11號 ; 今西龍, 1929, 「檀君考」 『靑邱說叢』 卷1.

20) 今西龍, 1934, 「上古-原始時代及び開國傳說」 『朝鮮史の槩』, 近澤書店.

21) 정준영, 2017,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조선사, 혹은 식민지 고대사에서 종속성 발견하기」 『사회와역사』 115, 185~186쪽.

22) 今西龍, 1929, 「洌水考」 『朝鮮支那文化の研究』, 京城帝國大學(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23) 今西龍, 1916, 「眞番郡考」 『史林』 1:1(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231~268쪽).

이마니시의 연구는 시라토리의 연구와 비교하여 단군의 역사성 부정, 기자 동래 부정 및 『魏略』의 사료적 가치를 낮게 보는 점, 고조선의 시공간 축소, 한사군의 강조라는 주요 논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시라토리와 이마니시의 연구는 단군 전승에서 본질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고 후대 요소를 집중하거나²⁴⁾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魏略』의 사료적 가치 및 조선후, 부왕, 준왕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점²⁵⁾, 사료에 나타난 고조선의 대외 관계 및 영역 변화를 지나치게 연,진,한 위주로 해석하는 점, 한사군의 범위를 지나치게 크게 설정하는 점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견된다.

이마니시의 이러한 고조선 인식은 그가 『조선반도사』와 『조선사』 편찬에 참여하면서 학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총독부는 1915년부터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교토제대 사학과 교수 미우라 히로유키, 교토 제대 강사 이마니시 류, 도쿄제대 국사학과 조교수 구로이타 가쓰미가 촉탁으로 편집 주임에 인명되었다. 1916년에는 고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5개년 계획으로 본격적으로 고적조사에 착수한다. 고적조사위원회의 출범이 『조선반도사』 편찬사업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조선반도사』의 주안점이 상고사에 있었음을 다시 상기하게 하는 것이다. 이미 이마니시 류는 1913~1914년 조선총독부의 평안남북도와 만주 지안현 등 북부 지방 조사에도 참여한바 있다.²⁶⁾ 현재까지 발견된 『조선반도사』 원고는 이마니시가 맡은 1,2,3편 부분은 발견되었다. 이마니시 류는 초고에서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전설로 치부하고, 부여와 고구려의 예맥족도 한 종족과 무관한 것으로 서술했다. 고구려를 마한,진한,변한의 한종족으로 구분하고 조선 역사를 반도의 역사로 국한하였다.²⁷⁾ 『조선반도사』의 출간은 결국 미완에 그치게 되는데 이 편찬사업은 『조선사』 편찬으로 이어진다.

이마니시 류, 오다 쇼코, 구로이타 가쓰미, 세노 우마쿠마 등은 『조선반도사』 편찬에 이어 『조선사』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시기구분에 따라 각 편별 담당자가 결정되었는데 고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마니시 류로 결정되었다. 1923년 제1회 조선사편찬위원회는 고대 부분이 1삼국이전, 2삼국시대, 3신

24) 이근우, 2021, 「今西龍의 단군신화 연구와 神話素」 『한일관계사연구』 74.

25) 조원진, 2022,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고조선 기원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40.

26) 서영희, 2022,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자료수집과 역사편찬』, 사회평론아카데미, 90~93쪽.

27) 서영희, 2022,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자료수집과 역사편찬』, 사회평론아카데미, 107쪽, 118쪽.

라시대였다. 1927년 제2회 조선사편수위원회에서는 제1편 신라통일 이전, 제2편 신라통일시대로 바뀌었다. 『조선사』는 사실상 이마니시의 고대사편과 이나바가 주관한 고려, 조선시대편으로 양분되어 편찬되었다.²⁸⁾ 앞서 집필된 『조선반도사』의 고조선 인식은 『조선사』로도 이어져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에 해당하는 시기의 역사 및 고조선의 기원 문제를 수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고고학계의 동향도 1910년 이후 대동강유역에서 낙랑군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연이어 확인되면서 연구 흐름은 급격하게 중국군현 연구로 전환되었다. 이후 일본의 고조선 연구에 있어 위만조선과 그 이전 고대 한국의 역사는 낙랑군으로 대표되는 한군현 성립의 ‘前史’로 취급될 뿐이었다.²⁹⁾

다만 기자조선의 경우 당시 일본학계에서 완전히 부정된 것은 아니었는데 旗田 勲의 『朝鮮史』(1951)는 중국인을 지배자로 하는 기자조선이 한반도 최초의 국가였다고 보고 있다.³⁰⁾ 하지만 이후 일본학계는 기자조선에 대한 역사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근대 한국중국학계의 고조선 연구

3.1. 중국학계의 연구

근대 중국학계에서는 전문적인 고조선 연구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楊守敬³¹⁾이 『茂陵書』의 진번·임둔 거리 기록과 『漢書』朝鮮傳의 眞番이 辰國과 언급되는 기록을 근거로 진번은 삼한에 가까운 조선 남쪽이라고 보는 재남설을 주장하며 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顧頡剛³²⁾은 기자조선설은 과거 중국인들이 한반도로 도망한 것과 관련있다고 보면서 진, 한시대에 많은 중국인이 한반도와 마한에까지 도망하였기 때문에 중국 동북지방의 기자 이야기를 한반도 지배 역사와 연결시킬 수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만의 반란과 한무제 침입 이후 기자 전승의 내용은 대대적으로 왜곡되었고 한다.³³⁾ 반면 呂思勉(『中國民族史』, 1934)은 기자조선을 인정하면서 기자

28) 서영희, 2022,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자료수집과 역사편찬』, 사회평론아카데미, 145쪽, 167~171쪽.

29) 윤용구, 2009, 「일본에서의 ‘고조선사’ 연구」 『고조선사 연구 100년』, 학연문화사, 172~178쪽.

30) 千寬宇, 1952, 「旗田 勲 著 朝鮮史」 『역사학보』1, 127쪽.

31) 楊守敬, 1973, 「汪士鐸《漢地釋地》駁議」 『晦明軒稿』, 商務印書館, 1161~1165쪽.

32) 「顧頡剛全集·顧頡剛古史論文集」卷10(下), 재인용.

33) 吳銳(강길중 역), 2019, 「기자조선과 동북아 역사」, 『동북아 민족문화의 재발견』, 경상

조선이 요서 또는 廣寧縣에 건국됐다가 평양으로 옮겼다는 기자조선 이동설을 주장했다.³⁴⁾

중국학계에는 1930년대 동북지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고조선에 대한 문제도 검토되었다. 여기에서는 부사년과 김육불의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학계의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932년 일제는 만주를 침략하면서 300년 가까이 중국을 지배했던 만주족을 내세워 만주국을 세운다. 이를 통해 만주의 주인은 만주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전역을 공략한다. 이러한 전략적 목적을 위해서 일본은 서양적 방법론으로 무장된 많은 역사학자, 고고학자, 지리학자들을 만주에 보내 만주의 정체성을 발굴하였다.³⁵⁾ 이에 중국의 지식인들은 동북지역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만주가 중국역사였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연구성과가 부사년의 『東北史綱』³⁶⁾과 김육불의 『東北通史』³⁷⁾였다.

먼저 『東北史綱』은 본래 5권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사년이 저술한 제1권 ‘古代의 東北’만 출간되었다. 제1권은 최초부터 隨 이전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미 머리말에서 역사적으로 발해를 둘러싼 3면은 모두 중국 문화의 발상지로 오래전부터 요동일대는 중국의 군현이었고, 백두산과 흑룡강 일대는 중국의 藩封이었다고 하여 동북지역에 대한 관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1장에서는 신화와 전설을 제외하면 신뢰할 수 있는 중국의 역사는 상나라 부터이며 동북지역에 해당하는 숙신과 조선은 시기적으로 은, 주시대와 동시기에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는 『尙書大傳』 등의 기록을 통해 조선은 은상의 후예이고 숙신은 제하의 우호국으로 동북 역사와 황하 유역의 역사는 대체로 아울러 일어났다고 보았다. 부사년은 조선과 기자의 故事는 상과 동북이 본래 매우 밀접한 관계였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하며 따라서 상이 몰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물러나 요동을 지킬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는 상이 동북에서 일어났으며, 패망한 후에 다시 동북으로 돌아갔다고 보았다. 동북의 예맥족은 기자의 건국을 근본으로 하며, 기자조선은 대동강 유역만을 본체로 한 것이 아니라 압록강 이북에 걸쳐있다고 보았다. 맥족은 서주, 춘추

국립대학교출판부, 108~111쪽.

34) 오강원, 2005, 「현대 중국의 고조선 연구와 그 맥락」, 『중국의 한국 고대사 연구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18~20쪽.

35) 한규철, 2009, 「해제」, 『김유복의 동북통사』, 동북아역사재단, 5~6쪽.

36) 부사년 (정지호 역), 2017, 「동북사강」, 주류성.

37) 김육불(동북아역사재단 역), 2009, 「해제」, 『김유복의 동북통사』, 동북아역사재단.

초기에 하북성 경계 및 산둥성 동남쪽 경계에 살고 있었으며 진한시기에 중국인에 융화되었다고 보았다. 맥족의 동쪽 진출은 그 지역 토착민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고 보고 한반도 토착민인 韓族은 맥족 및 연,진나라 세력에 밀려 남쪽에서 명맥을 유지했다고 보았다. 또한 삼한은 민족의 명칭이 아니라 복잡한 혼합 부락이었다고 한다.

부사년은 그의 또다른 저서인 『이하동서설』³⁸⁾에서도 상나라의 선조가 亳 지역에서 기원했으며, 은나라 사람들이 망국이 여파에도 기자에 의지하여 조선을 지켰고, 고대의 속신은 한대의 조선이라고 보았다.

김육불은 『東北通史』를 통해 동북지역의 역사를 정리하여 후대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동북지역에 크게 4계통의 민족이 있다고 보고 (1) 漢族 (2) 肅慎族 (3) 夫餘族 (4) 東胡族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漢族중국 내지로부터 이주한 사람들인데 여기에 기자 전설이 있는 조선도 포함시키고 요동군 설치 이후 燕 이후 이주한 사람도 포함했다.

김육불은 『尙書大傳』, 『史記』 송세가, 『漢書』 지리지, 『三國志』 동이전 기록을 통해 기자가 동쪽에 조선에 봉해졌고 그가 직접 갔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았다. 『漢書』 지리지 기록과 낙랑 유물을 근거로 기자가 처음 봉해진 곳은 평양이 부근이며 당시는 항해술이 발달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육로로 이동했다고 추정했다. 주무왕이 기자를 봉했듯이 당시 조선은 한 藩國이었으며, 『魏略』에 나오는 朝鮮侯의 사례를 봤을 때 그 선조대에 侯爵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김육불은 전국시대 연나라가 동북지방을 개척하고 요동군과 요서군 등을 설치한 것은 동북 구역에 군현을 설치한 시발이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史記』 흉노전과 『魏略』 기사를 제시하였다. 당시 동호를 격파하고 조선을 공격한 것은 같은 식의 일이었는데 당시 동호는 연나라 북쪽에, 조선은 연나라 동쪽에 있었다고 보았다. 모두 변방의 근심거리였지만 조선이 더욱 강성하였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위략의 대부 예가 양국 사이를 중재한 것을 언급하며 그 국세가 서로 대등하였다고 보았다. 진개가 동호를 쳐서 천여리를 개척하고 승전의 위세를 타 조선 서쪽 땅 2천여리를 고역하니 압록강 서쪽 땅이 모두 연나라에 편입되었다고 보았다. 연이 설치한 5군 중에서 4군은 동호로부터 획득했으며, 요동군은 조선으로부터 획득했다고 보았다. 만변한의 위치에 대해서는 『我邦疆域考』의 기사를 소개하며 변한현은 압록강 부근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연나라가 요동을 개척한 것은 연 소왕

38) 부사년(정재서 역), 2011, 『이하동서설』, 우리역사연구재단.

12년인 기원전 300년으로 보았다. 연나라 설치한 障塞는 장성의 동쪽 끝에서 이어져 압록강을 넘어 대동강에 이르렀다고 보았고 패수는 대동강이라 주장한다.

김육불은 기자의 조선은 40여 대를 전하다가 위만에게 멸망당하였는데 위만은 燕나라 사람으로 漢族이라 보았다. 그는 편의상 기씨조선은 전조선이며, 위씨조선은 후조선이라 부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자가 조선에 들어간 것과 위만이 기씨조선을 멸망시킨 것, 한무제가 위씨조선을 평정한 것은 모두 한족이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다는 근거라고 보았다. 한사군이 설치된 지역은 대체로 한반도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양수경과 이나바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김육불은 중국이 동북을 개척하여 위엄을 먼데까지 미치는데 있어 한무제가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개척한 것이 가장 대단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근대 중국학계의 고조선 연구는 아직 전문적인 연구가 나오지는 않았다. 단군에 대한 연구가 없으면서 고조선에 대해서는 기자부터 서술하는 특징을 보인다. 고힐강에 의해 기자조선을 부정하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으나 대체로 기자에 의해 漢族이 조선을 개척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은 漢族의 역사로 파악한다. 이것은 만주사변 이후 만주가 역사적으로 중국 한족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던 시대적 상황과도 관련된다. 또한 고조선의 영역은 연,진,한의 영향을 강조하면서 진개 침입 이후는 압록강 이남으로 보는 것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조선을 숙신으로 보거나 기자조선 이동설이 주장되기도 했다.

3.2. 한국학계의 연구

한국학계의 연구는 신채호, 정인보, 최남선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채호의 연구는 『讀史新論』 (1908 대한매일신보 연재)－『조선상고문화사』 (1931~1932 조선일보 연재)－『조선사연구초』 (1924~1925 동아일보 연재)－『조선사』 (1931 조선일보 연재)로 이어진다. 신채호의 고조선 관련 연구는 『조선사』를 『조선상고사』³⁹⁾라는 제목으로 1948년 출간한 저서에 가장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채호는 조선족이 처음에 인류의 발원지인 파미르 고원 혹은 몽골 등지

39) 申采浩, 1948, 『朝鮮上古史』, 종로서원.

에서 나와서 동방의 불함산(백두산) 부근의 토지를 ‘조선’이라 불렀다고 보았다. ‘조선’은 古語로 光明이라는 의미로 후대에 이두자로 ‘朝鮮’이라고 썼다고 한다. 조선의 원시 수두(神壇)의 발원은 거의 송화강변의 하얼빈 부근이며 하얼빈의 옛 이름은 扶餘라고 보았다. 송화강은 조선족이 처음 뿌리를 내리고 정주한 곳이라 한다. ‘왕검’은 이두로 ‘임금’인데 ‘임금’이라 불린 건 국가가 조선을 세웠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여 역대 제왕의 칭호와 역대 서울의 명칭도 ‘임금’이라 했다고 보았다. 또한 신채호는 朝鮮을 춘추시대에는 주신(州愼), 숙신(肅愼), 직신(稷愼), 식신(息愼)으로 번역하였다고 보았다.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기자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기원전 323년경에 이르러 그 자손이 비로서 ‘불조선의 왕이 되었다고 보았다. 단군왕검이 아들 부루를 보내어 도산에서 夏禹를 만났는데 이것은 중국의 홍수를 구제해 주기 위해 오행의 설을 전하고 치수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으로 보았다. 하우는 도산에서 받은 神書를 ‘홍범구주’라 하며 신봉하였는데 하가 망하고, 그 뒤를 이은 상도 망하고 은의 왕족인 기자가 ‘홍범구주’를 지어 무왕과 변론하고 조선으로 도망쳤다. 이것은 조국 상나라가 망하고 상의 국교인 ‘수두’교가 압박을 받게 되어 고국을 버리고 ‘수두’교의 조국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한다.

조선의 전성기는 기원전 10세기경부터 대략 5~600년으로 장강, 회화 유역에 조선인이 많이 옮겨 살면서 다수의 소왕국을 건설하고 서연왕이 두각을 나타냈으며 기원전 5,6세기 경에는 ‘불리지’란 자가 조선의 군대를 거느리고 직예, 산서, 산둥 등을 점령하고 불리지국을 세운다. 기원전 7세기 말에 조선은 고죽국을 근거로 불리지국과 합하여 연과 진을 쳤는데 이때 제환공이 불리지국을 깨뜨리고, 연을 지나 고죽국을 쳐서 이겼다. 이때 조선은 서북의 지방을 잃고 오랫동안 쇠약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韓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王이란 뜻으로, 삼한은 삼조선을 나누어 통치하던 3대왕으로 3조선은 삼한 곧 세왕이 나누어 통치하던 3대 지방으로 이 3한의 도읍지는 지금의 하얼빈, 지금의 개평현 동북의 安市 古墟, 지금의 평양으로 이 삼조선은 신, 불, 말조선이라 한다. 신朝鮮은 성이 解氏이고 대단군왕검의 자손으로 불리는 자이며, 불조선은 성이 箕氏로 箕子의 자손이라 불리는 자이며, 말조선은 성이 韓氏로 선대의 연원은 알 수 없으니 잠부론의 기록을 볼 때 韓氏라 보았다. 삼조선은 기원전 4세기로 불한 朝鮮侯인 箕氏가 신한 조선왕 해씨에게 반기를 들고 스스로 신한(王)이라 칭하면서 분립하였으며 대부 예는 삼조선의 분립을 주동한 인물로 보았다.

연나라가 진개를 인질로 보냈다가 공격하고, 흉노 모돈의 침략을 받은 동호는 신조선으로 이로부터 신조선은 쇠약해졌다고 한다. 불조선은 신조선과 함께 연에게 패했는데 조선과 연의 경계인 만변한은 지금의 해성, 개평 등지의 부근으로 불한의 古都 부근이라고 보았다. 즉 연이 개척한 5군 중에서 어양, 상곡 일대는 신조선에게, 요동, 요서, 우북평 일대는 불조선에게 빼앗은 것이라는 것이다. 이후 조선과 한이 경계로 삼은 패수는 현우락이라고 보면서 과거 학자들이 패수를 대동강으로 보거나 일본 백조고길 등이 압록강 하류라고 본 것은 잘 못이라고 보았다.

위만은 불조선으로 망명하였다가 결국 기준왕의 도성인 왕검성을 습격하여 몰아내고 기준 왕은 해로를 따라 마한의 왕도인 월지국에 들어가 깨뜨리고 왕이 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마한의 여러 나라들이 같이 들고 일어나서 기준 왕을 쳐 죽였다고 한다. 왕검성은 대단군 제1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으로, 대단군의 삼경은 지금의 하얼빈, 평양, 개평 동쪽의 세곳으로 모두 왕검성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위만이 도읍한 왕검성은 개평 동북으로 『漢書』 지리지의 요동군 험독현으로 비정했다.

말조선은 처음에는 수도가 평양이었는데 그후 국호를 말한(馬韓)으로 바꾸고 남방의 월지국으로 천도하였다가, 불조선 왕 기준에게 망하였다. 말한은 한씨가 세습하였는데, 기준은 그 왕위를 탈취한 후에 국민들이 불평을 무마하기 위하여 자신의 본래 성인 기씨를 버리고 한씨로 성을 바꾸었다고 한다. 즉 옛 사서에는 월지국을 백제의 금마군인 지금의 익산으로 보았으나 이것은 익산군 마한 무강왕릉으로 인해 일어난 착오라 보았다. 마한 50여국 중에서 월지국과 건마국이 있는데, 건마국은 곧 금마군(익산)으로 마한의 古都인 월지국은 다른 國에서 찾아야 하는데 마한과 백제의 국경인 웅천이 지금의 공주이니 월지국은 그 부근이라고 한다. 마한이 월지국으로 천도하면서 그 고도 평양에는 최씨가 일어나 부근 25개국을 복속시켜 대국이 되었는데 바로 낙랑국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낙랑국은 한의 낙랑군과는 다른 지금의 평양에 세워진 나라 이름이라는 것이다.

신채호는 부여(북부여와 동부여)와 고구려는 신조선이 판도 내에서 세워진 나라로 신조선이 멸망하며 부여왕조가 된 것인지 부여가 곧 신조선의 별명으로 신조선으로부터 여러부여와 고구려가 되었는지는 고찰한 근거는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신조선이 흉노 모돈에게 패한 때가 기원전 200년 경이고 동,북 부여가 분립한 것도 이 시기라 후자가 사실에 가깝다고 추정하였다. 한무제가 침입한 조선은 둘 있다고 보면서 양복과 순체가 멸망시킨 위

씨조선 외에 창해군을 설치하려 했던 예맥조선은 동부여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위만조선이 망하고 한나라가 설치했다는 사군은 지금의 요동반도에서 위치를 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계획에 불과하지 실제 세워졌던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현도, 낙랑 2군을 요동군 내에 임시로 설치하였다고 보았다. 북,동부여를 현도군으로 설치하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해성 등지에 현도군을 임시로 설치했다고 한다. 낙랑은 한이 요동에 설치한 낙랑군과 낙랑국인 남낙랑으로 구분하였는데 대동강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남낙랑이 한과 교통할 때 수입한 것이거나 고구려가 한과의 전쟁에서 이겨 획득한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유물을 근거로 대동강 연안을 낙랑군 치소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신채호의 연구를 이어 고조선 연구를 더 심화시킨 학자는 정인보가 있다. 정인보는 1913년 상해에서 신채호를 만난 이후 신채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단군이나 고조선의 전쟁, 한군현 등을 단재보다 훨씬 자세하게 고증했다. 정인보가 한사군의 위치와 삼한의 위치를 고증한 것은 그의 학인으로서의 끈질긴 고증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그는 평양 부근에서 출토된 소위 낙랑봉니는 날조되었음이 틀림없다고 보았다.⁴⁰⁾

정인보는 실학 연구에 있어서도 선구적인 업적을 쌓은 학자지만 그의 대표적인 한국사 연구서인 『조선사연구』⁴¹⁾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고조선과 고구려일 정도로 이 분야의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정인보가 한국사 연구에 뛰어들게 된 것은 『조선사연구』에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조선총독부가 펴낸 『조선고적도보』를 보고 일제의 식민사학에 맞서 왜곡된 조선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였다. 1930년대는 일제 관학자들이 우리 고대사 체계를 파괴하여 우리 역사가 중국이나 일본의 식민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날조하던 시기였다. 이에 정인보는 1931년 1월 1일부터 『오천년간 조선의 얼』이란 제목으로 동아일보에 이듬해 8월 30일까지 연재하게 되고 해방후에 『조선사연구』(상,하,1947~1948)로 간행된다. 정인보의 역사학은 단재의 史風을 계승하고, 더 올라가서는 실학시대의 학풍을 정당하게 계승하여, 우리 역사를 민족사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체계화하였다.⁴²⁾

정인보는 시조 단군의 역사성을 부각하기 위해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40) 이만열, 2007, 「위당 정인보의 한국 고대사 인식」 『동방학지』 141, 30쪽.

41) 鄭寅普, 1946, 『朝鮮史研究(上)』, 서울신문사.

42) 김용섭, 1971, 「우리나라 역사학의 발달 -1930~40년대의 민족사학」 『문학과지성』 4.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등 다른 문헌과 비교하여 자세히 검토하였다. 먼저 『삼국유사』가 인용한 『위서』는 조위(曹魏)의 역사서로 왕침의 『위서』라 보았으며 『삼국유사』 고조선조는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위서 부분과 신화를 적은 고기 부분을 구별하여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단군의 표기를 『삼국유사』는 단군(檀君)으로 하고 있지만 맥락상 단군(檀君)이 맞다고 보고 있다.

고조선의 도읍인 ‘평양’의 유래에 대해서는 큰 강 근처에 도읍을 정하는 것이 오랜 관습이라 ‘별’의 고어와 ‘내’의 고어가 합쳐져 ‘평양’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조선’이라는 국호는 ‘다스리는 강역’이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 대대로 해당 지역에 세워진 나라들을 포괄적으로 부르던 이름으로 보았으며 ‘발조선(發朝鮮)’은 ‘발식신(發息愼, 發肅愼)과 통한다고 이해했다. 또한 발조선, 진번조선, 예맥조선, 낙랑조선 등은 모두 고조선 강역 안에 있는 나라라고 한다. 정인보는 중국문헌에 보이는 상고시대의 東夷와 숙신의 활동도 조선과 관련시켜 이해한 만큼 조선이 활동한 범위와 시기도 상당히 넓게 보았다. 고조선의 강역은 지금의 조선 이외에 開原 북쪽, 興京 동쪽으로 길림, 봉천 내지 흑룡강성까지라고 한다.

기자조선설에 있어서도 그는 기자조선을 부정했는데 정인보는 ‘기(箕)’와 ‘검’의 변천을 통해 기자조선설을 이해했는데 ‘검’은 고대 조선에서 최고 통치자에 대한 칭호로 고대 음으로는 ‘한[칸]’으로 전 조선을 다스리는 임금이어야만 ‘검’ 칭호를 사용했다고 보았다. 즉 기자조선은 역사적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 대신 ‘검조선설’을 주장한 것이다.

정인보는 또한 식민사학에 대항하기 위해 낙랑군의 위치를 한반도 밖에서 찾고자 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漢書』 지리지를 비롯한 문헌자료와 고고학자료를 고증하였다. 특히 한사군 속현을 압록강 이북으로 비정하기 위해서는 요동군 속현 18현의 위치도 다시 비정해야 하는데 정인보는 한사군을 다룬 9장은 물론 이후 고구려와 한나라의 전쟁을 다룬 16장에서도 이를 자세히 다루었다. 정인보는 위만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을 상세히 검토하며 한사군의 설치연대도 원봉 3년(기원전 108) 이후~6년이전에 먼저 낙랑, 현도, 임둔이 설치되고 원봉 6년 이후에 설치된 것이 진번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기원전 108년 왕검성이 함락되어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낙랑, 진번, 임둔 3군이 먼저 설치되고 이듬해 현도군이 설치되었다고 보는 현재 연구와는 다른 것으로 정인보만의 독특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한사군의 위치는 진번은 요서 대릉하 부근이며, 임둔은 소자가가 중심이고, 현도는 요동

의 혼하(渾河)이며, 낙랑은 요동 패수(溟水) 동쪽 험독으로 비정하였다. 평안도에는 한사군인 낙랑군이 아닌 낙랑국이 있어 한나라의 세력은 압록강 이동으로 미치지 못했다고 보았다.

정인보의 연구는 1930년대 중반 일제의 사상적 통제가 극심한 가운데에서도 일제 식민사관에 정면 대응하는 역사의식을 강렬히 표출했다. 해방 이후 비과학적이고 국수적이라고 규정되어 재해석이 기피되었던 고대사 분야에서 단재와 함께 그가 제기한 가설적 문제들은 점차 문헌의 종합적 연구와 고고학적 유물의 뒷받침을 통해 직간접으로 검증되고 일정부분 수용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⁴³⁾

또한 기자조선설에 있어서도 그는 魏略의 조선의 통치자를 기자와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절은 ‘昔箕子之後朝鮮侯’인데 여기서 ‘箕子之後’를 ‘기자의 후예’가 아닌 ‘기자 이후로’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사료비판을 통한 기자조선 부정과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검조선설’은 당시로서는 탁견으로 이해된다.⁴⁴⁾ 그리고 『시경』 한혁편에 나오는 ‘한후’에 대해 그는 조선의 군장으로 주목했는데 ‘한후’를 우리민족과 연관시켜 이해한 견해는 이후 남한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⁴⁵⁾ 특히 정인보의 연구는 남한학계보다는 북한학계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당이 고조선-고구려 중심으로 고대사의 체계를 세우고, 패수를 대릉하로 보고, 한사군의 위치를 압록강 이북으로 비정한 것 등은 북한학계의 정설로 자리잡았다.

근대시기 우리학자중에서 단군 문제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학자로는 최남선이 있다. 그는 고조선과 관련해서도 통사와 논설을 통해 연구를 진했는데 최남선의 첫 고대 논설은 「古朝鮮人の 支那沿海 植民地」(1915)였다. 최남선은 여기에서 朝鮮이란 명칭은 포괄하는 境域이 광대하여 북으로 黑水, 남으로 溟海, 동으로 蝦夷, 서로 突厥에 인접했다고 보았다. 또한 건국초기에도 長城 内外와 黃河 南北은 朝鮮과 漢 양 민족지의 雜居地였다고 보았다.⁴⁶⁾

최남선은 기자조선에 대해 「朝鮮史의 箕子は 支那의 箕子が 아니다」⁴⁷⁾를

43) 오영교, 1994, 「정인보」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창작과 비평사, 180쪽.

44) 조원진, 2014, 「단군과 기자 - 고조선사의 체계에 대한 고찰 -」 『단군학연구』31.

45) 김상기, 1948, 「예맥한이동고」 『사해』1(1974, 『동방사논총』,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철준, 1977, 「고조선사회의 정치세력의 성장」 『한국사』2, 국사편찬위원회.

윤내현, 1984, 「中國文獻의 古朝鮮 認識」 『韓國史論』14.

서영수, 1988,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 시민강좌』2.

46) 최남선, 1915, 「古朝鮮人の 支那沿海 植民地」 『青春』6.

47) 崔南善, 1929, 「朝鮮史의 箕子は 支那의 箕子が 아니다」 『怪奇』2, 東明社.

통해 그 허구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단군조선은 기자조선으로 이야되었으나 이때의 기자조선은 은나라의 기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해씨가 세운 나라로, 그는 개아지조선설을 주장한다. 해의 자손이라는 뜻의 개아지가 후일 중국의 기자로 부회되었다는 것이다. 그 영역은 압록강과 대동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천여리 정도로 보았다. 위만조선이 멸망후 설치된 한사군에 대해서는 낙랑군은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일부에, 진번군은 함경남도에, 현도군은 동가강 유역에, 임둔군은 강원도에 설치되었다고 보았다.⁴⁸⁾ 이러한 최남선의 영역관은 만주지역을 고대사의 중심지로 파악한 민족주의 역사가와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한사군을 한반도 내로 비정한 것도 오늘날 남한의 한사군 인식과 같다. 그러나 기자조선을 단군조선의 후예로 자리매김하거나 위만조선과 한사군의 투쟁을 통해 민족적 자각을 이루었다고 파악한 점은 중국에 대한 자주성을 강조하는 그의 역사인식을 엿볼 수 있다.⁴⁹⁾

단군과 관련하여 최남선은 단군 기사를 신화부와 역사부로 분리하여 이원적으로 접근하였다.⁵⁰⁾ 동북아시아 신화를 대변하는 환웅전과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단군전으로 구분한 것이다.⁵¹⁾ 이를 통해 단군 연구의 기본 방향이 잡을 수 있었다. 최남선의 1910년대 연구는 민족주의학자들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신채호와 김교헌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 본래도에 오른 최남선의 단군론은 단군이 종치적 수장이면서 종교적 사제장으로서의 단군론으로 변화했다. 또한 단군의 문화적, 보편적 성격이 보다 강화되었다. 단군의 개국지도 백두산이 아닌 구월산 일대로 비정하게 되면서 신채호 등과는 견해를 달리하게 된다.⁵²⁾

근대 시기 한국학계의 고조선 연구는 단군을 역사적 실체와 이를 한국사의 첫머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점은 단군이 역사성을 부정했던 일본학자들의 견해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시기에는 단군 문제와 함께 고조선의 체계와 기자조선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고조선사의 체계는 고조선=왕검조선으로 파악하며 이후 위만조선으로 이어졌다는 『三國遺事』 인식과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삼조선 체계로 이

48) 최남선, 1973, 「朝鮮歷史講話」, 『六堂 崔南善 全集』 1(韓國史(I) 通史篇), 玄岩社, 26쪽.

49) 이영화, 2003, 『최남선의 역사학』, 경인문화사, 120~121, 174~177쪽.

50) 최남선(전성근·허용호 역), 2013, 『단군론』. 경인문화사.

51) 이영화, 2003, 『최남선의 역사학』, 경인문화사, 79쪽.

52) 이영화, 2003, 『최남선의 역사학』, 경인문화사, 120~121, 133~136쪽.

해하는 『帝王韻紀』 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근대시기 기자조선이 부정되면서 그 시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문헌상 기자의 후예로 기록된 준왕을 어떻게 이해할지하는 문제가 숙제로 남겨졌다. 이에 대해 근대시기 한국학자들은 기자조선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기자가 활동한 시기에 이미 고조선이 존재했다고 보았다. 다만 그 실체를 기자조선이 아니라 해씨조선, 검조선, 한씨조선 등으로 이해한 것이다. 기자 동래에 대해서는 기자가 개인 자격으로 망명하거나 고조선 변방에 국한된 세력이었다면 기자가 조선에 온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대외관계에 있어 일본학계와 중국학계가 진개 침입 이후 연,진,한에 복속된 수동적인 모습만 강조했다면 한국학계는 당시 고조선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대외관계를 복원하려 했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한편 고조선의 주민 문제와 낙랑 등 한사군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한국학계 내에서도 상이한 인식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남북학계의 상이한 역사 인식으로 이어진다.

4. 결론

살펴본 것처럼 근대시기 한국, 중국, 일본학계는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고조선 인식을 보여주게 된다. 특히 단군, 기자조선, 영역, 주민 문제에 대한 인식은 많은 차이가 발견된다.

일본은 일찍부터 동아시아사에 대한 역사 연구를 시작했지만 메이지 이래 조선에 대해 차츰 민족적, 국가적 멸시관을 강화했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조선사를 바로 보고 연구하려는 자세를 잃어 버렸다. ‘조선사’는 ‘동양사’속에 정당하게 자리매김되지 못했다.⁵³⁾ 일본학계는 단군을 부정하고 고조선의 역사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한국사는 한반도 남부의 韓族을 중심으로 설정되면서 중국에 종속되어 가는 모습이 강조되었다.

중국학계 역시 만주사변을 계기로 동북지역을 중국사로 자리매김하려는 연구 분위기 속에서 단군을 언급하지 않고 기자 동래 이래 진개 침입 등 漢族의 이주와 활동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동북지역은 물론 한반도 북부의 역사까지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통해 중국사의 관점으로 파악한다.

반면 한국학계에서는 단군을 강조하면서 기자조선 대신 다른 개념으로 고

53) 나가하라 게이지(하종문 역), 2011,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삼천리』, 58~59쪽.

조선 후기를 인식했다. 고조선 영역의 경우 압록강 이남으로 국한하려는 일본, 중국학계의 견해와는 달리 만주지역도 고조선의 주요 활동 무대로 보았다.

고조선의 주민에 대해서는 한국학계는 부여족이나 환족을 중심종족으로 파악했다. 이것은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정체성을 단군조선으로 보는 한국학계와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이라는 漢族系 국가로 본 중국,일본학계의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동북지역의 주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부여와 고구려를 예맥족이라 한다면 선진문헌의 예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조선의 주민을 어떻게 파악해야할지 향후 과제를 남겼다.

메모1

홍익재단

메모2

홍익재단

메모3

홍익재단

메모4

홍익재단